

미사일

4294

5

<祝 國軍의

愛國 이라는 것 李 殷 相

손발이 맞아야 한다 李 熙 昇

座談會 日課後의 生活을 말한다

☆附錄 · 特別 政訓 教育 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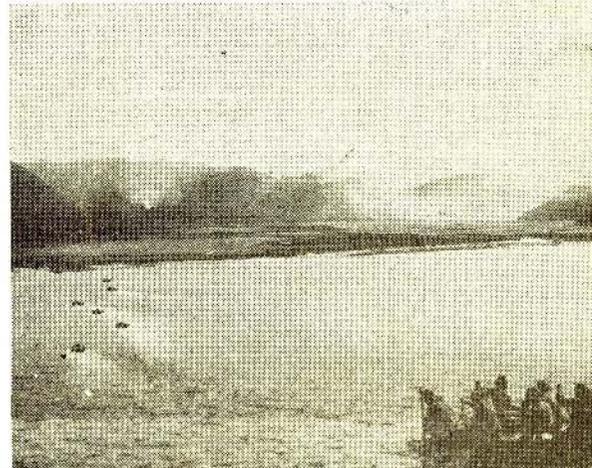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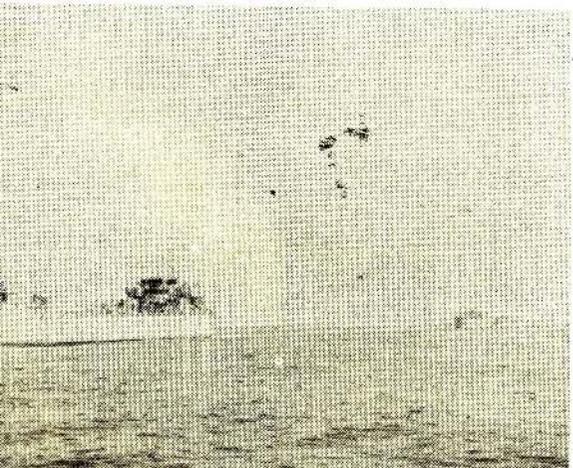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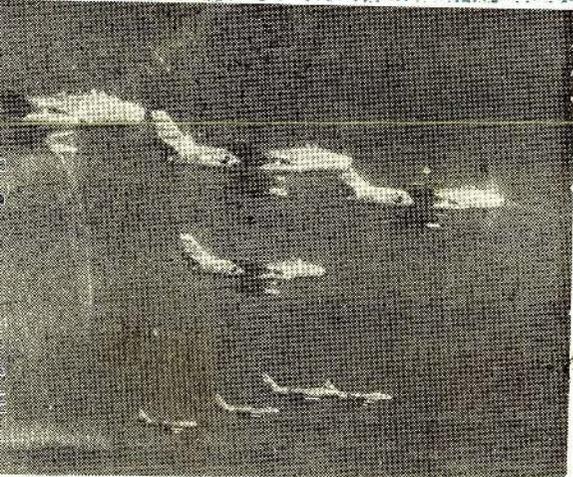


祝

혁 명 공 약

군 의 날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인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 정비 강화한다.
2.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주를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特輯

韓國空軍 發展概要

一、初創期

空軍의 創建은 八·一五解放과 함께 海外 空軍界에서 活躍하던 하늘의 先覺者들이 雄志를 간직한채 續續 還國하여 現代 國防에 있어서 空軍力이 차지하는 比重의 絕對性과 明若觀火한 北韓 傀儡의 南侵을 能히 豫見하는 가운데 航空運動을 展開한데서 부터 시작 된다.

이리하여 韓國空軍創建을 爲한 첫 段階로서 이르는바 七人幹部들이 檀紀四二八一年四月一日 航空部隊 創設 幹部要員으로 國防警備隊 步兵學校에 入校하고 所定の 教育課程을 받게 되었던 것이며 檀紀四二八一年五月五일에 航空基地 部隊가 創設되고 初代部隊長에 崔用德將軍이 就任하였다.

檀紀四二八一年 九月十三日 美軍으로부터 L-4 輕飛行機 十臺를 引受하게 됨을 契機로 陸軍航空司令部로 昇格하고 그 隸下에 飛行部隊와 航空基地部隊를 創設하였으며 檀紀四二八一年 九月十五日에는 最初로 大極表示를 단 飛行機가 우리 操縱士의 손에 依하여 歷史的 飛行을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最初에는 空軍이 陸軍의 한 隸屬部隊로서 發足하였으나 現實의 要請은 勿論 先進國家의 編制로 볼때에도 空軍의 早速한 獨立이 必要하게 되었다. 여기에 第一次의 으로 隨伴되는 人的 強化策으로 檀紀四二八二年 二月十五日 陸軍航空士官學校의 設立을 보게 되었다.

한편 檀紀四二八二年 六月二十八日 航空局의 設置를 보아 軍行政의 基礎를 確立하는 등 空軍發展은 着着 軌道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搖籃期를 免치 못한 이때 共產主義者들의 使賊을 받은 不純分子들에 依하여 亂順 叛亂事

建軍 12周年을 맞아 우리空軍은 共產主義者들과의 鬪爭에서 언제나 必勝을 期할 수 있는 戰力增強에 더욱 拍후를 加하고 있다.

다음은 확고한 臨戰態勢로 祖國의 하늘과 極東의 自由를 지키는 우리空軍의 活躍相이다.

作戰에 參加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多事多難한 建設期를 거쳐 檀紀四二八二年 十月一日 드디어 所望의 空軍獨立을 보게 되었다.

檀紀四二八三年 五月十四日에는 國民의 精誠어린 獻納으로 購入된 建國機(T-16 練習機) 十臺의 命名式이 汝矣島 基地에서 內外貴賓 및 多數市民이 參集한 가운데 盛大히 舉行되었다.

그러나 空軍이 獨立한지 不過 八個月만에 六·二五 戰亂은 勃發하였던 것이다.

二、動亂期

戰力을 論할 餘地조차 없는 形便에서 六·二五 戰亂을 當面空軍으로서 는 이에 對處하여 汝矣島 飛行場에 作戰指揮所를 設置하고 臨時 保有하고 있던 二十二臺의 全可動機를 가지고 UN空軍機가 戰線에 到着하기前 七月十日까지의 期間中 韓國地上軍과 UN軍間의 連絡 任務 傳單散布 및 偵察等に 協力하는 한편 當時 戰鬪機가 없었으므로 三十浬의 드 國產爆彈을 AT-16 및 輕飛行機로 東豆川, 議政府 戰線에서 南侵하는 敵軍에게 投下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不利한 條件에 놓였을 때 空軍에서는 二次大戰時에 戰力을 發揮했던 戰鬪機 F-51(一名 부스탕) 十臺를 美軍으로부터 檀紀四二八三年 七月二日 引受하여 單二日間의 教育을 받은 後 檀紀四二八三年 七月三日부터 F-51 戰鬪機에 依한 最初의 歷史的 出擊을 開始하여 我地上軍을 掩護 南侵하는 敵에게 猛擊을 加하였다.

檀紀四二八三年 七月下旬에 이르러 遲延 後退作戰이 大體로 끝나고 UN軍은 洛東江 弓形 防禦線構築을 完了하여 敵의 南侵阻止에 全火力을 기울일 무렵 우리 空軍은 鎭海等 各地에 基地를 두고 統營方面 永川方面 古박에 洛東江一帶의 纖波作戰에 參加하여 敵의 頑強한 包圍網을 擊破하고 我軍 北進攻擊에 一大轉機를 마련함에 큰 貢獻을 하였던 것이다.

命令一下 愛機로 달리는 操縱士들.



이다.

檀紀四二八三年 九月十五日 UN軍이 歷史的인 仁川上
 作戰을 敢行하자 韓國 空軍도 이에 呼應하여 基地를 鎮
 로부터 汝矣島를 거쳐 平壤으로 前進시키고 平壤 宣川
 界, 安州 地區에 出擊하여 赫赫한 戰果를 올린면서 統一
 業을 거의 完遂하려 할때 中共軍의 大舉 介入으로 因하
 도다시 撤收의 쓰라림을 맛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韓國 空軍은 戰鬪部隊를 大田 基地에 移動시키고
 戰을 繼續하였으며 殘餘 飛行團 兵力은 濟州 基地에 移動
 더 加一層 猛烈한 訓練을 展開하여 續續兵力을 一線 基地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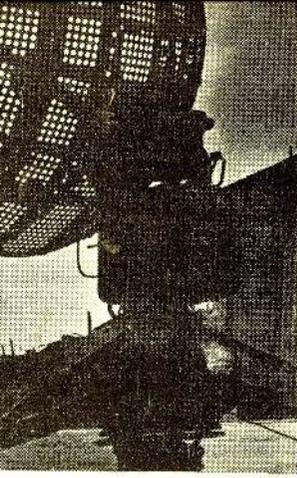
한편 後方 地域에서는 智異山을 中心으로 蠢動하던 共匪
 伏作戰에 參加하여 共匪掃蕩에 큰 成果를 건우했으며 이
 까지 韓國 空軍은 金斗萬 大領(當時階級 少領)을 筆頭로
 回出擊 勇士를 續出し켰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空軍의 戰力은 名實共히 強化됨으로써
 紀四二八四年 十月부터 江陵 地區를 根據로 敵後方에 對
 單獨出擊 作戰을 遂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同年
 月二十八日에는 東部 戰線에서 韓國 地上軍을 直接 支援하
 空地 協同作戰을 展開하였으며 檀紀四二八五年 十二月二
 五日에는 敵의 所謂 크리스마스 攻勢를 先制하는 大出擊
 敢行하여 救國의 干城으로 싸웠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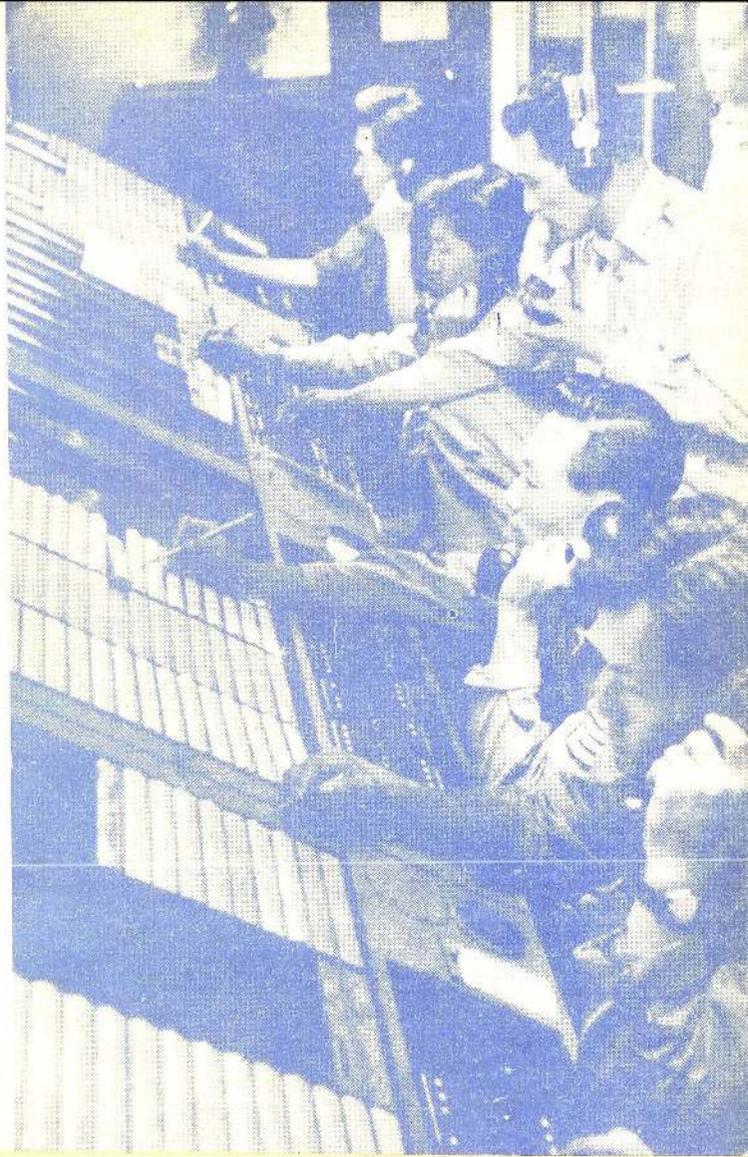
그러나 檀紀四二八六年 七月二十七日 國土가 兩斷된체
 戰은 成立되었던 것이다. 其間 韓國 空軍은 單獨 出擊作戰
 開始한 以來로 休戰 成立日까지 無慮 八二七六回의 出擊回數
 와 三九名의 百回 出擊 勇士를 輩出함으로써 敵에게 人等
 物的으로 莫大한 損失을 주었던 것이다.

三、休戰期

休戰以後 韓國 空軍은 共產傀儡의 再侵에 對備하여 猛烈한
 訓練期로 들어갔으며 裝備改善을 通한 現代 空軍의 偉容을



爲
眞은 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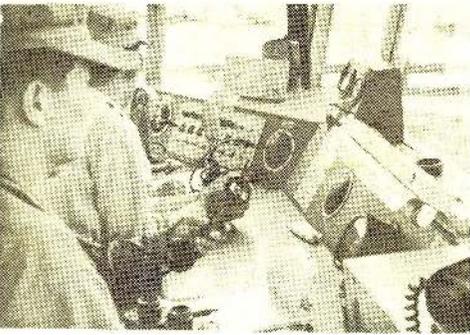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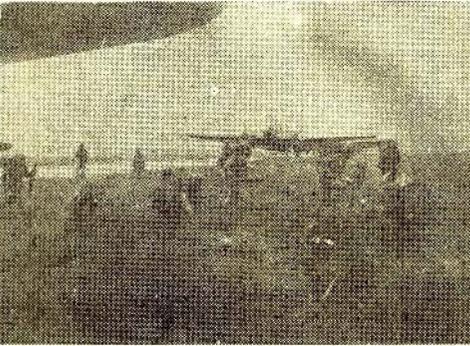
→ 航路管制士들이 飛行中인 操縱士들과 航路의 安全을 爲하여 긴밀한 連絡을 取하고 있다.

爲先 最新 제트機를 保有하기 爲한 첫 段階로서 제트 縱教育 및 整備教育에 注力하였으며 檀紀四二八八年六月 是 第一次로 F-186 세이버 제트機 五臺의 正式 引受가 으므로써 드디어 韓國空軍도 現代化된 空軍으로서의 第一 를 내 디디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方便으로는 「레이다」의 技術教育 C-46 輸送機의 操縱 및 整備教育이 進行되었고 檀紀四 八八年 十月의 第七回 航空日에는 우리나라 初有의 제트 空中 展示가 觀衆를 歡呼裡에 開催되었다. 이리하여 檀紀 二八八年 十月에는 우리의 第○戰術飛行團이 最新 제트機 裝備되었으며 檀紀四二九〇年 十月以後부터는 國內 主要 地를 定期航行하는 C-46 輸送機에 依한 輸送業務를 開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檀紀四二九一年 一月에는 美空軍 局으로부터 航路通信 統制事務를 正式으로 韓國空軍이 移 받으므로써 航空機의 安全航行에 主導的 役割을 하게 되 었다.

이렇듯 짧은 歷史에 比하여 눈부신 發展을 거듭한 韓國 軍은 檀紀四二九一年 四月九日에 「오끼나와」 美空軍基地 서 開催된 合同空軍示威를 비롯하여 檀紀四二九二年 四月 十七日以來 年例의 으로 比律賓 「마니라」에서 開催되고 있 太平洋地區 自由陣營 空軍射擊大會에 三次에 걸쳐 參加하 各種日에 있어서 優勝의 榮譽를 차지함으로써 韓國空軍의 卓越한 力量을 海外에 널리 誇示하였다. 그리고 檀紀四二 二年 七月에는 對空警報管制機構가 美空軍으로부터 우리 軍에 完全히 移讓되어 單獨으로 運營케 되었으며 檀紀四 九二年 九月에는 또 하나의 最新 제트機로 裝備된 第○飛 團의 創設을 보게 됨으로서 우리 空軍은 現代의 인 戰術空軍 으로서의 規模를 갖추고 祖國의 領空 守護에 萬般態勢를 가 추게 되었다.

그리고 檀紀四二九二年 十二月十六日 海兵隊와의 空輸作戰



高空의 氣象을 아
하여 가장 重要한 일
空氣象觀測用 各種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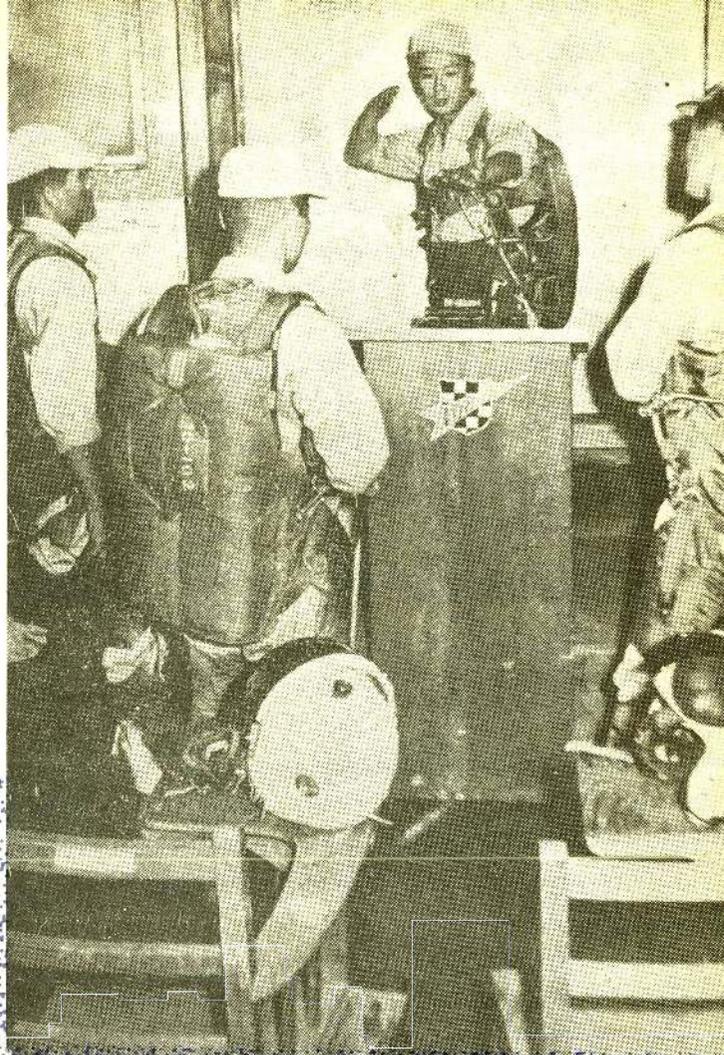
上=通信下士官들의 教育光景
中=空地合同 作戰訓練 光景
下=指揮塔에서 離着陸航空機를 管制하

인 「독수리」作戰에 參加를 비롯하여 檀紀四二九三年 六月十
二日 「씨-호크」(SEA HAWK) 作戰(韓國海軍, 海兵隊, 空
軍과 美海軍의 合同上陸作戰)에 參加하여 戰技向上에 注力
하였으며 檀紀四二九三年 八月十九日에는 最初로 제트機廠
整備에 成功한바 있다. 또한 同年 十一月에는 晝夜晴曇을
가리지 않는 全天候遠擊 戰鬪機인 F-86D, 十二月에는 또
다시 戰術航空機인 T-28의 引受 導入 등으로 防空의 힘은
더욱 強化되었다.

檀紀四二九四年에는 UN陸

·海·空軍 및 韓國陸·海·空
軍·海兵隊와의 防空反擊支援
合同作戰等に 數次에 걸쳐 出
動하여 臨戰態勢의 實力을 培
養하는 한편 七月에는 南原地
區 水災民 救護에 「해리컴터」
가 出動하여 重患者 輸送 및
醫療品 食糧을 供給하였고 또
이에 앞서 六月에는 絶糧으로
死線에서 헤메이는 全北 沃漣
郡 近海의 孤島民을 救護한바
있다.
九月 十五日에는 機動性의
는 防空作戰을 効率的으로 遂
行하기 爲하여 「空軍作戰司
令部」를 設置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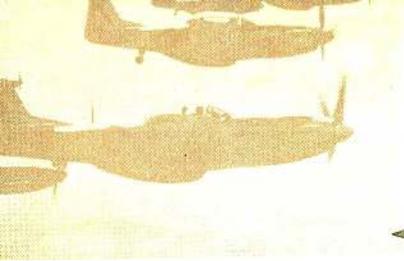
약진하는
空軍力



出擊 直前 任務(任務)에 對하 說明을
듣고 있는 제트 操縱士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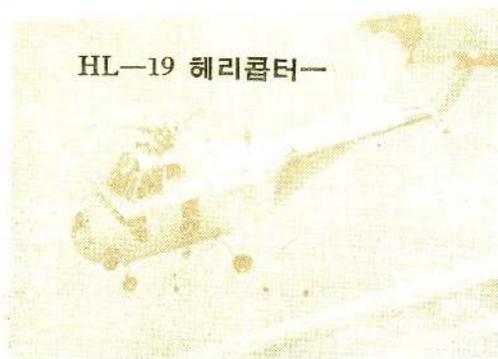
卽刻 出擊할 수 있는 姿勢로 待
機室에서 非常出動命令을 기다리
고 있는 제트 操縱士들.



C-46 輸送機



HL-19 헬리콥터



T-28 戰術航空



F-86F 세이버 제트 戰鬪機



T-33 제트練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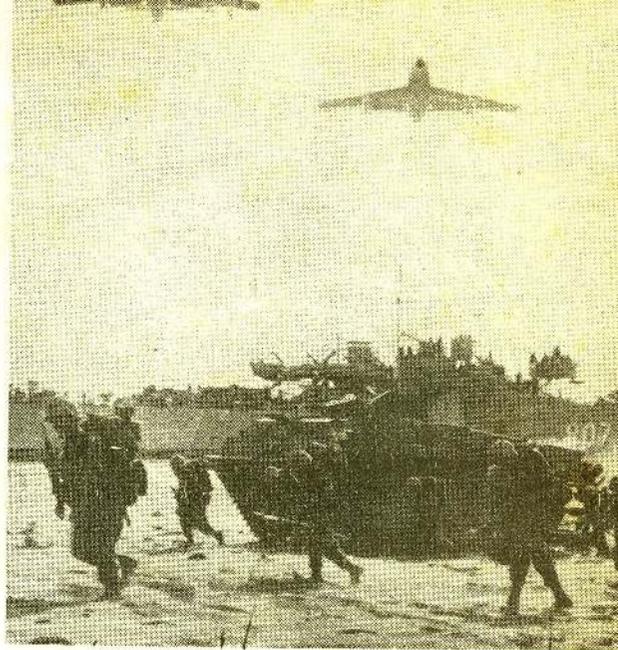


제트 戰鬪機의 날개 밑에 로케트탄을 裝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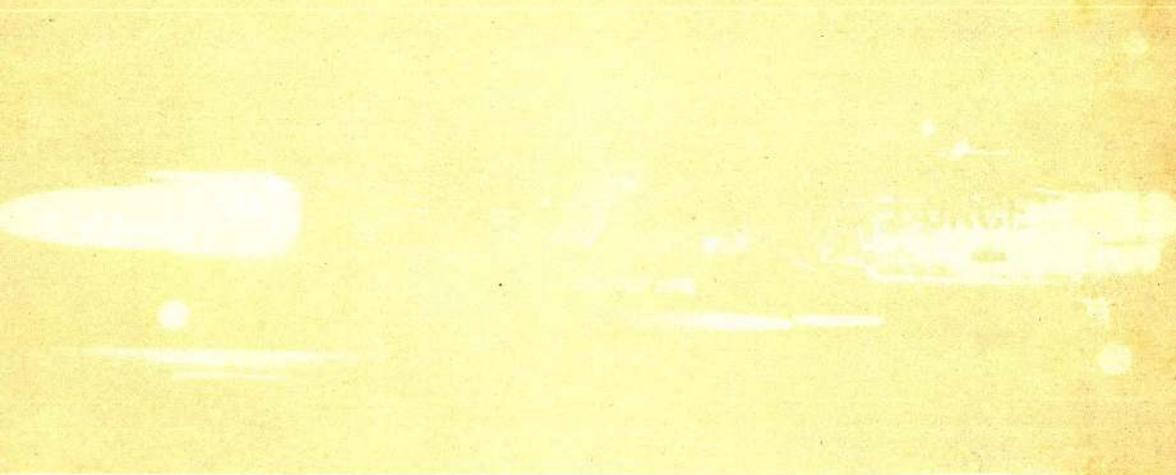
整備士들이 砲彈을 裝填

對地 射擊訓練 光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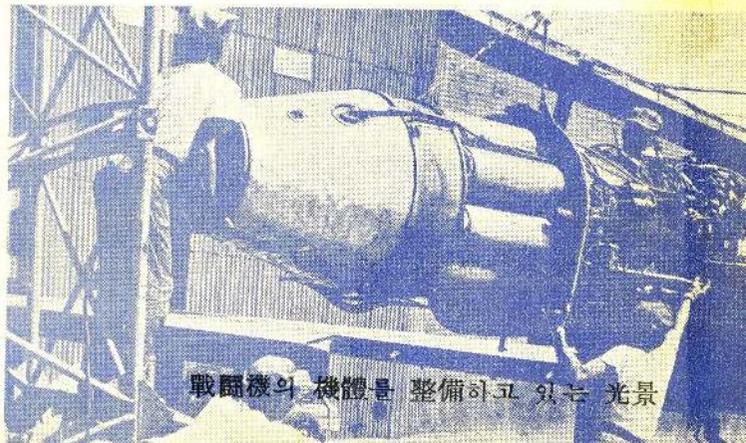


三軍合作戰訓練 光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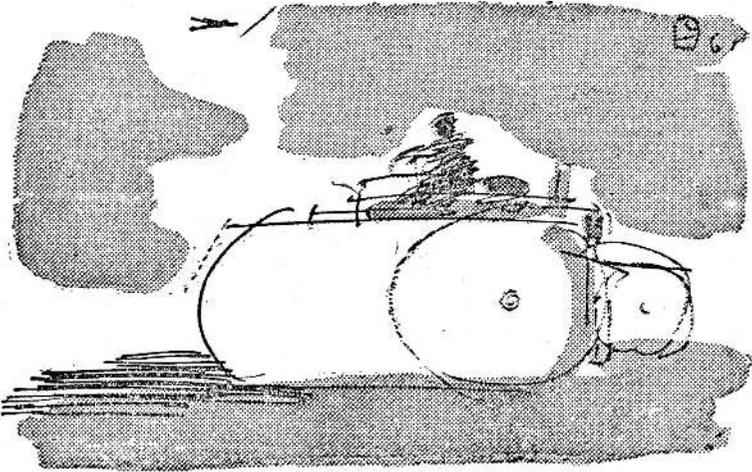
全天候遊擊機인 F 86D 機의 夜間出擊 光景



對空警報管制業務光景



戰闘機의 機體를 整備하고 있는 光景



表紙...無限한 宇宙空間을 舞臺로 하여 싸우는 空軍이 날로 發展하는 戰力과 團結(凝結된 黑點)을 象徵하고 있다
閱 哲 泓

<目次>

特輯 · 空軍 12年 ▲國軍의 날을 맞아
— 韓國 空軍 發展概要 —

愛國이라는 것 李殷相 (二)

손발이 맞아야 한다 李熙昇 (五)

協助精神과 社會生活 尹永春 (七)

◆十月三日 開天節 · 弘益人間 金廷鶴 (三)

◆十月九日 한글날 · 한글의 優秀性 李崇寧 (四)

◆十月二十四日 유엔 데이 · 平和를 爲한 努力 李元一 (六)

紅衣將軍과 權慄將軍 柳光烈 (八)

美國의 「메스·커피니케이션」 金基漸 (三)

렉싱턴·콩코드의 싸움 李普珩 (三)

달나라로 가는 길 김영주 (四)

미사일의 歷史 ③ 外誌에서 (英)

<將兵欄> 率先垂範 周永福 (英)

守護精神 李先雨 (七)

어느 파이프릿의 편지에서 K S K (完)

座談會 日課後의 生活를 말한다 (10)

◆世界的 驚異 ② 하리바톤 (四)

◆스위스 紀行 金載元 (六)

◆信仰과 生活 林東善 (三)

◆軍番없는 反共勇士 柳德善 (三)

◆당신도 成功할 수 있다 編輯係 (四)

<수필> 飛行의 꿈 李寧熙 (三)

同志愛 李敬南 (三)

詩 · CUPIDO 金宗文 (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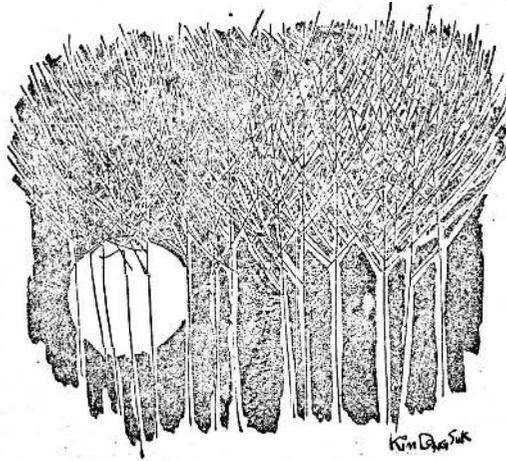
書文 · SMILE 白榮洙 (六)

△月間時事 △辛지호프의 危險한 曲藝 (四)

△공트 △슬프지 않은 理由 고바우 중위 (五)

小說 · 南쪽으로 가는 길 李元馥 (六)

△附錄 △特別政訓教育資料 (七)



愛國 이 라는 것

李

殷

相

麗末의 故隱先生이 江華 摩尼山에 올라 險固한 江山을 바라보다가 山疊疊, 水重重的한 風景에 너무나 感激하여 읊은 詩句에 「山河險如此, 壯哉吾有國」이란 것이 있다.

「江山이 이같이 險固할사, 어찌 壯하다우리나라여!」라는 뜻이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愛國心의 基盤인 것이다. 제 國土를 사랑하고 제 國土에 感激하는 心境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愛國者인 것이다.

忠武公이 마지막 戰歿하기 二日前에 明나라 水軍都督 陳璘과 對話하던 中에 陳都督이 小西行長의 匪에 빠져 집짓 그의 나갈길을 열여 줄 생각으로 自己는 南海의 賊들을 무찌르러 가겠노라 하므로 忠武公은 南海에 있는 것은 賊이 아니라 우리 捕虜들임을 말했었다.

그랬으나 陳都督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固執할뿐더러 도리어 皇上이 내게 長劔을 내려 주셨다 하면서 自己가 生殺之權을 가진 것을 들어 公을 위협까지 하자 公은

「한번 죽는 건 아깝지 아니하오. 내가 대장이 되었으매 결코 적을 내어놓고 우리 사람들의 목숨을 죽이게 할 수는 없소」

하여 마침내 그를 感服케 한 일이 있었다. 그렇다! 忠武公이 말한 그 「우리 사람(我人)에 대한 사랑 그것이 가장 큰 要點인 것이다.

우리 사람! 우리 백성! 우리 동포! 우리 겨레! 祖上과 血統과 歷史와 말과 글과 風俗과 制度와 모든 文化와 生活의 全體運命을 같이 한 제 國民을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心境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愛國者인 것이다.

高麗顯宗때 大陸으로부터 遼나라 聖宗이 大軍을 몰고 쳐들어 왔을 적에 일이 不幸하게 되

어 우리된 將軍 康兆들이 敵에게로 사로잡혀 갔다.

遷나라 聖宗은 康兆를 향해서 「네가 내 신하가 되겠느냐」

하자 康兆는 대답하되 「나는 高麗사람이다. 어찌 다시 네 신하가 될수 있겠는가」

하였다. 聖宗은 두번 세번 묻다말고 칼로써 康兆의 살을 저미어가며 물었어도 끝내 항복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두동강이 되어 죽고 말았다. 康兆는 「高麗(곧 祖國)의 이름 아래 제 生命을 바친 것이다.

그렇다. 祖國의 主權, 祖國의 名譽, 祖國에 대한 사랑과 志操를 제 生命같이 여기는 心境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愛國者인 것이다.

우리가 愛國이란 말을 하 많이 듣고 또 하 많이 쓰고 있음이 事實이다. 그러나 그말에 대한 具體的인 또렷한 內容을 把握한 이는 적은것 같다.

과연 무엇이 愛國인가. 어떤이가 愛國者인가. 그것의 眞實한 內容을 明確히 분별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제 列聖한 세가지 項目임에 틀림이 없다.

제 國土를 사랑하고, 제 國民을 사랑하고 또 제 國權을 사랑하는 그것이다.

제 國土를 사랑한다는一點에서 볼때 나는 우리들 農民처럼 愛國者가 없다고 본다.

아침부터 밤까지 제 農土를 갈고 또 거기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農民들! 그들의 구슬같은 땀방울이 떨어져 그 땅이 기름지는 것을 생각해 볼때 그들처럼 國土를 사랑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 것인가.

都市의 政治人이나 文化人들이 農民들을

啓蒙한다고 가서 愛國心을 宣揚하라고 의치는 일이 많다. 다시 생각해보면 어이 없는 諷刺가 아닐 수 없다. 누가 누구에게 愛國을 가르치는 것인지 모르겠다. 都市人들이 그들에게 가서 愛國하는 方法을 배우고와야 할 것이다.

오늘이 나라의 青年들은 먼저 내 國土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이 國土를 떠나서는 내 生活이 무너지고 만다. 이 地球위에 나를 반가이 받아들일 곳은 여기, 바로 여기, 내 國土밖에는 아무곳도 없는 줄을 뼈속 깊이 깨달고 感激해야 한다.

忠武公의 이야기로 이런 것이 있다. 忠武公이 戰爭中에 軍糧을 自己손으로 마련했던 것은 勿論이거니와 그 밖에 다른 또 白米 五百石을 保管하고 있었던 것인데 누가 그것을 어디 쓸 것인지 물었다. 그때에 忠武公은 이런 대답을 했다.

「지금 임금(곧 主權을 말함이다)이 義州에 가 제신대 일이 좀더 不幸해지면 江을 건너 遼東을 넘어서실 것이다. 朝廷에 있는 大臣들의 意見도 모두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한다. 萬一 그렇게 된다면 나는 마땅히 배에다 이 곡식을 싣고 西으로 올라가서 임금(主權)을 모시고 敵을 相對하여 곡식을 다해 싸울 것이요, 혹시 싸움이 不利하여 죽는다면 해도 임금과 신하가 같이 안고 내 國土안에서 죽는 것이 옳다」

하였다. 이 마지막 한마디 「임금과 신하가 같이 안고 내 나라 땅에서 죽는 것이 옳다」(君臣同死於我國之地可也) 한 그말! 과연 百代에 내세울 偉大한 愛國箴言이다.

싸움이 터지고 내 身邊에 危險이 닥칠적에 모든 國民들이나 特別히 모든 指導者들로서 과연 내 主權과 思想과 理念을 안고 내 國土안에서 죽겠노라는 무서운 決意를 할 사람이 과연 몇사람이나 될런지!

가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면 亡한 나라의 國民을 반가이 받아들일 나라도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살아도 죽어도 나라는 오직 여기 밖에 許諾된 곳이 없음을 굳게 믿어야 한다.

다시 또 제 國民을 사랑한다는一點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들 軍人처럼 愛國者가 없다고 본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一線에서 나라의 安危를 한 어찌에 매고 國民의 앞을 防衛하는 軍人들! 그들의 苦難과 피와 죽음으로 國民이 하룻밤이라도 悲개를 빼고 자는 것이 아년가 하고 해야 할 볼때 그들의 恩功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都市의 指導人士들이 軍人將兵을 앞에서 愛國講演을 곧잘 하고 있을 뿐이다. 누가 누구를 向해서 의치는 것인지 웃을 일이다.

그렇다! 軍人을 일러 國家의 干城이라고 한다. 城郭의 定義는 「禦暴保民」이다. 밖으로 侵害해 들어오는 暴力을 防禦하고 다시 안으로 國民을 保護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혹시 우리 軍人들로서 軍人의 任務를 마치 「禦暴」인 것만으로 생각하는 이가 있을지도 모른다. 戰爭하는 데만 쓰는 것이 軍人이 아니라 軍人의 眞價는 실로 「保民」에 있다. 國民을 保護하는 그것이 軍人의 究竟使命이다.

忠武公이 三道水軍統制使라는 무서운 權限

손, 발이 맞아야 한다

〈서로 돕는 精神이란?〉

李 熙 昇



「이소프」의 우화(寓話)인가, 이런 의미의 이야기가 있다.

사람의 몸뚱이 중에서 입(口)을 제쳐 놓은 다른 부분들이 회의를 하였다. 눈이나 코나 귀나 손발들이 다 각각 자기들은 맡은 직책이 있어서 부지런히 일을 하건만, 오직 입만은 아무 일도 아니하고, 가만히 놀기만 하면서, 자기네들이 애써서 빌어서 만들어 놓은 맛있는 음식만 먹고 있으니, 입은 매우 패설한 놀이란 것이다.

그리하여 몸뚱이의 여러 부분들은 입을 모아 가지고, 일체 일을 안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를 하루 이틀 사흘... 지내노라니,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귀나 코나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있으면서 몸은 한량없이 편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갈수록 온 몸이 풀리고 기운이 떨어져서 손발 팔팔 하나 움직일 수가 없고 눈가물조차 달삭할 도리가 없어서 인제 영 죽을 판이 되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연한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일 안 하기로 동맹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최후까지 버티고만 있었다. 아주 기진맥진한 판에 이르러 손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그리하여 두 발에게 간청하였다.

「여보게 두 발, 내 말을 들어 보게. 아무래도 우리가 살려면, 입을 빌어 버어야 하겠네. 이렇게 기운이 탈진하고서야 이 이상 살 도리가 어디 있나?」

입은 내가 할 터이니, 자네가 수고를 하여 일자리로 걸어가 주게.」

하였다. 발도 이 이상 버티다가는 아주 무릎이 찾아지고 말뜻스러워서 손의 간청을 들었다.

「그리하게. 나의 최후의 기운을 다 하여 결어는 가겠지만 방향을 모르고는 길을 걸을 수가 없으니, 눈에게 보는 수고를 부탁할 수밖에 없네」

하고 발은 눈에게 간청하였다. 눈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야 난들 최후의 노력을 아끼겠나? 방향은 내가 알아차리고 살피겠네. 그러나 우리의 적(敵)은 보이지 않는 데 많이 숨어 있으니, 어느 수풀 속에서 마시랴 소리라도 나가든, 귀가 재임을 지고 알아 내야겠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통채 잃어버리기가 십상판구니, 위험천만한 일이 아닌가?」

하면서, 눈은 귀에게 부탁하였다. 「그렇더니 귀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것이 없이 찬성하였다.

「그것은 염려 말게.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합심하고 노력하여 어떠한 먹을 것을 찾아낸다 한찌라도 그것이 과연성한 것인지, 썩은 것인지, 독이 있는 것인지 맛이 좋은 것인지, 그것을 잘 판단하고 구별하여 내려면, 냄새를 맡아 보아야 할 터이니 코도 이 제의에 찬동하여 일을 하여 주어야겠네.」

하였다. 코도 물론 아무 군말 없이 그의 견에 따랐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다시 용기를 내고 마음을 합하여 부지런히 일을 하여 입을 띄어 살렸다. 그랬더니 저희들도 기운이 차차 회복되고 정신이 나서, 그후로는 몸뚱이의 각 부분이 아무 불편도 없이 협심동력(協心同力)하여 일을 잘하고, 따라서 몸 전체의 원기가 점점 왕성하여져서 일하기에 조금도 힘이 안 들고, 서로 의도 좋아져서 매우 평화스럽고 재미 나는 생활을 계속하였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사람의 사회에는 — 아니 사람뿐 아니라 생물계(生物界)에는 — 집단(集團)이 있고, 그 집단 속의 각 분자는 각각 맡은 소임이 있으며, 그 소임은 서로 협력함으로써 완수할 수

있고, 자본자들의 책임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야만, 그 집단은 비로소 번영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각 부분이나 개체도 살 수 있게 된다는 일종의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이다.

「파원」의 진화론(進化論)이 주장된 후로부터, 세상에서는 우승 열패(優勝劣敗)나 약육강식(弱肉強食)이니 하는 소리가 많이 돌아다녔다. 우수한 놈만이 살 수 있고, 열등한 놈은 죽어 버리고 말게 된다는 말이요, 약한 놈은 강한 놈의 밥이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이다.

이 사상은 十八·九세기에 「구라파」친척을 흔들었다. 그리하여 남보다 먼저 물질문명이 앞선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은 서로 다투어 가며, 세계 각 지방에 넓혀 있는 약한 나라 민족들을 새로운 무기로 정복하여, 저희들의 식민지를 만듦의 가치고, 그 원주민(原住民)들의 재산을 빼앗고, 또 그들을 노예(奴隸)와 같이 — 아 니 그보다도 우마(牛馬)와 같이 부려 먹고, 그들의 고혈(膏血)을 빨아 먹었으며, 온갖 학대를 하다가, 저희들의 비위에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들의 목숨을 다쳐 버 리지나. 파리 모양으로 학살(虐殺) 하였다. 그렇게 하여도 이것이 죄가 되는 줄을 모르므로, 약육강식의 원칙이 들어 맞는 당연한 일이라

고 생각하여,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없었다.

그리하여 세계 六大洲의 대부분은 저 백인(白人)들의 채찍과 질곡(桎梏) 밑에서, 침음(呻吟)하고 죽어 가고 하였는 것이다.

그 한 가지 예로, 금년 八월 一八일 자 타인(Tina)에 게재된 기사를 보면, 서력 기원 一五〇〇년에 콜루탈(葡萄牙)의 선장(船長) 「페드로·카브랄」(Pedro Cabral)이 남아메리카 대륙의 「브라질」(Brazil)을 발견하였을 때에는三百만명의 인디안(아메리카대륙의土人)이 살고 있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약 七만八천명으로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三백만의 인구가 七만八천으로 줄어들었다는 그 수자 속에는 큰 명한 중족이 가치고 온 질병으로 인하여, 미개한 중족으로서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죽어 버린 수효도 적지않이 포함되었겠지마는, 그러나 그 대부분은 가족(家畜)과 같은 대우를 받다가 학살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브라질」이라는 한 나라의 지역에서만 생긴 일이니, 과거 수세기(數世紀)를 내려오며, 전세계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장자의 만행에 희생된 인구의 총수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우승열패와 약육강식의 라는 것이 인류 역사상에 비추어

보거나, 그 밖의 생물계(生物界)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때에 당연한 사실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사회나 동식물계(動植物界)에서 일어나는 사실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다. 이러한 생존경쟁(生存競爭)이 있는 반면(反面)에 상부상조(相扶相助)라는 원초적이 행하여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령 동물이 호흡(呼吸)할 때에, 공기 중에 포함된 산소(酸素)를 흡수하고, 그 대신 탄산가스(炭酸瓦斯)를 배설하여 내보내면, 식물은 이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동화작용(同化作用)에 의하여 다산소를 뽑아 내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동물과 식물은 그 생명유지에 절대로 필요한 물질을 서로 공급(供給)하고, 서로 혜택을 받으며 번영하여 나가는 것이다.

또 벌과 나비는 꽃속에서 저희들의 생명에 절대로 필요한 꿀을 얻어 가고, 그 대신으로 이 꽃의 화분(花粉)을 날개나 몸통에 묻혀다가, 다른 꽃의 자(雌蕊)의 주두(柱頭)에 발라 주어서, 그 식물의 생식(生殖)을 도와 주고 있다. 이러한 비차간(彼此間)의 상부상조 하는 사실은 자연계에서 이 밖에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동부는 식료품(食料品)을 공급하고, 공장(工廠)은 식량 혹은 그 이외의 생활필수품을 만들어서 농부나 공장이 아닌 사람들에게 제공(提供)하고 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은 대개 물건을 만들어 낸 사람과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중간에서, 수요공급이 원활하도록 된리를 도모하여 주는 직분을 맡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인류사회에 있어서, 상부상조의 가장 현저한 큰 사실이지만, 이 밖에도 유형 무형한 여러 가지 관계가 사람들 사이에 열거설기 맺어져 있어서 자기들도 모르는 중에 남을 도와 주고 있다. 그러기에 사람은 도저히 혼자 자서 고립하여 살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남들의 도움이 없이는 누구든지 그 생활 내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그리고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이에 대하여 고마움을 모르는 것이 사람이다. 이러한 감사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흔히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고, 따라서 이기주의(利己主義) 개인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극단의 이기주의의 개인

주의는 자기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을 희생시키기를 좋아하게 되고, 따라서 남의 멸망을 초래(招來)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없으면, 자기의 생활이나 생활 자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자기 자신도 망치고 말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짧은 시간에 끝나 타나는 일은 별로 없다. 그러나 좁 길게 두고 보면, 이 원리에 틀림 없이 들어맞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다가는 그 결과의 의외에 빨리 오는 일도 있다. 그 좋은 예로는 구정권 시대의 거물담(巨物級)들이 오늘날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는 '가죽이 전될 한 예도 있지 않은가'

본래 잘 산다든지, 영화를 누린 다든지 또는 부자가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자기 단독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요, 반드시 다른 여러 사람의 힘을 얻어서 되는 것이다. 남의 재산이나 노력을 착취했는지, 착취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을 괴롭히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을 수고롭게 한 남인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착취나 해악에 대하여는, 어느 때에 가서 무슨 형식으로든지 대가(代價)를 치루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벌이나 죽음으로써 대가를 치르는 일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성(盛)에는 반드시 쇠(衰)가 따르게 되고, 흥(興)에는 반드시 망(亡)이 꼬리를 잇게 된다. 그러므로 몇 千年 혹은 몇 萬년 동안 인류가 살아 오면서 얻은 경험(經驗)에서 나온 物盛則必衰(무엇이든지성한 것은 반드시 쇠하게 된다.)

興盡靡來(일어난 끝에 쓰러지는 일이 온다)
苦盡甘來(고생이 끝나면 재미나는 일이 생기게 된다.)
라는 금언(金言)은 조금도 변통 없는 천고(千古)의 진리(真理)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갑자기 성하게 되면, 쇠하는 것도 급속하게 오고, 오래 동안 두고 차차 일어난 집안은 쇠퇴하여 가는 힘포도 그만큼 느리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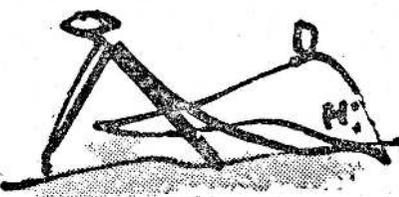
따라서 크게 번영하면 영광(榮落)도 크게 되며, 엄청난 욕심에는, 패망(敗亡)도 지독한 것이 따르게 된다.

사람은 남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存在)이므로, 그만큼 남을 도와 줄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기주의를 전연 떨어 버릴 수 없는 반면에, 이 타주의(利

他主義)도 어느 정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약육강식이 이 우주(宇宙) 안에서 전개되는 일면의 사실이라면, 그만큼 못지 않게 상부상조(相扶相助)도 시시각각으로 쉬임없이 행하여지는 사실인 것을 주의하여 본다면, 손이나 발이 입만을 위하여 것이라고 하여, 전연 인을 쉬어 버리는 어리석음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筆者·서울大文理大學長▽



協助精神과 社會生活

尹 永 春

人間은 혼자서 살아 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孤立되어 살 수 없으며서

로 도움고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게 마련 되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몸의 構造

처럼 눈은 보고 입은 먹고 말하며 귀는 소리를 듣고 손은 動作을 하고 발은 걷고 하여 하나의 個體

통한 일을 이룩 하듯이 共同社會에 있어서나 家庭에 있어서조차 서로 도움는 協助精神이 없이는

원만한 생활을 이룩할 수 없는 것이다.

家庭에 있어서家長이 바깥일을 보면 아내는 집안일을 보고子女는 父母를 도아일 보는 데서家事가 잘되어 가는 데, 특히家族主義의 思想이 濃厚한 東洋에 있어서 는 더욱 그러하다.

한 옛날에는 四民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士農工商을 말함이라. 士는 文武合一로 術德兼修의 社會의 中堅份子를 말함인데 文은 經綸할 줄 알고 武는 戰鬪할 줄 알며 이 文武가 하나로 이루어 民族文化를 이어갈 때 國家는 安保되어 富強할 수 있다. 協助를 좋아 하지 않는 者에게 神은 戰爭을 준다고 한다.

칼과 보습(Swords and Plowshares)이라는 책을 찬·드링 크워터가 쓴일이 있는데 칼과 보습은 相剋이 아니라 互助의 內역 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칼이 싸움을 잘해도 農耕에 필요 한 보습이 없으면 農作物이 되어 나올 수 없는 일이고, 農糧이 없으면 戰爭을 지탱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戰爭은 비의 싸움이라는 말이 近代에 와서 形成化 된 것이 아닌가 한다.

武士를 武士보다 더 所重히 한 理由는 平隱한 날이 戰爭의 날보다 더 많은 데서 由來한 듯 하다. 그래서 武士의 理想은「窮則獨善其

身, 達則兼善天下」라고 해 왔는데 그들의 態度는 有所爲와 有所不爲 두 가지로 되어 있다. 有所爲는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한다는 것인데 成敗得失에 구애될 것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함이다. 有所不爲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꼭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하 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利와 祿을 草芥視하고 功名을 塵土처럼 여기며 富貴에 動心하지 말아야 하고 貧賤에 傷心치 않는 것이 武士의 氣魄인 동시에 이런 氣風이 社會에 잠겨들면 그 社會의 氣風은 淨化되는 것이다. 「도둑놈의 발은 짧다」는 말이 있는데 도적의 所行이 얼마 안가서 단로 됨으로 도둑질 하는 所行을 社會는 오래 默認해 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東洋에 있어서 尊師重道의 精神은 西洋이 감히 따라 갈 수 없다. 세해가 되면 中國에서는 붉은 종이에 「天地君親師」라는 다섯 글자를 써서 大門이나 壁에 붙인다. 天地는 自然을 말함이고 君은 國家元首를 말함이며 親은 父母를 말함이고 師는 先生을 말함인데 自然은 우리에게 生活資源을 供給해 주고 元首는 政事를 管轄하며 父母는 우리를 養育하고 先生은 우리를 教導하므로 서로 도움은 協助生活에서 圓滿한 생활을 이룩할 수 있음을 暗示한 것이다.

士農工商이 彼此 도움지 않는 것이 없다. 福社社會란 다름아니라 大義에 立脚해서 無私와 仁愛와 利他的인 調和된 社會를 말함인데 서로 이렇게 도와서 衝突되는 일이 없으니가 좋은 社會가 이룩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Automation을 自動機라고 우리 가 흔히 말하는 데 하나의 物件이 完成되어 나오기 까지에 分業이면서도 合作인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오토미쉬의 工作을 높게 評價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機械 그 自體가 일하는 것을 사람이 결에서 감독하는 정도에 그친다.

以前時代에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었다. 때로는 농사를 하고 운반업을 하고 공업을 하고 장사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근래 工業이 발달하면서 부러는 專門部分으로 나가지 한가지 部分의 일만을 해도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한가지 部門의 일이 먼저 進行되고 部門의 일이 늦게 進行된다 고 해서 全體일에 支障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自己가 맡은 部門의 일만이 忠實히 되어 나가면 그만이다. 이것이 近代工業의 特色이다. 이런 工業의 發達은 協助精神에서 由來한 것이다.

「印度洋上의 그리스도」라는名著로 世界的 名聲을 가진 스텐리.

존슨 博士가 몇年前에 서울에 와서 강연을 한일이 있는데 한국사람에게 協助精神이 진실히 필요할 줄을 力說하여 다음과 같은 비유를 한일을 지금도 나는 기억한다.

두 사람의 팔병신이 있었는데 음식 먹을 때 팔을 쫓아서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먹을 수 없었다. 그래서 A는 젓가락에 음식을 집어서 B입에 넣어 주고 B 역시 젓가락에 음식을 집어서 A입에 넣어 주었다. 이리하여 둘은 음식을 서로 잘 먹을 수 있었다는 협조의 표본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던 것이다.

人間은 文明의 惠澤을 입을 때 前時代의 人間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文明의 바탕을 이루어준 사실을 忘却할 때가 자주 있다. 쏘크라테스나 플라톤이 마시던 탁한 空氣가 걸르고 걸려서 새로운 공기로 오늘 우리의 입에 들어 가듯이 前代의 文化나 文明이 여러 世代를 흘러 내려오는 동안, 시원치 않은 것은 집어 치우고 새로운 것을 加味시켜 오늘날의 文明이 이루어진 것이다. 때문에 人間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넘겨 주도록 노력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너도 兄弟라고 우리도 兄弟라고 兄弟를 부르면 안 된다.

너희는 與天地 無窮하니 그를
불어 하노라

이時調는 丙子年의 國恥를 當하고 濟陽과 北京에 贊辭가 갖은 高僧을 敬은 孝宗大王의 作品인데 兄弟가 서로 사랑하며 지날 수 있는 것을 그다지 부러워하지 않지만 너희들은 天地와 한가지로 無窮한 幸福을 누리는데 것을 부러워 하노라 함은 悲慘한 現狀을 吐露한 心聲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서로 물고 쪼고 싸우는 民族처럼 슬픈 일은 다시 없을 것이다. 利己主義에 눈을 부릅뜨고, 내가 얼마만큼 얻었고 얼마만큼 줄 것인가를 일일히 재이고 있는 사람처럼 딱한 사람은 다시 없을 것이다. 債務者가 되기를 願치 않는다면 우리는 적게 받고 될수 있는대로 남에게 많이 주는 생활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正直과 勤勞精神에서 남을 도우려는 行動에 立脚하지 않아서 얻어진 것이다. 協助란 非現實的인 것이 결코 아니다. 남과 같이 일하고 그와 같이 침식을 하며 같이 휴식을 하고 그의 진정 한 마음의 벗이 되어질때 相互扶助의 原則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經濟條件도 重要하지만 보다도 精神問題가 더 크지 않은가 한다. 남을 扶助한다는 것이 意識的이 아니면 안된다. 남의 도움을 받는 다거나 남을 協助한다는 일이 어떤 優越感이나 劣等感에서 가아나라서로 尊敬과 感謝와 그리고 사랑과 和睦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한결을 더 나아가 그것이 國家의 일때는 半自由民이거나 不自由民의 階級의 形式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社會가 복잡해 질에 따라 政治社會는 強力한 統制와 協同을 要求한다. 다시 말하면 法的 秩序에서 一般國民의 協力과 服從을 要求하는 것이다.

國家性을 피지 못하여 血緣關係에서 끄치고만 感을 주고 있다. 民間協同 團體로는 近世에 와서 發達된 契와 隣保運動은 協同精神을 指向한 理念에 있어서 가장 特色을 가진 制度의 하나로 볼수 있다. 특히 契는 年代的으로 보아 高麗末期에 와서 이루어져서 늦은 感이 있으나 이亦是 國策이 許하는 範圍內에서 國家에 協力하겠다는 共同精神에서 이루어진 制度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東方 君子의 나라라고 孔子時代 부터 불려왔다. 그理由는 天性이 柔和하고 平和를 사랑하는 協同精神에서 由來한 탓이다. 高麗가 蒙古의 制壓下에서 國都까지 江華島에 遷都했지만 蒙古와 싸우려는 가운데 蒙將 忻都가 開城에 와서 高麗의 將軍 金方慶과 이야기 하고 있을때 堂下에 있는 새새끼를 잡아 方慶에게 보이며 이르나고 묻기에 方慶이 말하기를 곡식을 쪼아 먹을 때는 農夫들이 싫어하나 이제 이것을 잡아 죽이니 농부들은 슬퍼할 것이라 고했다. 이에 忻都가 말하기를 「내가 高麗사람을 보니 글도 읽을 줄 알고 佛敎도 하는 것으로 보아 中國사람과 같이 우리 蒙古사람이 殺戮을 業으로 하는 것을 싫어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 殺戮의 習性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것이니 할수 있는나? 우리는 이를 손

종할 따름인데 하늘은 이것을 罪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대들이 蒙古人에게 奴隸로 하게 된 所以라고」고 역지탄을 부린 일이 있었다고 한다. 韓. 쌰드릭이 아부라함. 링컨 傳記를 써서 이름을 날렸지만 그보다도 훨씬 앞서서 英國의 詩人 이요. 戲作家인 John Drinkwater가 링컨 脚本을 써서 런던과 美國에서 演出하여 많은 人氣를 모은일이 있는데 링컨은 南部 캐롤리나州만이 獨立하는 것을 反對했다. 링컨은 「奴隸를 해방하지 않고 南北이 統一될수 있을 것이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요, 노예 전부를 해방하고 통일한다면 그 것도 해야 할 것이며, 노예의 一部分을 해방하고 일부분은 그냥 노예로 남겨 두고 통일한다면 그것도 해야 할 것이다」고 링컨은 어디까지나 南北美州의 통일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 南北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內閣의 反對를 무릅쓰고 黑奴解放宣言을 하고 말았다. 물론 大統領은 戰後에 모든 條件을 내전에서 失敗했지만 링컨은 전쟁이 끝나기 전에 그의 理想과 條件을 먼저 내세운 데서 승리한 것이다. 南北戰爭이 끝나고 北軍의 그랜트 將軍과 南軍의 리將軍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談話가 벌어졌다.

(P 17로 계속)



司會—五·一六革命으로 우리軍人은 革命課業을 수행하여 나아가기에 있어서 무엇이냐 率先해서 垂範해야 할 位置에 서게 되겠읍니다. 그中 生活의 革新 乃至 革命이라는 課題는 바로 우리의 一舉一動이 國民에게 直接的인 영향을 주고 있는 때인만큼 무엇보다도 重要的인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제 營內者 여러분들의 敏捷한 日課後의 生活을 더듬어 봄으로써 生活 革命에 獻身하고 있는 戰友들에게 하 나의 方向을 提示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日課後의 生活은 國旗下 旗式과 同時에 始作된다고 볼 수 있는데 下旗를 알리는 나팔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선 白兵長부터.....

▼ 讀書로서 재속己 實力 培養



白兵長—네, 그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自己에게 주어진 任務을 스스로 하루도 完遂했구나 하

는 自負心같은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는 그날에 일어난 일 또는 自己가 한 일 에 對한 순간적인 反省을 하게 됩니다.

李兵長—참으로 하루의 生活中 이 때만큼 집중하게 自己의 「마음의 姿勢」를 정돈할 때는 없읍니다. 나팔소리 들을 듣고 있는 라면 어떤가 마음속 깊숙히 잔잔된 祖國에의 忠誠心같은 것이 솟아 나오곤 합니다.

司會—그러면 日課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로 무엇을 합니까?

孫兵長—우선 食事(지녀)를 하고(美聲) 內務班으로 돌아가고(一旦) 身邊整理 清掃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별일이 없는 限에도 읽고 運動도 하고 또 조용히 散策을 한다거나 音樂을 들읍니다.

白兵長—원지도 쓰고, 전우들과雜談도 하고요.....

李兵長—勿論 趣味대로지만 대개 영내 生活은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가 讀書, 둘째 運動, 셋째 娛樂으로요. 外出이나 休暇를 빼놓고 말입니다.

司會—그러면 于先 독서에 對한 이야기부터 해주시지요.

李下士—五·一六前에도 工夫하는 戰友들이 많았지만 革命이후에는 독서 열이 부쩍 늘었읍니다. 前에는 實力이라는 것이, 소위 背力이나 金力이니 하는 것에 左右되었지만 지금은야 어디 어렵이나 있읍니까?

孫兵長—좀 웃은 이야기지만 除隊가 가까운 親舊인수록 工夫에 더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一同 웃음)

司會—같은 讀書라도 自己의 內面的 정신世界的 充實을 爲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具體的으로 말해서 除隊後에 當場 취직같은 것을 하는 데에 必要한 知識이나 技術習得을 爲해서 하는 讀書가 있을 테지요.

孫兵長—대개가 文學이나 思想系統의 書籍을 읽고 있는 것을 보면 自己의 內面的 成長을 위한 독서가 큰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李兵長—專門誌보다 綜合誌 쪽을 週刊月刊을 莫論하고 많이 보게 됩니다.

日課後의 生活을 말한다

日 時……四二九四年 八月二四日
場 所……政訓監室

司 會 閣 載 翼 大 尉
兵 長 孫 世 憲 (通信運用大尉)
兵 長 白 煥 基 (空軍大學)
兵 長 李 月 榮 (本部司令室)
兵 長 韓 相 龍 (三一戰隊)
下 士 李 柱 德 (空軍病院)

參 席 者

例를 들면 TIME 이 Newsweek
니 思想界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司 會—그런具體的으로 교양을 위
해서 어떤 冊을 읽습니까?
李下士—프루타—크 英雄傳이나 회
람神話集이 인기지요.
孫兵長—世界文學全集이나 現代思
想講座같은 것을 計劃을 세워 가지고
모조리 讀破하고 있는 戰友들도 있습
니다.
白兵長—파스칼의 「광제」나 루소
의 「懺悔錄」 또는 崔要安氏의 「마음
의 샘터」를 읽는 사람도 있어요.
李兵長—아무래도 古典을 봐야겠어
요.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나거든요.
古典을 理解하지 못하고는 現代物도
읽어 봐야 그 珍味를 올바르게 알 수
없거든요.
司 會—그런 專門的인 것은 어떤
것을……. 그야 물론 취미에 따라 다
르겠지만.
孫兵長—저는 特技가 通信整備고,

도 라디오에 特好 취미를 가지고 있습
니다. 그래 「레비나」나 「아마추어 라
디오」 「라디오 音響」같은 外書를 耽讀
합니다.

白兵長—저는 原來 法律이 專攻이기
때문에 基本書籍外에 요즘은 새로운
은 改正法律에 關한 것을 수집해서
보고 있습니다.

司 會—孫兵長은?
孫兵長—요새 저는 除隊를 앞두고
집에서 가지고 온 英語構文論과 國文
解釋法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여러런
본 것이지만 아직 잘 모를게가 많아요.
(웃음)

司 會—그것도 좋은 方法中의 하나
일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보통 얼마나 읽을 수
있어요?
李兵長—대충 없어요, 아무래도 正
確하게 計劃대로工夫를 하기는 어렵
습니다.

司 會—內務班에 여러가지 일이 많
지요?
白兵長—그야 물론 일이 적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워만 드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그럴수록 그 사이
에서 나는 틈이 價値있는 것이 아니겠
어요?

李下士—그렇지요. 우리가 制限된
環境에서 내는 時間이기 때문에 더욱
의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內務
生活이라는 것도 생각하기에 달란 것
이에요. 共同生活에 필요한 여러가지
일들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義
務로만 生覺하면 귀찮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注意깊게 관찰하고 성
의 있게 하면 거기서 얻는 것도 많은
것이거든요. 예컨대 우리 한국사람에

弘益人間

金廷鶴



제가장 不足하다고 하는 團體生活에 關한 趣味이라는가, 協同정신의 重要性, 또 깨끗한 秩序的 必然性等...: 생각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結局 두 세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雜談하고 놀 시간은 있어도 책을 볼 시간은 없다는 말以外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요.

李下士—제가 通信學校에 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거기서는 하루에 두 시간 指定된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는 一等兵이나 二等兵이나 다工夫하게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司會—그것도 한 방법이겠습니 다. 그런데 독서하는 장소는 대강...: 李兵長—圖書館이 具備되어 있는 곳 이면 몰라도 大部分 內務班또는 事務

弘益人間이란 말은 周知하는 바 와같이 檀君 說話에서 말미암은 것 인데, 그것이 아래에서 論하는 바와 같이 佛敎에서 온 말이기는하나, 그러한 思想은 우리 民族이 古代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室에 늦게까지 남아 工夫하게 됩니다. 白兵長—部隊內의 閑寂한 곳이면 어 디나 좋지요. 部隊 뒷산도 좋지요.

▶ 땀내기 運動競技로 心身단련



입니다. 이런 것은 기구가 간단하고

司會—그럼 다음에는 運動에 關해서 좀 말 씀해 주시지요. 李兵長—대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排球 蹴球

또 여러사람이 즐긴수 있는 것이니까요. 白兵長—그밖에 卓球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野球도 하고...: 韓兵長—특히 다른 內務班이나 大隊하고 試合이 다도 할 때면 內務班員이 모두 나와 응원을 하고 야단이나 지요.

李兵長—1日課後에 나오는 「땀내기」 같은 것은 가장 보편적인 試合일 점니다. 白兵長—대기를 하는 試合이 재미는 있지만 차질 잘못하면 감정에 흐르기 쉬운 단점도 있습니다. 運動精神을 瞬間으로 망각하고...: 司會—질주 어느 한편이 반드시 지게 되니까 그렇겠군요. (웃음) 이런 점은 서로가 注意해야 될 일이겠읍니다.

白兵長—그런 것들은 團體的인 것이지만 個人의 것으로 몸을 단련하는 경우도 많읍니다. 李下士—요즘 社會의 스포츠熱도相當한 것이지만 아직까지 一部의 選手에게만 스포츠가 局限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家族끼리 운동하는 경우가 어디 그리 쉽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軍人에게 있어서의 스포츠는 그것이 團體的인 것이건 個人的인 것이건 注目해야 될 것이요 또 서로 勸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 흥수하다가 땀도 맞는 娛樂生活

司會—여러면으로 운동에 상당한 열 의를 가지고 계시군요, 그러면 다음

娛樂部面을 좀...:



李兵長—제일 많이 하는 것이 장기지요(웃음) 내무반마다 장기가 다 있으니 까요. 그때 제대 군인한테는 장기를 당할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그때요(일동웃음).

司會—이병장은 장기를 잘 두게 생겼는대요. (웃음) 李兵長—네 좋아 합니다. (웃음) 李下士—흥수하다가 땀이라도 안 맞았소.

李兵長—왜 안맞아요 하하...: 李下士—저는 軍隊에 들어오고 나서 바둑을 배웠는데요. 거기 아주 기가 막혀요. (웃음) 둘수록 妙味가 나거든요. (一同爆笑) 처음엔 高段者한테 아홉걸 열걸을 놓고도 지지만 實力을 培養해서 한걸 한걸 빼어 나갈 때의 기분이란 참 두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를 겁니다. (웃음)

韓兵長—레디오 連續放送劇을 들는 것도 나쁘지 않읍니다. 아마츄어 쇼, 퀴즈, 올림픽 같은 것도 모두人氣입니다. 司會—퀴즈 오림픽이나 아마츄어 쇼는 內務班 單位로 部隊內에서 할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니까? 韓兵長—週番士官任 掌櫃에 거창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小規模로 內務班長任을 中心으로 進行해 보는 수도 있습니다.

李兵長—저는 좀 색다른 趣味를 가졌어요. 뭐냐하면 가끔 혼자 피리를 부는 것입니다. (웃음) 그런데 이걸

을 알고 아래로 三危 太伯을 내려 다보니 人間을 弘益할만 하기를 天符印 세개를 주어 가다스리게 하니 桓雄이 무리 三千을 거느리고 太伯山 마루턱(은 太伯의 나그네 妙香山이다) 神壇樹 아래로 내려오니 이곳을 神市街 이라고 그를 桓雄天王이라 하였다. 風伯 雨師와 雲師를 거느리고 穀命 疇 刑 善惡을 맡아 보아 온 人間의 三百六十餘가지 일을 모두 맡아 다스리었다. 이때 한공과 한 번이 같은 글에서 살피니 桓雄 桓雄이 같은 글에서 살피니 桓雄이 되어지이다 하리니 神이 신령스러운 倭國과 마늘 二十개를 주며 말하기를 너희들이 먹고 百日 동안만 햇빛을 보지 아니하면 사람의 형상이 되리라 하였다. 공과 번이 이것을 얻어 먹고 思한지 三七日만에 공은 女子의 몸으로 變하였으나 辨은 思를 잘못하여 사담이 되지 못하였다. 熊女가 저로 더불어 婚姻하는 이가 없으므로 항상 壇樹 아래에서 아이 배기를 밧였더니 桓雄이 거짓 化하여 이와 혼인해서 아들을 낳으니 號를 壇君王檢이라 하였다. 唐高의 即位한지 五十年인 庚寅에 (唐高의 即位元年이 戊辰이니 五十年은 丁巳요 庚寅이 아닐 것이니 실상이 아닐 듯 하다) 平壤城에 都邑하고 처음으로 朝鮮이라 하였다.

弘益(人間) 아들 桓雄에게 天符印 세개를 주어 가다스리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弘益人間이란 말은 위에서 道言及한 바와 같이 佛敎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이 檀君說話를 全體의 것으로 보면 北方 亞細亞族으로서의 우리 民族의 說話 型態를 가치고 있으며, 그 內容도 亦是 우리 民族의 固有한 精神을 包含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 表現에 있어서 後代에 우리 나라에 輸入되었던 道敎 佛敎 등의 術語를 借用한 것이 있다. 예컨대 하늘님(天帝)을 「桓因」이라고 한 것도 表現에 있어서 佛敎에서 天帝를 말하는 것이나 다만 佛敎에서 天帝를 對한 術語를 借用하였을 뿐, 「桓因」은 어디까지나 우리 古代인들이 崇拜하고 있던 「하늘님」을 뜻하는 것이다. 그 證據로서 하늘님 桓因의 孫子인 檀君이 「朝鮮」이란 나라를 세웠다는 說話內容은 「달라이」民族이 共通으로 가지고 있었던 太陽 神話, 天孫 思想인 點에서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桓因이란 말은 佛敎에서 온 熟語이지만, 그 說話內容은 우리 民族의 固有한 것이다.

弘益 人間이란 말을 좀더 쉽게 풀면 桓因人間을 利益되게 한다는 뜻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 民族이 아득한 옛적부터 傳承하여 내려온 精神이 이러한 始祖 說話에 表現된 것이다. 世界의 여러 民族의 神話를 보면 殺伐하고 殘忍한 것이 많이 있다. 그러한 것에 비하여 우리의 檀君 說話가 얼마나 平和하고 깊은 思想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늘님이 아

시끄럽다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레 할 수 없이 산에 올라가 불니다. (웃음)
 李下士 韓國版 「地上에서 永遠」로 「同웃음」
 ▼愛人도 만나는 外出時
 問…… 그러나 너무 짧아
 司會 外出을 나가면 대개 무엇 을 하나요?
 孫兵長 劇場도 가고 運動競技 求景 같은 것도 가고;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愛人도 맞나고 …… (웃음)
 李下士 거 이상한 것 없지요. (웃음) 도리어 안 맞나는 것이 이상하지. (一同爆笑)
 白兵長 그것도 五·一六 以後에는 相當히 진지해진 感이 있어요. 前처럼 公연히 그저 즐기기 爲한 아베크 같은 것은 이제 없어졌읍니다.
 韓兵長 外出할을 하니 까 자꾸 異常해지는 데요 (웃음). 저의 복이 仁川입니다마는 제가 大田에서 借부할 때 에는 大田附近에 사는 戰友들의 집을 訪問하거나 招待를 받아 가서 재미있게 지낼 機會가 많았어요. 그런데 서울에 오니까 그런 경우가 적어요. 서울인심이 박해서 그런지; 모든가 個人플레이입니다. (웃음)
 李兵長 정말 그래요. 하지만 이런 現象은 아마 世界的 通例가 아닐까요? (웃음) 本來 큰 都市일수록 個人主義가 發達해서 모두 自己中心으로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點은 서울에 집을 가진 분들이 좀 틀을 내서 우리 같은 村사람을 爲해 恩惠를 베풀어 주어야 할 거예요. (웃음)
 司會 우선 서울에 집을 가져신 李下士부터; (一同웃음)
 李下士 좋습니다 다음 週日에는 모두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웃음)
 孫兵長 저는 外出時間의 大部分을 登山같은 것에 바칩니다. 山頂에 올라서서 발 밑에 展開되는 山川을 굽어보는 순간이라면 江邊을 거닐며 모래위에 아로 색어진 자기 발자국을 돌아다 볼때는 무언가 호젓한 境界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韓兵長 그런데 外出時間이 좀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歸營時間이 저녁 八時인데 八시가 울리면 저녁이 六時半이나 七時에는 떠나야 하거든요. 이게 問題입니다 (웃음). 或 親戚집에라도 갔다가 빨리 오긴 해야겠는 데 저녁을 빨리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먹고 올 수도 없고……
 孫兵長 사실 七時에서 八시는 가장 아끼 자기한 時間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時間에 歸營해야 하니 이거 박합니다.
 李下士 그러면 加軍인이지 (一同爆笑) 저는 그 래서 五時만 좀 넘으면 倭 印象을 씁니다. 어, 이거 잠시간이 얼마 안남았는데! 어찌구 하면서; (一同爆笑)



특을 地上에 대려 보내어 人間 世界를 다스리게 하는데, 「弘益人間」하게 하였다는 것은 언어나 풍속하고는 精神이나!

民族에 따라서는 다른 民族을 征服하고, 한 階級의 다른 階級을 搾取하는 것을 民族의 氣象으로 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우리 民族은 古代로부터 오늘날까지 他民族을 征服한 일이 없으며, 平和하고 人道主義의 思想 感情을 傳하여 오고 있다. 그러한 思想 感情이 우리의 民族의 始祖 說話에 「弘益人間」이란 理念으로 表現된 것이라 볼 것이다.

二

開天節이란 말할 것도 없이 檀君이 「朝鮮」이란 나라를 세운 날을記念하는 것이다. 위에 든 檀君說話에 있어서는 檀君이 唐高의 卽位한지 五十年인 唐寅에 平壤城에 都呂하고 朝鮮이라 하였다고 하였다. 「唐高」는 「唐堯」를 말하는 것으로 高麗第三代 定宗의 謔号인 堯으로 그것을 避하여 「唐高」라고 한 것이다. 卽中國의 堯 임금의 卽位한지 五十年인 唐寅에 檀君이 朝鮮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 年代에 對하여는 三國遺事의 著者인 然이 堯의 卽位元年在 戊辰이란 說에 依하여 그 五十年은 丁巳요, 唐寅이 아니라 訂正한 바 있지만, 唐寅은 堯의 卽位元年라는 것도 傳說的인 것이므로 歷史의 事實으로 學論하기는 어렵다. 우리 나라에서 쓰고 있는 檀君紀元은 唐堯의 卽位年과 같이 戊辰年을 起點으로 計算한 것이다.

檀君說話의 爲에서 본 바와 같

이 開國한 날을 記錄되어 있지 않다. 開天節을 十月三日로 定한 것은 晚近의 일이다. 十月은 우리 나라에서 옛적부터 尊달이라고 하여 숭상하여 온 習俗에 依하여 十月三日을 開天節로 制定한 것이다. 이날은 세 국서와 果實이 무르익어 古代로부터 神에게 제사 드리는 날이다. 이 날을 開天節로 하여 民族의 始祖 檀君에게 제사 드리고, 온 國民이 建國을 祝祭하는 것이다.

檀君이 建國하였다는 「朝鮮」은 勿論 「古朝鮮」을 말하는 것이다. 「古朝鮮」은 平安道, 黃海道를 疆域으로 하였던 部族 國家였다. 만약 檀君紀元과 같이 四千餘年前의 일이라면 그때는 國家形成 以前으로서 朝鮮이란 한 部族 社會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며, 그 疆域도 滿洲쪽으로 좁다. 북쪽에 位置하였을 것이다. 하여튼 檀君은 古朝鮮部族의 始祖였던 것이며, 檀君 說話는 朝鮮部族의 始祖說話였던 것이다.

古代에 滿洲와 韓半島에는 여러 部族이 적은 社會集團을 이루어 살고 있었다. 이러한 여러 部族이 차츰 統合되어 部族 國家를 形成하여 갔다. 古朝鮮은 이러한 여러 部族 國家中의 하나이다. 當時는 이 部族 朝鮮이 韓半島를 包括한 일이었다. 다시 말하면 當時까지 아직 우리는 民族적 統一 國家를 이루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여러 部族 國家는 더욱 統合을 거듭하여 三國을 形成하고, 三國은 新羅에 依하여 統一됨으로써 비로써 우리 나라를 民族의 統一 國家들이 속하게 되었던 것이다.

▲ 기쁘게 일할 수 있는革命後의 雲圍氣

司會—五·一六以後에는 그 前보다 外出中에 마음쓰이는 때가 많지요? 李兵長—그 前에도 勿論操心 많은 것은 아닐지라도요. 요즘은 正말 言語, 動作 하나하나에도 相當히 注意하고 있습니다.

白兵長—원주만 있으면 우리에게도 助는 認識을 가지게끔 努力하게 됩니다. 그 前에는 주저하던 것도 只今은 勿論 잡힙니다. 가령 베스에서 자리를 老弱者에게 양보한다든가 하는 일을 正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孫兵長—제가 軍人이면서 軍人을稱讚하는 것이 이상하지만, 베스에서 老弱者에게 자리를 내주는 사람은 아직도 대개가 軍人이예요. 그래 우리 손으로 始作한 革命課業을 完遂하려면 우리가 먼저 社會의 禮儀道德을 잘 지켜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李下士—정말 리젠드로 머리를 뺐질 뺐질하게 넘긴 것들이 어딘에 들었는 아주머니 앞에는 버티고 앉아 있는 것을 보면 그 저 푸름으로 한 때치고 싶은(웃음) 충동이 일어나요.

韓兵長—제가 美國에서 본 것인데요. 韓老人이 앞에 앉아 있는 아이 보고 「너는 半割밖에 안 됐으니까 일어나라, 나는 다 됐으니까 앉아야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도 자랑할 게 많아요. 더욱요 새는 모든 것이 다 질서가 잡혀 가고 있으니까요.

▲ 잊을 수 없는 追憶들

司會—그러면 지금까지의 軍隊生活中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씩 말씀해 주실까요? 勿論 日課後에 일어난 일로....

李兵長—저는 航兵校에서 訓練을 받다가 四週만에 처음으로 大田市內에 軍服을 입고 하나의 空軍이 되어 나왔을 때의 자랑스러웠던 마음—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잊혀지지 않습니다.

孫兵長—첫 休暇를 나와 백을 들고 停車場에 나오니까 아 글썽 꼬마들이 공군 아저씨! 空軍 아저씨! 하지 않겠어요. 처음엔 누누를 부르나 했어요(웃음).

李下士—저의 집이 장원도 시골인데요. 처음 휴가를 가니까, 동네 영감님들이 모두 와 가지고 비행기를 타 봤는다고 하지 않겠어요. (일동 웃음) 이전 타봤다고도 할 수 없고, 안타깝다고 할 수도 없고—그래야 그거 타보았다고 했지요. 하하.

孫兵長—저는 지난번 휴가 때에 귀영하는 일이 가장 인상에 남아요. 저의 집이 원주라는 뜻인데요, 낙동강에 홍수가 나고, 교통이 차단이 되어서 귀영할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 하루 늦겠다구 部隊에 전보를 쳤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안가고는 못 견디겠어요. 그래 말리는 걸 뿌리치고, 미가 락락 내리는 길을 떠났지요. 옷과 신발을 다 트렁크에 넣어 짊어지고 맨쓰라람으로 산을 두개나 넘어 大邱까지 걸어 왔어요. 大邱에 오니까 11시가 넘었는데 마침 12시 급행차가 있어서 타고 왔어요. 그때 영문을 들이 설 때의 기쁨, 무엇인가 자랑스러

스위스 여행

金載元



「제네바」시에 도착하기는 밤 열 시이었다. 「호넨」은 「호넨」에 전보를 쳐놓았음으로 대개는 틀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때

도 七월이란 한창 유람객이 많을 때 라 정거장에서 일단 전화를 걸고 가기로 하였다. 그랬더니 묘한 일이 생겨서 우리가 예약하였던 여관방에는 나와는 같은 성(姓)인 「진」이라는 모 한국 청년이 내 대신으로 들어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 청년은 한국 「유베스」코판계의 직원이라고 하더라고 한다. 아마 내가 예약한 「호넨」에 우선히 그 한국에서 온 청년이 왔다가 다른 빈방이 없으니 내가 들방에 들이간 것이 틀림없다.

밤은 깊고 가서 마저며야 도리 손님을 치면 매일반인데 내가 내방을 찾을 도리도 없는 일이고—결국은 호텔 아닌 개인 집에 침상 두 개가 있는 방에 들어 갔을 때는 밤은 열한시가 지났고 간단한 식사를 하고 돌아왔을 때는 열두시가 훨씬 지났었다. 그 자칭 「유베스」의 「미스터」 때문에 이날 밤 딱딱한 침상에서 C 씨와 나는 겨우 세 시간쯤이나 잠을 잤을까.

이튿날 아침 유람배스를 탈려고 나가 보았더니 바로 「몽·브랑」으로 가는 배스가 떠날려고 하고 있었다. 三, 四十명가량의 손님이 있는데 그 중에는 분명히 한국 청년같이 생긴 사람이 두 명은 있는 듯 하였다. 그 중의 하나는 분명히 나의 「미스티 진」인 듯 우리의 예정이 「몽·브랑」이 아님인

로 「미스티 진」에게 말도 걸지 못하고 말았다.

「제네바」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그 도시미(都市美)의 대부분은 「제네바 호(湖)」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유람배스 「대신」에 유람 「보트」를 타고 호수를 두 시간 동안 일주하였다. 「스위스」에는 호수가 많다. 이 호수의 물은 주위의 산에서 내려옴으로 그 물은 맑고 속깊이까지 들여다 보이고 주위의 「스위스」의 아름다운 산이 그 호수에 잠겨서 보인다. 이 이상적인 조건의 구미한 데 아름다운 건물(建物)을 세우고 보기 좋은 교량(橋梁)을 걸치고, 유람객을 위하여 호수가로 산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제네바」시는 가히 세계에서 으뜸가는 아름다운 도시임이 틀림없다.

우리는 이 호수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식당의 「베란다」에서 이날 아침과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나라도 언제 이렇게 잘하고 살 수 있나 하고 생각하였다. 호수는 유람 「배스」를 타고 이번에는 시내의 여러 군데를 구경하였다. 이곳에는 고적(古蹟)은 거의 없는 곳이나 그레도 본래의 국제연맹(國際聯盟)의 청사장은 항상 신문에서 보는 건물들을 볼 수가 있었다.

「스위스」에 오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산에 올라야 한다. 지도를 펴보니 「제네바」는 「스위스」의 한 구석에 위치하여 있고 「스위스」 산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아름다운 「몽·푸락우」에 갈려면 「인터라켄」으로 나가야만 한다. 그러나 그곳은 유람객의 중심

저로서는 「호텔」을 구하기 어려울 듯 하여 우리는 「스위스」의 서울인 「베른」시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베른」에 도착하기는 오후 일곱시경 「호텔」·춤·크로이즈」라는 一九세기식의 호텔에 들었다. 방안에는, 수도시설도 없는 것으로 하루 「불(弗)」가량도 없었던 것이다.

다음날 우리는 기차로 「인터라칸」에 가서 그곳에서 등산철도(登山鐵道)를 탔다. 이 등산철도는 그곳에서三四〇〇미터까지 올라갈수 있는 철도로 물론 전기로가며 차량은 두대 이상은 달고 있고 속도는 그리 빠른 것이 아니다. 몇개의 틈바구니를 내서 가며 「웅·푸라우」에 올라갈 때까지 저의도 「웅·푸라우」에 올라갈 때까지만다 내리다 보면 정거하러 그때마다 내려다 보는 풍경(風景)을 구경하고 사진찍을 기회를 준다. 아래는 풀밭으로 자색꽃이 만발하여 있는데 위에는 백설(白雪)이 덮여있고 그 눈은 一년동안 녹아보는 일이 없다. 멀리 길은 볼짜기를 내려다 보면 아까까지 눈앞에 높이 솟아있던 큰산이 조금만 하게 내려다 보인다. 나는 그리로 올라오는 사이에 원색사진(原色寫眞) 二十여장을 찍었다.

제일 꼭대기, 등산철도가 서는 곳은 「웅푸라우」·「우호」라고 한다. 「우호」는 워터라는 말이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산이 「웅·푸라우」 즉 처녀산(處女山)인데 철도는 그까지는 올라 못하고 허리에까지 온 것이다. 이어서 우리는 모두 내려서 약 두시간 동안 이 천하의 절경을 구경할 수 있었다.

상당히 큰 식당이 있고 또 밤을 지낼 수 있는 호텔시설도 준비되어있는 것으로 들었다. 여러가지 구경할 것이 많다. 아이스·파라스트」즉 「어들의 궁전」이라는 것은 천년을 묵은 얼음속을 파고 그속에 큰 방(房)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또한 군데 가면 그곳에는 북극(北極)에 사는 개(犬)를 가져다 가설매를 대게 한다. 좀더러진 곳에 내려가니 그곳에는 「스키」를 빌려주는 데 눈이 풍와서 제법 「스키」의 「스키」를 갖추고 다니는 데 충실하다.

「에베레타」(昇降機)를 타고 우리가 올수 있는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아까 본 「스키」들은 아래에 개미(蟻)처럼 조그맣게 보인다. 그리고 저쪽 산위의 좁평탄한 데에 「헤리골터」한대가 올라오지나 이산 봉우리를 저 산봉우리들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설매를 단 한대의 소형(小型) 비행기도 드고 있다. 물론 유람객들을 태우는 것이다.



내려왔다. C씨는 아래에서 「직선」(直線)으로 서있는 산은 처음 보았다고 차안에서 자꾸만 사진을 찍고 있었다. 「베른」에 도착한 것은 이미 밤이 몹시 후이므로 정거장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고 밤을 일찍 자기로 하였다.

생각하면 「스위스」라는 곳은 천여(天與)의 생활 조건은 크하나쁜 곳이다. 높은 산이 있고 평야는 거의 없다. 실은 눈으로 이곳에서 생업으로 할수 있는 일은 목축(牧畜)같은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은 이 산을 이용하여 많은 외국의 유람객을 끌어 그것으로 一년에 도수억불(弗)에 달하는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아최도 「스위스」의 시제는 세계에 유명한데 그것은 그들이 할수 있는 공업이라고는 「시제」같은 수공(手工)을 주로 하는 공업이라 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옛일로서 지금은 화학(化學)공업 기계공업같은 것이 발전하여 공업을 주로 하던 「스위스」는 지금은 완전히 공업국으로 전환하였다.

차를 타고 내다보면 「스위스」의 아름다운 농촌의 풍경이 우리 눈 에 처하면 우리도 저렇게 잘 살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세번재의 「스위스」에서의 밤을 지냈다.

다음날 우리는 아침 일찍 떠나서 차를 타고 화랑(和蘭) 「헤이그」시로 향하였다. (筆者·國立博物館長)

(筆者)

(P9에서 계속)

그랜트 「내가 당신의 敵手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오」

리 「나는 애써 싸웠으나 패배했읍니다」

그랜트 「그래서 여기 온 것이 아니오」

리 「당신의 무슨 條件이던 달게 받고 항복 합니다」

그랜트 「이것 간단한 조건이오, 나를 아랑있는 사람으로 알출 아오」

리 「당신은 판매 합니다. 저더러 무슨 要求書를 提出하라 하십니까?」

그랜트 「서로 相議할수 있는 일이라면 영광이겠오」

리 「우리 軍人들의 軍馬를 우리가 그냥 가질수 있다면 우리 所有로 하겠읍니다」

그랜트 「잘 알았오, 당신들 農場에서 필요 하겠으니 까 그냥 가지시오」

리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남북 백성을 위로 할수 있겠읍니다. 저는 이 잔을 장군에게 감사의 표로 받칩니다」

그랜트 「도로 집어 넣으시오. 이 잔이 소용될 때가 있을 터이니」

그리고 이 두將軍은 악수하고 서로 갈라졌다. 人間性에 있어서 勝敗로 事物과 人情을 다룰 것이 아니라 雅量과 協助가 先行 되어야 할 것이다.

(筆者·慶熙大教授)



<빛을 남긴 사람들>

紅衣將軍과 權慄將軍

柳 光 烈

將兵을 사랑하는 郭再祐將軍의 智略

곽재우(郭再祐)는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에 유명한 의병장(義兵將)이다. 항상 붉은 옷을 입고 싸워서 싸우기만 하면 이기니까 그때의 의병(後兵)들은 하늘이 번홍의장군(天降紅衣將軍)이라 하였었다. 이 곽장군은 언제나 승전을 하였지만 나라에서 임명된 장수는 아니요, 의용군의 장수이다. 곽장군이 진주성(晉州城)이 함락될 때에 남긴 이야기의 한 마디이다. 왜병이 임진(壬辰)년에 침입하여 서행정(小西行長)이라는 장수가 진주성을 치다가 패퇴한 일이 있으므로 일

본군은 이것을 분히 여기어 수 10만 대병을 몰아서 공격을 집중하였고 이번에는 전년에 싸우면 소서행장이 가 아니라 가등청정(加藤清正)이었다.

그때에 순변사(巡邊使)인 예빈(李馨)이 곽장군에게 진주성에 들어가서 함께 지키라고 하였다. 「좋은 적병들이 이번에는 기어코 진주에 공격을 집중하여 함락시키려고 하니 고단한 군사로는 지킬수가 없다. 의병(義兵)을 구원병으로 보내서 성세(聲勢)를 도와 주어야 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여러장수들은 감히 이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곽재우장군은 홀로 반대하기를 「권위가 있는 이라야 병사를 쓸줄 알고 지혜있는 이라야 적병을 헤아릴 줄 안다는 데 이제 적병(敵兵)이 성하고 날카로운 풀이 천하에 당할수 없는 형세이다. 외로운 성(城)을 어떻게 지키랴. 더구나 우리 진군이 다 1성중으로 들어가서 밖에서 응원하는 군사가 없으면 어찌랴. 나는 밖에 있어서 응원 하겠다」 하였다.

감사(監司) 2지급의 도지사적이나 나련(力) 강함(金功)이 성을 내면 서장군이 대장(大將)의 명령에 따를 줄을 하니 군율(軍律)을 쓰면 어찌할 터이요」 하였다.

이 말에 곽장군도 노하며서 「내 한 몸이 죽고 사는 것은 아까울 것이 없으나 백만 싸우면 군졸(軍卒)을 어찌 참아 버리겠는가」(一身死生·固不足惜·百戰軍卒·何忍棄之) 하였다.

순변사 이빈도 그럴사 하게 여기어 곽재우는 밖에 있으면서 의병(宜兵)의 정엄진(鼎嚴津)을 지키고 있었다. 여러 장령들의 회담은 제사(祭已)년

六월十五일에 있었는데 진주성을 김천일(金千鎰), 황진(黃進), 이종인(李宗仁) 등이 지키다가 그달二十九일에 함락되어 장준과 함께 진주시민 7천여 명이 죽었다는 비참한 전경이었다. 이 싸움에 적병의 수는 20만 명이 30만이라 하였으나 돌잡아서 10만 대병이었다.

그러나 진주성을 지키던 우리 군사의 병력을 보면

金千鎰 領兵 三百, 黃進 領兵 七百, 崔慶會 領兵 五百, 高從原 領兵 四百, 張潤 領兵 三百, 李繼德 領兵 二百, 李潛 領兵 三百, 閔汝雲 領兵 二百 등 이니 진군을 도맡아야 2千여명의 군사인데 오직 총의 지심으로 배배나 강한 군사와 대적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불리한 싸움에 백전백승하는 곽장군이 들을 수 없을 것도 당연하다 하겠다.

김천일도 이 싸움을 앞두고 비장한 맘으로 곽장군과 함께 술을 나누고 피차간의 심정을 이야기 하였다.

난리후에 진주장의사(晉州倡儀使) 김천일, 경상우병사 최경희(慶尙右兵使 崔慶會), 충청병사(忠淸兵使) 황진(黃進) 등 세장수의 총의를 사모하여 진주를 삼충사(三忠祠)를 짓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이 순절한 세장수는 형제가 틀리어서 도저히 이길 가망이 없는 줄 알고 진주 남강(南江)가에 있는 옥석루(巖石樓)에 올라서 최후로 술잔을 들었

巖石樓上三壯士, 一盃笑指長江水 (옥석루 위의 세장사 한잔술을 들고 웃으면서 장정의 물을 가리킨다) 곽재우장군은 난리가 평정한 후에

그 탁월한 진공으로 나라에서 벼슬을
하라 하였으나 곧이 사양하였다.

그 단 말하기를 「고양의 원을 기
르게 함은 귀를 잡기 위함인데 귀잡
은 왜병이 쫓아간 이때에 내가 벼
슬의 위를 차지하여 무엇하리요」 하
면서 창령 화양산(昌寧 火岫山) 이나
합천 가야산(陔川 伽耶山)에 가서 유
유히 여생을 보내고 부쿠에 눈뜨지
아니한다가 여생을 마쳤다.

사병을 사랑하고 싸움의 전도를 해
아리는 지략으로 후세에까지 전하는
명장이다.

권장군의 부하애와 진장군의 슬픈 명적

임진왜란 때에 도원수 권율(都元帥
權擧)장군의 행주(幸州)상상싸움은 우
리 원이 크게 이긴 전쟁으로 후세에
전하는 바이다.

권율장군은 천라도 이치(梨峙)와 경
기도 오산(烏山)에서 전승을 하고 고
양(高陽)행주에 와서 전을 치고 있었
다.

이것은 왜병이 침입한 그 이듬해인
계사(癸巳)년 二월의 일이다.

우리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명
(明) 二개의 中國) 나라 장수 이여송
(李如松)이 평양의 있던 소서영장(小
西行營)을 격파하고 그대로 진군하다
가 고양(高陽)을 격파하고 그대로 진군하다
조천영(小早川隆信)에게 패하여 의
기가 소멸되었을 때이다.

이 때에 권율장군은 수원(水原)으로
부리를 타와서 서울을 회복하려고 하
던 때이다.

권율장군의 평양의 죽어온 군사와 서

술에 주둔하면 군사가 함쳐하여 그 형
세가 처참하였다.

그 때에 권율장군의 중군(中軍)으로
있던 조경(趙敬)이 행주산성에 성
책(城柵)을 쌓을 것을 주장하니 권장
군은 「미구의 명나라 군사와 함쳐할
른지 모르니 성책을 쌓을 필요가 없
다」고 하였으나 조경은 「그러나 우리
가 고양한 군사로 대적(大敵)과 가까
히 있으니 성책을 쌓는 것이 좋겠다」
하여 설게 된 것이다.

계사년 二월十二일 권회(權會) (黎明)
때에 서울에 있던 적병이 진격한다
는 보고가 들어 왔다.

권율장군은 먼저 보초를 시키어 산
에 올라 바라보니 적병은 우리의 빛
十倍나 되는 수만명의 진격이었다.

적병 배여기(騎)가 먼저 오고 뒤이
어서 수만대군은 들에 덮어(蔽野)
진격하여 왔다. 이 싸움은 묘(卯)시
로부터 유(酉)시까지 세번 절전하였
으나 아침 여섯시부터 저녁 여섯시까
지로 거의 온종일 전투가 계속된 것
이다.

왜병은 추이 있고 이편은 활파(活
파)이다. 적의 탄환이 비오듯 하는
중의 우리 군사는 복숨을 내걸고 결
사대전 하였다.

권율장군은 버리의 구리술(銅鼎)을
쓰고 친명이 칼을 들고 두친하였다. 적
병 수십명이 칼을 향하여 총을 쏘
때에 우리 장수 조경은 지자포(地字
砲)를 쏘니 장부(長木)으로 고관(驕)
갈이 만들어 매이고 진격하면 전병은
몸과 사지(四肢)가 산산 조각이 났다.

권율은 친히 물을 떠가지고 다니면
서 사병들의 무마른이에게 먹이니 사
병들은 감격하면서 싸웠다.

이 싸움에 총사령인 권율장군이 친
히 탄환을 두름쓰고 부하를 물을 떠다
먹이는데 덕망도 있었으나 성책을 쌓고
지자포(地字砲)를 준비한 조경장군의
숨은 공도 크다 하였다.

싸움이 한창 치열할 때에 활파산
(弓矢) 무기가 퍼져서 애쓰는 데 중
정병사(忠淸兵使) 정경(丁傑)이 활파
산을 배 두척(船二隻)에 가득 실어서
한강(漢江)으로 올라 보내어 구급(救
急)하였다.

무기가 퍼져졌을 때에 행주의 부인
네들이 앞치마에 물을 주어 담이다가
싸움을 도와서 후세 사람들이 앞치마
를 행주치마라고 할 만큼 유명한 이
야기를 남긴 것이다.

그 때의 명나라 장수들은 거만하여
우리 장병을 업신 여기는 버릇이 있
었으나 이 싸움을 이기므로 우리 장
병의 명성이 높아지고 평양싸움에 이
기고 고만하면 이의승도 벼제판 패전
으로 상기(喪氣)가 되어 서울 진격을
회피(回避)하고 개성(開城)에 가 있다
가 권장군과 조장군이 작은 군사로 왜
병을 격파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부끄
러워하는 빛이 있었다 한다.

그 때의 명나라 임금이면 신종(神
宗) 황제도 권장군을 격려하는 비단을
보내서 치하하고 중국인들도 「외로소
의국(外國)에 진까장군이 있는 줄 알
게 되었다」(始知外國有眞將)고 감탄하
였다.

한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이 그렇
게 우리 국민의 성가(聲價)를 높인 것
이다.

행주에는 권장군을 제사지내는 기
공사(紀功祠)가 있어서 해마다 제사
를 지낸다.

三十七年전에 우리 군사가 왜적
을 격파하면 행주는 六·二五동란 때
에 「유엔」군이 서울을 진격하기 위하
여 한강을 건너온 곳이기도 하다.
행주라는 곳은 이렇게 두 번이나 국
난에 나라를 지키면 유공한 지역이
다.

(筆者·韓國日報 論說委員)

世宗大王의 사람

世宗大王이 集賢殿을 만들어 人
材를 養成할 때의 人情逸話다. 後
成三問 申叔舟 崔恒 朴彭年 李璿
李善老等이 集賢殿에서 學問을 研
究하고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 밤
이었다. 世宗大王은 集賢殿에서 공
부하는 젊은 선비들이 추를까하여
侍從을 배리고 集賢殿을 나가 보았
는데 이 날 밤의 宿直 申叔舟가 夜
半三更인데도 책을 읽고 있었다.
이 光景을 보고 돌아온 世宗大王은
侍從을 시켜 다시 集賢殿을 보게
하였는데 申叔舟는 아직 책을 읽고
있었다. 얼마후에 世宗大王은 또
다시 보고 오라고 하였다. 申叔舟
는 탐우는 소리가 나자 책을 놓고
고 자리에 들어 잤다는 侍從의 報
告를 들자 世宗大王은 당신이 읽고
있던 수필의 두루마기를 侍從에게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너 이것을 잠든 申叔舟에게 가
만히 보여 주고 오너라」

렉시던 콘코드의 싸움

李 普 珩

北아메리카大陸의 열개개의 植民地로 構成된 當時의 美國이 本國인 英國으로부터 果敢하게 獨立을 宣言한 것은 一七七六年 七月 四日이나 植民地와 英國과의 武力衝突 즉 美國獨立戰爭이 일어난 것은 이 보다 一年前인 一七七五年 四月 十九日 未明이 였으며 이 緒戰을 렉시던·콘코드의 싸움이라고 한다. 이 싸움은 決코 두개의 組織화된 軍隊사이에서 일어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訓練도 組織도 없는 民衆의 集團과 大英帝國의 精銳部隊사이에서 일어난 싸움이였다.

따라서 이 緒戰에서의 植民地 民衆의 勝利는 鞏固한 意志가 예로는 優秀한 武力보다 強하며 獨立宣言에 있어서 「自由와 生命과 幸福의 追求에 對한 權利」를 自衛한 民衆은 「壓制와 橫暴」을 일삼았던 專制政治를 能히 打倒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또 하나의 歷史의 事例가 되었다. 萬一 이 싸움의 英雄이 누구냐고 한다면 아메리카의 民衆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이 民衆을 指導한 思想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不撓不屈의 自由精神이었다고 할 것이다.

一七六三年 以來 아메리카 植民地는 英國의 植民地政策에 抗拒하기 始作하였다. 特히 自治制度가 發達하고 經濟의 基盤이 比較的 確固하고 淸教徒 精神이 強力한 마사췌셋 植民地는 바로 이 抗拒의 中心地였다. 例하면 一七六四年 英國政府가 植民地의 代議機關과 相議함이 없이 一方的으로 세로운 課稅政策을 決定하였을 때 이 植民地는 「代表없는 곳에 課稅할 수 없다」라는 原理를 내걸고 英國의 政策을 否認하였었다. 또 一七七三年 美

國政府로부터 植民地에 對한 茶의 販賣 獨占權을 許諾받은 東印度會社가 茶를 滿載한 船隻을 植民地의 首都인 보스턴港口에 入港시켰을 때 이 植民地의 民衆은 인나안으로 假裝하여 船隻을 襲擊하고 茶箱子를 全部 바다에 던져 버렸다. 歷史적으로 「보스턴茶黨事件」이라고 말하여지는 이 事件은 이 植民地가 抗拒를 果敢하게 實踐하는 데 있어서도 尙상 앞장 섰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러므로 英國政府는 植民地의 英國에 對한 抗拒를 効果의 으로 鎮壓시키려던 바로 이 마사췌셋 植民地를 徹底하게 彈壓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前記한 「보스턴 茶黨事件」이 일어나자 英國은 이 機會를 놓치지 않았다. 英國은 一七七四年 四月 보스턴港口를 閉鎖하고 反英運動者는 逮捕되면 英本國으로 通行하여 裁判을 한다고 하고 또한 가장 重要한 일로서 마사췌셋 植民地에 軍政을 實施하기 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와 같은 英國의 報復政策은 마사췌셋 植民地의 屈服이 아니라 其他의 植民地를 刺戟시키는 結果를 가져와서 南端의 조지아 植民地를 除外한 열두개의 植民地를 結束시켰다. 즉 이들 植民地는 一七七四年 九月부터 十月 사이에 필라델피아에서 모여 大陸會議에서는 植民地의 連合體를 構成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會議는 各 植民地에 革命政府라고도 할 수 있는 植民地協議會의 設置를 勸告하고 從來 各 植民地가 有力한 抗拒武器로서 使用하여온 英國商品의 不買運動을 또한 더욱 強化하도록 指示하였었다. 이리하여 마사췌셋 植民地는 十月에 콘코드에서 最

初의 協議會를 構成하여 植民地人の 自由・生命・財産을 保護하기 위하여 植民地人の 武裝을 議決하고 또한 兵의 動員 및 指揮를 擔當하는 保安委員會를 設置하여 本士市內에 있는 英國의 軍政府와 漸次 對立하는 態勢를 갖추기 始作하였다.

以上이 레싱턴·콘코드의 싸움이 일어나기까지의 간단한 歷史의 背景이다.

一七五五年 四月에 들어가서 本士市에 있는 英軍司令官 게이저將軍은 本士市으로부터 西北方으로 十六哩의 거리에 있는 레싱턴에 反英運動의 中心人物인 샘·아담스와 존·해커크가 숨어있고 또 거기서부터 五哩의 거리에 있는 콘코드에는 莫大한 量의 軍需物資가 貯藏되어 있다는 情報을 入手하였다. 그리하여 스티미스中領과 트케인少領 指揮下에 七百名의 部隊를 引率시켜 四月 十八日 밤 十時부터 極秘裡에 레싱턴·콘코드의 急變作戰을 斷行 하게 되었다. 그러나 作戰計劃은 事前에 本士市內에 있었던 保安委員會에 依하여 探知되었다. 그리므로 委員會에서는 곧 리버어 및 도오츠의 二名을 레싱턴과 콘코드에 急派하였다. 兩人은 四月 十八日 子正에 레싱턴에 이르러 샘·아담스와 존·해커크에게 避身하도록 하고 또한 英軍의 襲擊을 住民에게 알렸다. 여기서 잠시 休息한 뒤 四月 十九日 午前 一時頃에 프레스컷트醫師와 같이 세사람이 콘코드로 달렸다. 그러나 途中이 세사람은 英軍의 騎馬 探索兵에게 發見되었다. 리버어는 잡혀서 레싱턴으로 돌아가게 되고 도오츠는 一旦 避하였다. 이 역시 되돌

아가게 되고 오직 프레스컷트醫師만이 콘코드에 到着하는데 成功하였다. 이리하여 英軍의 主力部隊가 오기前에 住民들은 應戰態勢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콘코드에 貯藏되어 있었던 軍需物資는 大部分이 安全한 곳으로 隱匿될 수 있게 되었다.

스미스中領의 主力部隊는 四月 十九日 새벽녘에 레싱턴에 到着하였다. 이들은 존·파카指揮下에 約七十名의 武裝한 民兵이 廣場에 줄을 지고 있는 것을 發見하였다. 英軍을 본 파카는 民兵에게 「저쪽에서 發砲하지 않는 限 發砲하지 말라. 그러나 英軍의 戰爭을 願하지 마라. 여기서 한어나 도록 하자」고 命令하였다. 그러나 「네이」를 叛徒들아, 解散하라!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銃聲이 요란하게 나가기 始作하였다. 누가 먼저 發砲

하였는지는 永遠히 풀리지 않는 하나의 歷史의 수수께끼로 되어 있다. 그러나 確實한 것은 植民地의 民兵과 英軍이 衝突하였다는 것, 이리하여 美國의 獨立戰爭이 드디어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트케인少領이 되풀이한 解散命令과 英軍의 壓倒的 火力앞에 民兵들은 後退하여 버렸다. 그러나 이들은 英軍이 命令한대로 武器를 버리고 다라나지는 않았다. 이 싸움에서 民兵側은 八名의 死者와 十名의 負傷者를 내고 英軍은 오직 一名의 負傷者를 내었을 뿐이었다. 英軍은 여기서 一旦 部隊를 整頓하고 다시 第二의 作戰目的地인 콘코드로 向하였다.

콘코드에 到着한 英軍은 軍需物資를 搜索하였다. 이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았던 三門의 砲와 몇개의 砲車 擊發機具를 부시고 食料品은 연못에 던져 버리고 또한 植民地人の 抗拒의 象徴이었던 「自由의 기둥」을 끌어 드려 잠시 동안 氣勢를 올렸다. 그러나 이러한 동안에 千名을 헤아리는 武裝한 民衆들은 콘코드 周邊의 高地를 차지하여 英軍을 包圍하였다. 英軍의 一部兵力이 콘코드의 北橋를 占領하고 其他兵力이 軍需物資를 搜索하기 위하여 콘코드밖으로 二哩이나 行進하여 나갔을 때 드디어 民衆들은 이때까지의 觀察的 狀態를 버리고 反擊을 취하기 始作하였다. 즉 이들은 北橋에 있는 英軍兵力을 攻擊하였다. 橋의 으로 優勢한 民衆의 攻勢앞에 英軍은 도저히 北橋를 確保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잘못하다간 콘코드 밖으로 나간 英軍兵力과 切斷될 可能性마저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스티미스中

東 西 逸 話

不吉한 豫言

佛蘭西 루이十一世(一四二三—一四八三)는 여러가지 不吉한 豫言을 퍼뜨려서 여러사람을 凶惡시키려는 豫言者를 붙잡아서 死刑에 處한 적은 다방에서 그 사나이를 볼 수 있었다.

「너는 다른 사람들의 運數八字는 잘 아는 모양인데 비 自身の 運數는 알고 있는가? 대체 너는 앞으로 얼마나 살 것 같느냐?」

가장 必要한 食糧

루이十二世(一四六一—一五一五)가 아직 율루에안公으로 있을 때 어느 侍從 한사람이 능민을 虐待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王은 그 侍從의 食卓에는 빵을 놓지 않고 고기만을 대주라고 명령하였다. 侍從은 不平이 이만저

만이 아니었다. 그 소문을 들은 國王은 그를 불러놓고 「가장 必要한 食糧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빵입니다」라고 그는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서 그 빵을 만드는 사람들을 虐待하는가?」라고 크게 꾸짖었다 한다.

오리 고기 및

中國 後漢代에 皇甫規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度遼將軍이라는 榮譽로운 地位를 얻은 사람으로 作品이 剛直한 奇人이었다. 그는 비술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 늘 누어 있었다. 하루는 下女가 들어와서 「이런분

領은 하는 수 없이 밤으로 나간兵力을 불러들이는 동시에 軍需物資의 搜索戰을 中斷하고 十九日 午正부터 렉싱턴 方面으로 撤收하기 始作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英軍은 렉싱턴을 거쳐 보스턴으로 撤收하는 것을 작戰이 가장 어려운 作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렉싱턴-콘코드의 싸움이 있기 전에 마사츄셋츠植民地協議會는 民兵을 組織하고 있었다. 이들 民兵은 특히 미닛트-맨(Minute Man)이라고 불려졌다. 즉 이들은 召集命令이 내리면 一分以內에 指定된 場所에 集合하여 戰鬥態勢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진 것이었다. 그러나 리버이 등이 英軍의 襲擊을 警告하였을 때 武器를 들고 나선 民衆은 이들 民兵만이 아니었다. 렉싱턴 및 콘코드에서 緊急事態를 알리는 鐘소리는 隣接村落의 民衆들에게도 武器를 들고 나오게 하였다. 이러한 憤怒에 찬 四千名을 헤아리는 民衆들은 콘코드로부터 보스턴에 이르는 街路 兩側에 제멋대로 자리를 잡고 撤收하여오는 英軍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혹은 언덕위에서 혹은 들단위에서 혹은 家屋뒤에서 英軍을 狙擊하기 始作하였다. 그러므로 스키스中領이 렉싱턴에 이르렀을 때 英軍의 士氣는 떨어지고 退장을 수 없게는 混亂에 빠져 있었다. 多幸히 렉싱턴에는 一千二百名의 兵力을 가진 英軍 救援部隊가 오게 되었다. 이 部隊는 門의 砲를 가져왔음으로 이 砲로서 執拗하게 달려드는 民衆을 一旦 威脅 解散시킬 수 있었다. 여기서 英軍은 部隊를 收拾하고

이 찾아 오셨습니까?」라고 말하면서 커다란 名譽를 내릴었다. 그것을 말아보니 그전에 大金으로 벼슬을 사서 저우雁門太守를 지낸 바 있는 사람이었다. 皇甫規는 코웃음을 치면서 寢臺에서 일어날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사나이는 無禮한 者로서 아무런 거다려도 소식이 없자 案內도 말치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가 기어코 皇甫規가 누워있는 寢臺 옆에까지 왔다. 皇甫規는 그의 얼굴을 보자

「오리(雁) 고기맛이 어떻던가?」 이렇게 시침이름 두 대고 말하였다. 얼마있다가 또 다른 손님 한분이 찾아왔다.

暫時 休息한 뒤에 다시 보스턴 方面으로 後退하기 始作하였다. 그러자 植民地 民衆들도 다시 側面으로 부더의 攻擊을 始作하였다. 예로는 狙擊以外에 民衆과 英軍 사이에 肉迫戰이 있기도 하였다. 특히 現在 하바드大學이 있는 캠퍼브릿지의 郊外에서는 熾烈한 戰鬥이 있었다. 여기서 英軍 撤收 部隊는 도저히 보스턴으로 直行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리하여 方向을 바꾸어 차알스타운半島로 가기로 決定하였다. 英軍은 밤에 이르러 차알스타운에 到着하였다. 그리고 보스턴港에 碇泊하고 있는 英國軍艦의 掩護砲擊의 支援을 받아간 신히 배를 타고 보스턴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四月 十九日의 交戰에서 兩側의 損失은 扶코 적지 않았다. 英軍側에

「王符라는 분이 찾아 오셨습니까?」 下女로부터 이 말을 들자 皇甫規는 별안간 寢臺에서 벌떡 일어나 옷을 급히 가라입고 찾아나가 명랑한 얼굴로 그를 맞이 드렸다. 王符라는 사람은 어찌서부터 苦學을 해서 俗學한 者들을 많이 쓴 사람인데 世俗을 싫어해서 벼슬도 안 하고 一生을 보낸 사람이었다.

忍 耐

에리자페스女王時代의 辭書學者로 유명한 토마스 쿠퍼는 八年이나 걸리지 資料를 蒐集하였는 데히스테리컬잡 일이라는 그의 아내가 남편이 집을 빈 사이에 書齋에 들어가 대부분의 노트를 스트오브에 집어

넣어 태워 버렸다. 집에 돌아온 쿠퍼博士가 이것을 發見하고 感嘆을 나타내며 「누가 한 것이냐?」라고 소리를 치니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이 일에 너무 열중해서 들어가실 것 같아서.....」

이 말을 듣고 博士는 몇번이고 한숨을 내쉬더니 「당신은 내게 정말 못할 짓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다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書齋에 파묻혀 처음부터 다시 쓰기를 시작해서 드디어 八年이라는 歲月이 걸려서 三萬三千語나 되는 大著를 完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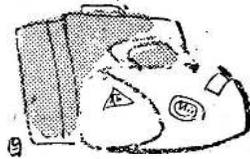
서는 二七三名의 犧牲者를 植民地側에서는 九五名의 犧牲者를 내었다. 그러나 植民地側에는 英軍에 끼친 損失보다도 더 큰 成果를 가져왔다. 그것은 訓練이 안 된 植民地의 民衆이 能히 訓練을 받은 英軍에 對敵할 수 있다는 自信을 주었으며 또한 이 싸움에서의 勝利의 報道는 武力抗爭만이 植民地側의 要求를 貫徹시키는 유일한 方法이라는 것을 覺醒시키기에 이르렀다. 同時에 마사츄셋츠植民地協議會는 이 勝利의 機會를 놓치지 않고 英軍의 軍政을 否認하기 위하여 보스턴 包圍作戰을 敢行하기에 이르렀다.

아 렉싱턴과 콘코드의 遺蹟地를 訪問할 機會를 가졌다. 自動車는 그 옛날 英軍이 進軍하였던 順序대로 植民地를 거쳐 콘코드에 이르렀다. 렉싱턴 民衆이 처음으로 反擊을 開始하였던 北橋와 周邊의 高地는 눈으로 두텁게 덮여 있었다. 이 北橋 위에서 서서 우리 一行은 有事時에 一分이면 遲滯 없이 召集에 應하였던 미닛트-맨의 活躍을 마땅히 故國에 널리 紹介하여야 한다고 이 야기의 뜻을 피고 있었다. 그러나 이 때에는 이 보다 五年後의 四月 十九日이라는 날이 美國의 歷史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歷史에서 自由를 自覺한 民衆이 그 힘을 誇示한 또하나의 意義깊은 날로서 永遠히 그리고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豫測조차 하지 못하였었다. (一九六一·八·一〇)

美國의 「매스·커뮤니케이션」

— 理論的研究과 實際的教育 —

金 基 漸



美國에 있어서의 「매스·커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에 關한 教育이 어떠한 狀態에 있는가? 또한 「매스·커뮤니케이션」教育에 있어 近來 어떠한 傾向이 顯著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考察하고자 한다.

民主主義와 「매스·커뮤니케이션」과의 關係는 오늘날에 와서야 새삼스러히 論議의 對象이 되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오래前부터 다루어진 近代社會의 課題였으며 近代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 言論의 自由는 무엇보다도 重要不可缺한 것이기에 再論할 餘地도 없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民主主義先進國家는 勿論이러니와 眞正한 民主主義의 社會的 諸般條件이 確立되었고 言論의 自由가 保障된 現代社會에 있어서 是 더욱이 技術文明의 發達 그리고 高度化된 機械發明과 社會組織의 擴大分化和 複雜化에 따라 「매스·커뮤니케이션」을 爲해 많은 資金과 大規模의 施政裝備을 投入시키게 하

였으며 또한 이는 小數의 知識層으로부터 廣幅한 大衆化로 擴大시키는 結果를 가져왔다.

그러면 먼저 「매스·커뮤니케이션」과 「프로파간다」(Propaganda)와의 關係를 잠깐 다루고자 한다.

어떤 個人이나 어떤 團體이거나를 莫論하고 이를 意識을 表現함으로써 個人 또는 團體에 對하여 同一한 意思를 갖도록 作用한다든가 啓發的인 作用을 마친다든가 하는 活動은 宣傳的인 作用을 하는 것과는 當然히 區分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매스·커뮤니케이션」은 啓發性을 內包한 作用을 하는 것이나 「프로파간다」는 造作的인 것으로서 第一次世界大戰까지는 市民輿論을 指導하는 大衆傳達의 手段이 곧 宣傳(프로파간다)이란 用語로 使用되어 왔다. 그러나 宣傳技術이 作用하는 造作性 虛偽性을 排除하고 一般大衆에게 眞實한 것을 事實 그대로 提供 傳達하는 手段으로서의 「매스·커뮤니케이션」은 第一次世界大戰以後 美國 學界에서 특히 研究의 對象이 되어 온 것이다.

最近 美國에 있어 서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의 研究와 그 教育은 理論的研究과 實際的인 教育과의 關聯性이 그 特徵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理論과 實際가 密接해졌다는 것이며 兩者間의 統合의 機運과 傾向이 濃厚해졌다는 것이다.

現在 美國에서의 「매스·커뮤니케이션」理論의 發展이나 或은 「매스·컴」에 關한 理論의 研究는 大略 「매스·컴」에 關한 教育을 目的하는 新聞學以外的 分野에 있어서 다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에 關한 많은 研究는 多히 社會學 社會心理學 心理學 政治學 등의 領域으로서 다루어져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매스·커뮤니케이션」教育의 中心인 많은 新聞學은 徹底한 職業教育에 重點을 두고 있으며 第一線의 新聞人이나 放送人이 直接教育에 臨하여 實際의 이고 職業的인 訓練을 하여 온 것이 通常의 이었다.

말하자면 新聞記事를 어떻게 쓴다든가 放送原稿를 어떻게 만든다든가, 또한 新聞雜誌를 如何히 編輯한다든가 「레디오」나 TV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며 廣告를 어떻게 效果的인 것으로 만든다든가 하는 技術的이고 職業的인 것을 重點두고 다루어져 온 것이다.

勿論 이러한 實際的인 職業教育에 있어서 全然 理論的인 研究가 不要하다든가 或은 全然 無視되어 왔다고는 할 수 없다.

理論的인 研究와 實際的인 教育이 分離되어 있었다는 것은 次元의 差가 存在하였다는 것을 指摘할 뿐이다.

앞서 指摘한 바와 같이 「매스·커뮤니케이션」의 理論的인 研究는 社會學者 社會心理學者 心理學者 或은 政治學者들에 依하여 各其領域에 있어서의 重要한 研究 課題로서 다루어

저은 것이며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新聞學과 無關係하게 別個의 課題로서 發展해 왔다고 하여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事實上 「매스·커뮤니케이션」에 關한 理論的 研究로서 新聞學 或은 參與者의 손으로 서 다루어저은 것은 極히 少數이고 大部分이 他分野의 學者들 손으로 다루어저었다는 實情은 否定할 수 없는 事實이라고 본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過去 數年間의 經過를 보면 이들 兩者가 近來에 이르러 接近하는 傾向이 顯著하게 보이며 더구나 其間에 있어 어떤 면에 있어서는 統合되어가고 있는 事實을 또한 認定치 않을 수 없다.

即, 많은 新聞學課程에 있어서는 「매스·커뮤니케이션」에 關한 理論講座가 增加하는 傾向에 있으며 「매스·컬」의 理論的 成果를 積極的으로 取扱하려는 點이 엿보인다. 그 一例를 든다면 이름있는 「보스톤」大學의 新聞學課程에는 基本課目인

“Principles of Journalism”()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History and Survey of Communicatio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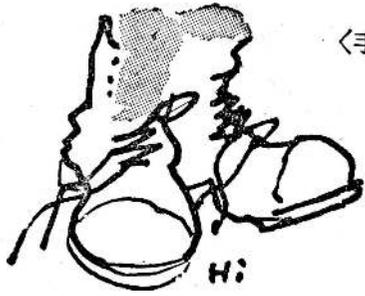
등의 講座가 從來의 技術的인 課目과 같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傾向으로서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往年 「윌버·셀러(Wilbar schramm) 下에 美國에서 最初로 獨立한 「커뮤니케이션」의 研究所로서 設立되고 여러모로 많은 業績을 남긴 「이리노이」大學의 有名한 Institute of Communication Research 같은 것도 初期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獨立된 研究機關이었을 뿐이었으나 今일에 와서는 College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s의 附屬機

軍番없는 反共勇士

나는 九月山 遊擊隊員이었다

柳 德 善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의 回顧談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은 지난날 나와 함께 生死苦樂을 같이하고 死線을 같이 넘었던 九月山 遊擊隊의 前身인 長連部隊의 여러同志들의 愛國的인 奮戰이 없었던들 생각지도 못할 일이다. 더구나 나의 九月山 遊擊隊의 六個月生活를 通하여 오늘날의 나를 있게 하여 준 當時 長連部隊本部의 바로同志(카를리洗禮名, 本名은 그의 遺家族 關係로 밝히지 않겠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나는 낯선 立場에서 傀儡의 銃彈에 찔러져 가며 일어나 불은 오랑캐들을 저주하였을는지 모를 일이다. 바로同志가 이미他界로 떠난지 오래이고 보니 불현듯 나의 生命의 救接者인 그의 모습이 더욱 안타깝게 그리워진다. 地下의 여러 同志들의 冥福을 빌면서 그 當時의 九月山 遊擊隊員이 이룬 것은 無名의 戰士로서, 軍番없는 反共의 勇士로서 일어나 용감하게 奮戰하였는가를 一部分이라든 그 功績을 알리고자 하는 바이다.

九月山 遊擊隊

當時 黃海道 九月山麓의 長連을 中心으로 그 2 장의 反共青年이 主動의 되어서 四二八三年十二月 UN軍의 撤收作戰의 一翼으로서 南下하는 傀儡軍을 阻止하기 위하여 遊擊隊가 組織되었는데

이것이 곧 長連部隊이며 그 後에 九月山을 根據地로 活動하였기 때문에 九月山 遊擊隊라고 불리게 되었다.

當時 나는 空軍의 一員으로서 諜報蒐集任務을, 되고 ○○基地를 出發하여 黃海道敵의 占領地域

에 潛入을 成功하여 約一個月만에 長連遊擊隊와 合流되어 이들과 近六個月間 九月山 遊擊隊에 參加할 수 있게 되었다.

遊擊隊의 主任務는 當時 我軍이 撤收한 以後에 있어서의 地方赤色分子의 索出掃蕩과 南下避難民의 保護 또는 傀儡軍 海岸警備隊에 對한 攻略과 敵後方의 攪亂等이었다. 이 長連遊擊隊와 合流한 後 約一個月餘間 나는 無電機를 가지고 本隊와의 通信任務을 遂行하였다.

戰況이 西部戰線에서는 漢江을 截치고 있을 무렵이었다. 四二八四年 一月中旬頃 어느 아침이

關으로서 統合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事實을 보더라도 오늘날 매스·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民主主義 國家 社會에 있어서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真正한 言論의 自由를 爲해 啓發的인 機能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位置를 占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他面에 있어서 앞서 論及한 바와 같이 이제까지의 新聞學과는 別個로 「매스·커뮤니케이션」에 關聯된 研究에 從事해는 많은 社會學者 心理學者 社會心理學者들이 積極的으로 이의 應用領域에도 進出함과 同時에 「매스·컨」에 關한 實際的 教育에 對하여서도 協力하며 參考하는 傾向이 強하여졌다는 事實도 注目할만한 사실이다.

事實 많은 社會學者 心理學者들이 新聞學의 「스태후」로서 進出하고 있으며 그 밖에 많은 「세미나」(Seminar)나 혹은 訓練機關에서 活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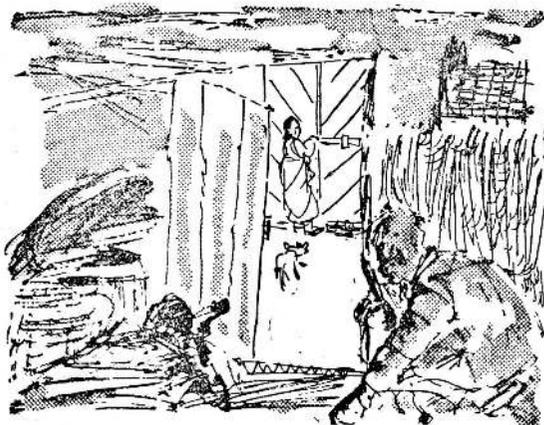
이러한 傾向은 앞으로 論述코져 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關聯領域의 相互協助乃至는 統合의 傾向과 더불어 注目할만한 것이라 하겠다.

即 關聯領域의 研究者도 實際的인 教育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一例를 든다면 「커뮤니케이션」의 理論的 研究에 있어서 最近 注目할만한 「미시간」州 立大學에서는 「커뮤니케이션·푸르세쓰」의 「모델」의 研究를 다루고 있거나와 同時에 그 理由의 實際的 教育或은 應用的 問題에 있어서도 積極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美國과 같은 現代資本主義 經濟機構에 있어서 廣告(Advertisement)같은 領域의

라고 생각되는데 黃海道 長山串 海岸으로 부터 上陸한 傀儡軍 海岸警備 第二六旅團소속의 大隊兵力으로 推算되는 敵軍과 長連 西南方 十里의 龍頭里라는 곳에서 接戰이 되었는데 兵力이나 裝備, 補給에 있어서 우리 遊擊隊가 劣勢이었기 때문에 苦戰을 겪지 못하였다. 龍頭里 戰鬪에서 하루를 지냈고 다음날 아침에는 朝飯을 먹을 사이도 없이 我 遊擊隊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말아서 九月山中으로 不得已 후퇴하지 않으면 안될 地境에 놓이게 되었다. 이 龍頭里 방어선의 붕괴소식이 나에게도 들어오게 되자 나와 無電士는 부랴 부랴 無電機 架設을 撤收하기 위하여 비다 남은 밭을 울진어저 버리고 일어났다. 무전기 안테나를 비 못해서 우리들이 使用하던 장비 一切를 말끔히 거둬가지고 불이날게 長連部隊本部로 뛰어가 보니 이미 遊擊隊本部는 철수한 후이었다. 그리하여 할수 없이 無電機는 무전사에게 맡겨서 早速히 저



의 지역을 脫出하려고 일러서 먼저 떠나 보내고 나는 후지나 하고 隊本部 抵抗地로 급히 달려갔으나 역시 이곳도 勢不利로 退却中에 있었다. 敵은我方이 撤收하는 것을 알자 發惡의으로 攻撃을 加하기 始作하여 敵彈이 我陣地로 비오듯이 날아오는 실정이었다. 나는 近處에 別로 차페를도 실행치 않고 하여 길너의 방공호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때 무작정하고 뛰어 들어가 보니 안에는 아직 미처 후퇴 못한 長連部隊의 後方部員이었던 바로 同志가 혼자 남아서 절절대고 있지 않았던가. 나는 반감도 못하고 이렇게 隊列에서 혼자 落伍되어서 地理도 통 모르니 나에게 구원의 손길이랴도 잡힌 것 같았다. 그는 나에게 공포와 不安에 찬 음성으로 고개를 숙이려고 일르며 손으로 前方을 가리켰다. 그가 가리키는 쪽을 보니 果然 敵의 기관총파가 마구 불을 토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다. 즉자 나는 바로 同志와 의논한 결과 이 방공호속에 있다는 필경 敵彈에 게 죽음을 당할 것 같기에 죽던 살던 이 방공호를 빠져 나가려고 마음 먹고서 한 五十미터 뒤에 있는 民家로 피신하기로 했다. 적탄의 사격간격을 이용하여서 나와 바로 同志는 영급 영급 포복으로 기어서 어떤 民家로 뛰어 들어갔다. 나와 바로 同志의 同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두 女人의 境遇

밤길로 문을 걸어 차고 그 民家에 들어간 나와 바로 同志는 즉시 숨을 場所를 物色하여 보았으나 大門 옆에 광장은 헛간이 있을 뿐이었다. 날은 잔뜩 짙푸린데다가 유난히 귀가 떨어질듯이 추웠다. 저 광에 우구리고 앉았 있으면 한 時間 도 채 못되어서 동태가 될 것만 같기에 나는 바로 同志의 얼굴을 엿보고 敵의 수색대가 오면 바로 후까지 反抗하다가 죽는 限이 있다랴도 當場 寒氣를 면하기 위해서 그 집 사당방으로 뛰쳐 들어가려는 데에 승意하였다. 이때까지도 마당에는 아무

서는 벌써부터 많은 學者나 研究者가 實社會에 나서서 各種調査를 하고 現實의인 指導를擔當하고 있는 것이다.

應用的 領域에서의 活躍을 보여주고 있는 美國의 社會科學 分野에 있어 이러한 傾向은 從來부터 보이기는 하였지만, 近者에 와서 「매스·커뮤니케이션」 分野에 있어서 특히 顯著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必然的인 歸結이라고 하겠으며, 只今까지 分離해온 듯한 新聞學과 他領域에서의 「커뮤니케이션」 研究者들의 協同이 密接해졌다는 事實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傾向과 關聯하여, 오늘날까지 各已다른 領域에 있어 個別的으로 다루어져온 傾向이 있는 「매스·커뮤니케이션」 研究가 漸次로 그 領域을 벗어나 一般的 理論에도 普遍化되어오고 있다는 點도 注目할만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러한 「매스·커뮤니케이션」 研究가 一般理論으로 普遍化 되어가고 있다는 傾向과 密接한 關聯을 맺고 있거나와 이곳에서 또 하나의 顯著하게 나타나고 있는 傾向에 對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매스·커뮤니케이션」 教育的 機構의 再編과 教育的 擴大 그리고 그 課程의 擴充등을 들 수 있다.

앞에 여러가지로 新聞學에 있어서의 理論에로의 接近이라는가 이러한 것에 關한 講座的의 充實化를 指摘하였다.

여기에 또 하나의 傾向으로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關聯領域과의 關係의 強化 그리고 이런 統合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新聞을 中心으로 하는 新聞學은 두말할 것도 없이 「태티오」 「테레비」 등

런 기획이 없기에 무작정하고 문을 박차고 뛰어들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老嫗 한분과 中年 아주머니가 안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다 가 기정을 하고 나와 보는 것이었다. 마침이집은 바로 同同志가 前부터 잘 아는 집이어서 임시변통으로 치로서 사정을 얘기하고 위기를 모면하였다. 자식을 들먹이나 遊擊隊에 協助하였다는 口實로 敵의 소위 열성分子的의 밀고로 僥倖軍에게 총살당한 원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여간 괴롭힌다. 니라 처음에 있는 완강히 반대하여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으므로 나는 할수없이 所持하고 있던 소련製 권총으로 위협을 하여서 이 노파를 물리쳤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기가 죽어서 안으로 사라져 버렸다.

바로 同同志는 中年 아주머니인 이집안 主人을 불렀고 사정애기를 한 뒤에 불을 좀 지피달라고 부탁하였다.

바로 同同志는 아랫목에 추구리고 앉아서 밖의 동정애연신 注意를 모으면서 얼얼한을 쳐다볼 뿐이었다.

간간히 총소리가 이따금씩 들릴뿐 恐怖아 대듯 하던 기관총소리로 멎어 버렸다.

나와 바로 同同志는 오늘밤을 여기서 넘기고 내일 해 뜨기 전에 틀타서 我유격대의 방어진지로 탈출하기로 의논했다.

를 업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나는 즉각적으로 마을의 赤色열성分子를 引續하는가 싶어서 급히 권총의 방아쇠에 손을 갖다 대었다. 이때였다. 방 안에서 이들을 注視하고 있던 바로 同同志가 갑자기 놀라면서 문을 열고 그 아이들은 부인에게 달려나가는 것이 아닌가. 바로 바로 同同志의 부인이었던 것이다. 이집 中年 아주머니가 건너 동네 바로 同同志의 집에 가서 바로 同同志의 부인에게 전갈을 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UN軍 철수 후에 長連部隊까지 후퇴해서 남편의 生死를 모르다가 부랴 부랴 쫓아온 것이었다.

바로 同同志는 그의 夫人이 自己의 所在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놀라움과 기쁨을 여재하지 못하고 그의 부인과 邂逅하였던 것이다. 바로 同同志의 부인은 男便의 身上을 열려하면서 어서 이곳을 脫出하라고 일르면서 僥倖貨幣貳百圓을 바로 同同志에게 전내는 것이었다. 夫婦愛의 뜨거운 마지막 場面이래도 보는 듯 하였다. 바로 同同志가 그의 부인과 마당에서 作別을 하고 방에 들어온 지 채 十分이 못되어서 웬 또 하나의 부인이 이집 主人 아주머니를 따라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다시 초조와 不安에 떨면서 動靜을 엿볼 수 밖에 없었다. 알고보니 이 부인은 다름이 아니라 約 보름전에 安岳郡 西河面 戰鬪에서 奮戰하다가 戰死한 ○○中隊長 진곤同志의 夫人이었던 것이다. 이 부인은 역시 男便의 生死를 몰라야 해 테우다가 찾아온 모양이다. 그 부인은 本來 日本出身女人으로서 우리말이 서투른메다가 원한과 분노에 찬 얼굴은 우리를 보자 금세 눈물이 글썽거리며 치마 밑에서 수류탄 한개를 꺼내주는 것이 아닌가. 自己男便의 원수를 갚아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 부인이 주는 수류탄을 소중히 받아 쥐고서 위로하여 주었다. 나는 反共勇士의 거룩한 아내를 들먹이나 보았던 것이다. 果然 遊擊隊는 隊員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反共心에 불타 더 열마나 원수놈들에 대하여 적개심이 장한가를 엿볼수 있었다.

에 관한 放送 新聞 廣告, 一般世論과 輿論 調查
或은 市場 調查等 「매스·커뮤니케이션」에 關
聯 깊은 領域에 있어 相互密接한 關係가 맺어
져 하나의 教育機關 속에 統合되어 가는 傾向
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徒來에 있어서의 「매스·미디어」(Mass
Media)로서 新聞과 雜誌 따위 印刷 媒介體와
이밖의 機械文明의 高度化된 技術의 發達로
말미암아 「레디오」 「텔레비전」은 새로운 電波
媒介體가 또한 出現하여 눈부신 發達과 더불어
新聞學의 課程도 漸次擴大되었고 新聞 「저」나
리듬의 講座에 放送 「저」나 리듬의 講座亦是
增大하여는 것은 必然의 傾向의 하나이다.

그러면 最近에 이르러 이러한 새로운 媒介
體의 飛躍의 發展과 아울러 廣告 市場 調查
등의 問題가 重要性을 띠게 되고 一般의 輿
「커뮤니케이션」의 機能의 重要性이 認識되어
간에 따라 當然한 結果로서 新聞學 研究 課程의
再編成이 要求 되며 또한 이 擴充이 要請 되
게끔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이러한 여러가지의 領域은 相互間 密接한
關聯性을 갖고 있는 同時에 그 自體內에 있어
서 또한 各己의 複雜한 內容을 가지므로서 더
우이에 對한 高度의 研究가 必要하게 되는 것
이다.

그러므로 해서 이러한 各己 複雜한 內容을
充實케 하기 爲하여 一面 여러기에도 適應한 教
育 課程을 設置 할과 아울러 他面에 있어서
이러한 것과 共通된 것을 認定코어는므로 統
一이 이루어짐이 要求되는 것이다. 여기에 從
來의 新聞學의 組織과 內容에 關해 再檢討
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當然한 일
이며 이의 端的 表現으로서 이제까지의 一般
新聞學의 規模로 專門的인 課目으로서 發展시

三晝夜의 밤활

이런 寸劇을 치루고 난後에 어둠이 스며드는
무렵이었다. 갑자기 발소리가 밖에서 요란하
니 大門을 열라고 고함을 친다. 창문틀로 내어
다 보니 長銃을 멘 피뢰軍 서너놈들이 호통을 치
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와 바로 同志는 굳어진
얼굴로 최후를 각오하고서 방문을 몰래 빠져 나
와서 담을 고쳐서 大門을 닫밀고 돌이 박장 달
라 붙였다. 바로 同志는 수류탄을 나는 권총을
가지고서 놈들이 大門을 부수고 들어서는 몇놈
이 되던지간에 끝까지 버티어 붙세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밖에서는 고함소리가 요란하고 우리들은
손에 탄을 쥐고 있을때에 질념으로부터 피뢰군 集
습나팔같은 소리가 들려오더니 大門을 열라고 소
리치던 놈들이 「에이 집합이군, 동무들 그냥 가
봅시다」 하고 돌아가는 기색이었다. 나와 바로
同志는 이때 손을 마주잡고 天命이 주신 우리의
요령에 기쁨을 나누지 못하였다. 우리들은 그날
밤을 거의 뜬눈으로 새우고 아침녘에야 잠 눈을
부쳤다. 主人집 아주머니의 말에 의하면 어제
一隊의 피뢰軍들이 이 마을에 주둔하였다가 오늘
새벽에 유격대를 쫓아서 떠나갔다는 것이다. 우
키고 있는 것이다.

그 예를 든다면 現在 이러한 規模를 가추고
있는 美國의 大學을 보면 「미시칸」 州立大學
과 「이리노이」 大學이 있으며 「보스턴」 大學과
같은 곳에서도 그러한 規模로서 다루어지고
있고 그밖에 大學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動向
이 엿보인다.

우리 韓國의 大學 新聞學 課程과는 判異하게
美國에 있어서 이러한 大學의 課程 뿐만이
아니고 大學院의 碩士 博士課程까지 設置되
어 있으며 他分野 專攻의 學生에 까지도 이 講
座의 門戶가 開放되어 있다는 事實만 들어도

리는 이 정보에 용기를 얻고서 脫出하기로 마음
먹었다.

멀리서 새벽햇이 우는 것이 들린다. 그래도 어
디에 닭이 부저해 있을가하고 귀를 의심하여 보
았다. 놈들이 장제로 압수하여서 취사장에 놓아둔
닭이 들림없으면은 저의 보초선이 얼마 멀지 않
으리라는 것을 주각 세축할 수가 있었다.

차거운 아침 바람을 쇄면서 우리들은 밤새 췌
를 끼친 主人 아주머니에게 고맙다는 말도 변변
히 못한 채 영금영금 기어서 놈들의 보초선을
넘는데 성공하여 이고장 地理에 밝은 바로 同志
의 필사적인 지혜이용과 안내로서 나는 눈을 주
어 버어 가며 滿 三晝夜를 헤켄말의 長連部隊 ○
○中隊와 合流하게 되었다. 산속을 헤메면서 冬
死를 면한 것이 무엇보다도 바로 同志의 따뜻한
부축에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그後 바로 同志는 西海岸 大和島 戰團에서 장
렬한 최후를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흰눈이 덮
인 겨울 산을 볼적마다 그와 苦行을 하던 추억이
떠오르곤 한다. 마음씨 착하고 열렬한 反共투사
였던 그의 英靈앞에 어서 조국통일의 희소식을 傳
하여 주었으면.....

(筆者·空軍少領·10戰飛團作戰處 情報課長)

얼마나 「매스·커뮤니케이션」의 關聯領域이 顯
著한 發展을 이루고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매스·커뮤니케이션」에 關
聯된 教育의 擴大 教育의 充實이 時代의 要求
에 應하여 그 얼마나 美國社會의 무거운 比重
을 갖고 있다는 것은 再論을 要치 않는다.

그러나 以上 論述한바 美國에서의 「매스·커
뮤니케이션」 分野의 理論的 研究가 實際的인
教育으로 顯著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事實
은 앞으로의 새로운 또한 하나의 어떠한 課題를
던져줄 것이 아닌가 生覺된다.

(筆者·空軍 中領 公報課長)

심 의 구 원

제라아드 트릴

第二次世界大戰이 始作되고서 얼마 안되어 英佛 협에 위치하는 英領 「찬넬」群島중의 하나인 조그마한 非武裝의 「아모렐」섬을 「한스」베이스「大尉」가指揮하는 獨逸軍의 一團이 占領한다.

修道士들과 물새들만이 들리던 외로운 「아모렐」섬의 領主로서 「에리카베스」女王의 「유고와라이즈」를任命하고 이 섬을 다스리게 한 것은 十六世紀末이였으

며 그후 戰爭이 始作될 때까지도 「와라이즈」家の 後孫인 젊은 領主에 依하여 住民이 三百을 넘지 않는 조용한 섬이 다스려졌던 것이다.

戰爭이 始作된 後, 3달 짝은 領主는 섬의 幹部들을 會議室로 불러서 하고는 英國王室로부터 委任된 섬의 統治를 自己가 任命한 젊은 執政官에게 맡기고서 동생과 함께 戰爭에 參加하기 爲하여 떠난다. 섬을 占領한 獨逸軍은 島사람들의 通行을 制限할 으며 모든 統砲와 大포를 압수했다. 彈壓은 流血의 反抗을 誘發할 것이라는 執政官의 警告를 無視하고 파토이스語(섬의 固有言語)의 使用을 禁止했으며 英國王室의 傳統을 尙景하는 것은 「미너스」를 獨逸本國으로 가져갈 것을 執政官에게 通告한다. 그들은 「미너스」를 獨逸로 帶아가서는 英國에 對한 心理戰에 利用하려는 것이 없다.

한편 英國의 陸軍省에서는 「아모렐」섬의 「미너스」를 占領하고 섬에 駐屯하는 獨逸軍의 기술부대가 숨겨두고 있는 快速砲艦을 港口밖으로 유인해 내자는 計를 세우려고 하는 作戰計劃을 세우고 이를 陸軍省 所屬

한편 英國의 陸軍省에서는 「아모렐」섬의 「미너스」를 占領하고 섬에 駐屯하는 獨逸軍의 技術부대가 숨겨두고 있는 快速砲艦을 港口밖으로 유인해 내자는 計를 세우려고 하는 作戰計劃을 세우고 이를 陸軍省 所屬

의 「마렌트 모렌트」少領에게 指示한다. 領主와 함께 英國으로 脫出한 女同生 「니코라 와라이즈」艦은 英國戰時婦女奉仕團에 勤務하던 「모렌트」少領의 案内役으로서 無電士인 「알렉산더 워브스」上士와 함께 潜水艦을 타고 「아모렐」섬으로 潛入한다.

「아모렐」섬에는 領主家の 唯一한 血統으로서 옥스포드大學에서 教育을 받은 「니코라」艦의 四寸이하인 平和主義者 「리오넬 와라이즈」가 그림을 그리면서 남아 있으며 獨逸軍은 英國의 間諜으로 처음에는 疑心을 하고 그의 行動을 監視하나 그림을 그리는데 의에 아무런 行動을 하지 않음을 알고 힘의를 두지 않는다. 어서서부터 알게 되어 눈더 자란 「니코라」艦은 四寸이하인 「리오넬」을 사랑하며 英國으로 함께 脫出할 것을 생각한다.

「미너스」를 獨逸로 輸送하는 날, 「리오넬」로 하여금 다룬 왕조의 일복을 「미너스」와 똑같이 그리게 하고는 소를 마케쳤으나 배에 실는 순간 가짜 「미너스」임이 「한스」大尉에 依하여 發覺되며 이로 말미암아 「니코라」艦 一行이 섬에 潛入한 것을 알게 된 獨逸軍은 섬의 수색을 시작한다.

「모렌트」少領이 時限爆彈을 裝置하다가 獨逸軍에게 發見될 찰라에 同少領을 占領한 少年 「조」지가 「一行과 함께 英國으로 脫出하기 爲하여 出發時間이 임박하였을 때 수색대를 다른 곳으로 유인한다. 그러나 少年의 거짓말을 눈치챈 수색대의 上士가 一行의 集合場所 向하는 少年을 尾行한다.

때때가에 集合하여 一行을 태우러 오기로 된 「트를 기다리는데 「미너스」가 새끼를 낳으려고 한다. 하는 수 없이 一行이 근처의 森林으로 가서는 낳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조」지 少年을 尾行한 獨逸軍 上士가 총을 겨누고 나타나서 一行을 생포한다. 그러나 驚愕한 山中으로 이들을 혼자서 運행하게 되면 脫出할 것을 염려한 上士가 수색대원의 到着을 기다리는데 「미너스」가 총아지를 낳는다. 이를 받아낸 「니콜라」艦은 獨逸軍 上士에게로 총아지를 안고 돌아서며 一行에게는 無事였을 때 마침 「모렌트」少領

書 文

SMILE

白 榮 洙

나는 그 소박한 미소가 좋다. 입을 가상이 사이로 생기는 그움은 아니 별로 숨지지도 않은 서너 개의 선이랑 눈도 함께 따라 웃는 입술. 마음껏 거침없이 벌어지는 입술사이로 솟아오르는 것이

드러나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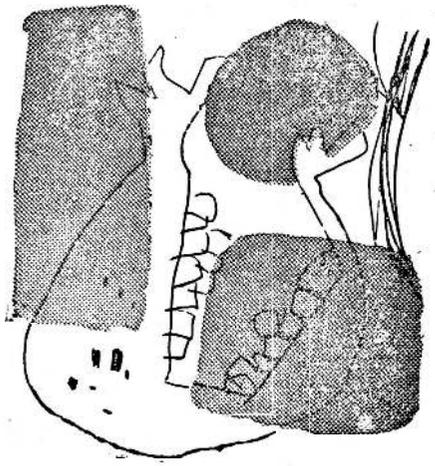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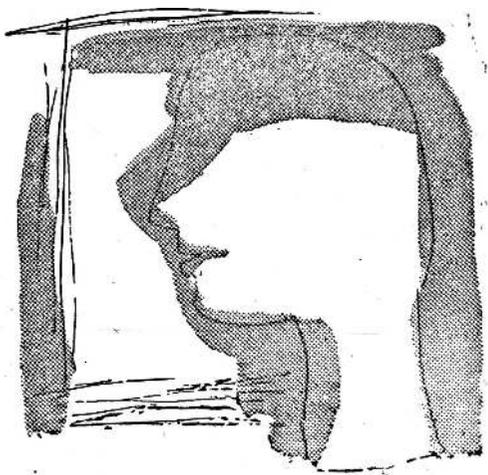
이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그의 나이를 짐작하기 힘들다.

정말 소박한 웃음이다. 의심스러운 정도로 어려 보이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진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 세상을 아는 노인처럼 이해가 힘들은 미소갈기도 하다. 물론 그 미소에는 악의도 거짓도 없어 보인다. 말한 마다로 친남 빛을 깔았다는 옛말처럼 그 미소는 친남 빛을 깔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제 아무리 화가났던 여인이라도 그 미소를 보고 어름처럼 녹아질까다.

봄빛을 받은 어름처럼.....

적당히 들어가는 한쪽의 볼 우물에는 한번 꼭 눌러보고도 싶고 뽀뽀라도 하고 싶은 심사가 꽤 버린다. 물론 가상이 사이라 여러 개 주름이 잔 어린이의 예쁜 미소는 아니라도 정녕 귀엽고 노치고 싶지 않은 잊을 수 없는 미소이다.



이裝置한 時限爆彈의 요란한 爆音이 들리고 이들을 타서 獨逸軍上士에게 달려들어 陣營을 奪앗은 一行은 塹가 기다라기르던 揚所로 向한다.

한편 그들 一行이 獨逸에 든 뒤라고 생각한 「한스」大尉는 全火力을 隊변에 集中하고는 港口에 숨겨진 砲艦을 出動待期케 하고 언덕에 서서 一行이 「미너스」와 함께 上士를 끌고 塹에 오르려는 것을 監視하며 塹가 떠나려는 순간 砲艦을 出動시키 全員을 生捕할 것을 決心하고 射擊을 禁한다.

英國으로 함께 떠나던 「리오넬」은 모든 것이 發覺되었음을 알자 자신이 떠난후 무모한 섬사람들이 獨逸軍에게 피로움을 當할 것을 염려하여 불드는 「니코라」艦과 一行에게 作別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데 있던 「한스」大尉는 이 光景을 目擊한다.

「모렌트」一行이 탄 보트가 막 해변을 떠난 순간 獨逸軍의 砲艦이 나타나서 위협사격을 하며 따라온다. 바로 그때 어디서인지 비행기의 폭음과 함께 세대의 英國戰艦機가 나타나서 보기를 쫓아 砲艦을 격침시키며 一行이 탄 보트는 無事히 脫出한다.

이 모든 光景을 넋을 잃은채 바라보던 「한스」大尉는 「리오넬」의 집으로 向한다. 「리오넬」의 書室에 들어서니 그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한스」大尉를 맞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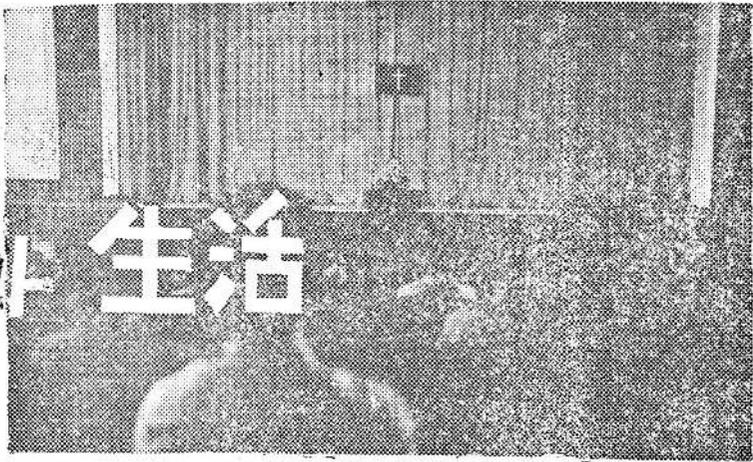
「리오넬」을 바라보며 「한스」大尉는 두개의 相異한 運命을 想像한다. 軍法會議에 廻附되는 自己의 運命, 그리고 獨逸의 收容所를 受은 苦勞를 다 겪으며 이리저리 골머리나다가 마지막을 마칠 「리오넬」의 運命.

善한 일을 할수있는 마지막 機會라고 生覺한 「한스」大尉는 「리오넬」에게 돌아설 것을 命命한다. 必要한 表情으로 「리오넬」이 창문을 내다보며 돌아선다.

× × × × ×

信仰과 生活

林 東 善



〈人生과 生命〉

人生(間)은 生命體의 질정이다. 宇宙萬物 가운데 무엇이든 다 人間의 生命이 貴重하다는 것은 말할 바도 없다. 希臘의 哲人「프로타고라스」가 人生은 「萬物의 尺度」라고 말한 것은, 尺度라는 標準을 가지고 物件을 測量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人間自身을 標準삼아서 무엇이든 推斷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옛말에 「藝術은 길고 人生은 짧다」고 함은 人生의 自己의 有限性을 애달프게 여기는 말인 것이다. 美國의 詩人「에머슨」이 말한 「人生은 무엇이든 또 人生은 무엇이 아닌가?」라는 뜻은 人間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또 偉大하다는 말일 것이다. 佛蘭西 文人「빅틀슈트」는 「宇宙萬物의 偉大함보다도 內的인 自己心界가 더욱 偉大하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칸트가의 內的道德律을 경탄한 것과 비슷한 것이다. 예수는 무엇이든 또 人間의 生命은 偉大한 것으로서 宇宙萬物 보다도 貴重하다고 評價하였다.

〈生命과 慾求〉

生命이 있는 곳에 慾求가 따라간다. 礦物界는 生物界와 달라서 營養의 作用이나 運動의 作用이

없다. 그러므로 아무런 慾求도 必要치 않다. 그러나 生物界에는 植物이나 動物이나 各已 必然的으로 慾求가 따른다. 더구나 人間은 高等한 生命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慾求는 매우 複雜하고 強力한 것이다. 따라서 生에 對한 愛着心과 죽음에 對한 恐怖心도 人間이 第一이다. 오늘날 現代科學文明을 경탄하지 마는 生命의 神秘는 아직도 解明을 주지 못한다. 즉 죽음을 科學으로 完全히 解決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다.

〈慾求와 不滿足〉

歷史를 詳考한다면 人類의 文化는 慾求에서 發生하고 慾求에서 成就된 것이었다. 物質은 有限한 것이나 人生의 慾求는 끝이 없는 것이다. 慾求가 나쁜 것은 아니다. 慾求는 善惡의 二種이 있다고 본다. 사람이 慾求하는 바가 계속하여 現代에 불만족을 느끼지 아니하면 決코 進歩와 發展이 없다. 그러므로 人生은 慾求에서 새로운 욕구를 이달아 자기의 現在에서 불만족을 느끼는 것이 근본 성이요, 生命의 要求이며 또 人

格의 價値이다. 「칼라일」은 「不滿足해 하는 도야지가 되는 것 보다 불만족해 하는 人生이 되며 滿足해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 보다 불만족해 하는 소크라테스가 되라」고 했다. 우리 自身은 物質에 對하여서는 만족한 態度를 가져야 하고 道德律에 對하여서는 不滿足한 態度를 가져야 한다.

〈不滿足과 神〉

哲人「플케임」氏는 人間을 定義하여 「人間은 宗教의인 動物이다」라 하였고 美여행가의 한 사람은 世界를 일우하고 불아와 말하기를 「내가 軍艦과 大砲없는 나라는 보았지만 神을 안 믿는 나라는 못 보았다」고 했다. 「말틴 루티」는 「모든 人生은 참神이 아니면 거짓神을 가진다」고 말했다. 옛말에 「세는 죽을 때가 되면 그 노래소리가 구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가 가까우면 마음이 착하다」即 人生이 막다른 골목에서는 누구나 神을 찾게 된다는 말이다. 佛人 無神論者「발페이」가 「大西洋 한복판의 모진 風浪속에서는有神論者가 되고 요행히도 無事히 陸地에 上陸해서는 다시 無神論者가 되었다」고 한 말은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다. 人生은 神으로부터 창조받은 被造物이다. 現代人은 神으로부터 解放받으려고 하거나 實狀은 다른 神

주物質과享樂과權力의 偶像에
포로가 되고 만다. 여기서 覺醒
할때에 倫理的 實存이 되고 거
서 階段 더 올라가는 飛躍이 곧
宗教的 實存이 되는 것이다.

〈神과 宗教〉

宗教란 말은 英語「Religion」의
譯語이다. 이 말은 羅典語에서 發
達한 말인데 「再結合」이란 意味
를 갖고 있다. 再結合이라는 것
은 서로 分離되어 있다가 다시 結
合한다는 말이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가 없고 어린아이는 父母를 떠나
서 살 수가 없듯이 人生은, 生命
의 中心이며 本源이신 神에게서
分離되어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
이다. 聖「어거스틴」이 神을 떠나
「세계로」, 「푸라톤」, 「아리스토틔
테레스」의 哲學과 羅典文學, 돈,
女子 등으로 滿足을 찾으려고 해
매였으나 모두가 虛事였다. 마침
내 그는 다시 神계로 돌아올때에
靈魂의 安息과 偉大한 聖者가 되
어 價値있는 生의 삶을 얻은 것
이다.

佛敎에서 人生에게서 佛性이 있
다고 믿는 것과 같이 基督教에서
는 人生에게 神性이 있다고 信仰
한다.
數學에서 同種類가 아니면 加
減을 못하는 것과 같이 人生에게
神性이 아주 없다면 神과 結合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人生은 本來 神에게 起源을 두
었으므로 다시 神계로 歸一될 수
가 있다는 것이다.

神과 人生사이에서 再結合을
하신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란」中保者라하며 唯一
의 救世主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宗教와 信仰〉

信仰이라 함은 時間的으로 未來
의 것을 現在의 實相으로 여기는
것이요, 空間的으로 內眼으로 볼
수 없는 對象을 證據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未來를 現在化하며 靈
界를 對象化 하는 것이 곧 信仰이
다. 正當한 신앙은, 理性的으로
성경속에서 人格의 인산에 수를 發
見하고, 感情的으로는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罪를 自服하며, 그
의 義를 우러러 쳐다보고, 意志
的으로는 그리스도를 信賴하고 그
의 善을 體得하며 人格의 으로는
그를 죽기까지 따르는 것이다.
即 信仰은 하나의 傳統이나 敎
理나 儀式이 아니라 하나의 自然
스러운 生活인 것이다. 健全한 信
仰은 兩面性을 가진다. 即 神的이
면서 또 人間的이며 永久的이면서
또 時間的이고 他界的이면서 또 現
代的이고 個人的이면서 또 社會的
이고 保守的이면서 또 進步的이며
믿음이면서 行爲, 곧 生活인 것이

다.

〈信仰과 生活〉

열매없는 나무가 無價値하여 죽
은 나무인 것과 같이 人間이 生活의
向上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던 죽은 人生인 것이다.
내가 軍內에서 많은 將兵들을
對하는 가운데 그中 信仰의 인변
화를 가져온 몇사람을 소개할 가
한다.

얼마전부터 나는 ○○將校와 親
交를 갖게 되었다. 그는 不意의
重患으로 病院에 臨床하여 大手
術을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는 人生의 虛無함을 느끼고 空
虛한 心地에서 고통과 煩惱속에
깊이 빠지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하루는 軍牧이 그
를 訪問하여 信仰으로 勸告하고
저의 苦痛중에 있는 肉體와 魂의
救援을 위하여懇切한 祈禱를 하
게 되었다. 「肉體를 手術하는 것
은 醫師가 할 것이나 人間의 生
死는 神(하나님)께 달렸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는 現世以外에來
를 生覺하게 되었으며 우리를
主營하는 神의 存在를 깨닫게 되
었다. 그는 얼마후에 病患이 完
治되어 갔다. 病과 같이 信仰心도
藥生하여 갔다. 그때부터 그의 生
活은 百八十度의 方向轉換을 가져
왔다. 그의 放浪의 人 生活은 슬,
담배는 勿論 尙소라까지도 有名

하였고 슬로 因해 살림이나 子女
敎育은 알바가 아니었고 夫婦間
이나 父子間의 愛情도 찾아 볼 수
없는 荒無地와도 같은 家庭이었
다. 그러나 그후부터 그는 발견
을 교외로 옮기었으며 과거 자
己의 非正常的인 生活을 贖罪하
려는 것이었다. 偶像을 廢棄히
崇拜하던 夫人이나 家族들도 열열
한 그리스찬이 되었고 荒無地 같
은 家庭에는 復活의 새 봄이 오게
되었으며 生活에는 아름다운 꽃
이 피기 始作하였다. 살림은 점점
질서가 잡히고 윤택해져서 草花
밭 魚場 鰲羊等を 飼養하여 家計
를 돕는 것이다. 그는 變化됨을
받아 誠實勸勉하여 家族과 社會
에 모범적 人物이 되었다. 果然
新婦夫婦의 家庭인양 理想的인 家
庭을 이루하여 감사와 讚訟의 生
活을 하는 것을 볼 때 나는 「공군
의 나사로」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
이 울어난다. 果然 죽은 生活에서
生命있는 信仰을 역력히 볼 수 있
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
고 權能에 있나니라」
나는 또 ○○基地에 있는 ○○
中士의 경우를 말하고 싶다. 그는
幼兒洗禮敎人으로서 父母兄弟를
北쪽으로 두고 단신 越南하여 依支
할 곳이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으나
그의 信仰은 특신하여 恒常 單족
하면서 기쁜 生活을 해왔다. 그는
自己에게 賦課된 義務를 充實히

飛行의 꿈

李 寧 照



폰넨렛리의 작품에 (태양속의 女人)이라는 단편이 있다. 멋있는 소설이다.



小型 自家用機로 하늘을 散策하는 어떤 비행기 愛乘家의 이야기다. 빛이 넘쳐 나는 이날 우연히 여인 하나를 만나게 된다. 젊고 아름다운 그녀도 소형자가용기를 물고 하늘가로 산보하는 것이

두 사람은 스피커를 통하여 말을 주고받으며 비행한다. 문체 구름이 치솟은 하늘의 부도, 빛이 충만한 하늘의 별판에서, 비행기 애승가의 마음은 여인에게 강하게 끌린다.

「태양의 여인을 유혹하고, 여인이 나를 유혹했다.

「유혹이라는 낱말이, 이렇게도 신선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다루어진 소설은 본 적이 없다. 무지개 빛깔의 雲層, 보라빛깔의 雨層과 에레탄트 빛깔의 靄雲을 뚫고,

두 비행기는 下降하기 시작한다. 헤어지는 시간이 온 것이다. 비행기 애승가는 여인의 주소당 캐어들으며 이번엔 땅 위에서 散策하고자 청한다. 그러나 여인은 아버지를 쫓게 삼아 거절한다.

「땅 위에서의 산책은 위험해서 안 된다는군요.

가벼운 웃음소리를 남기며 여인의 비행기는 달이나 버리고 만다…….

전체 文章도 아름답거나,着想이 재미있고 인상적이어서 잊혀지지 않는 소설의 하나다.

人間 로케트가 연달아 쏘아치는 요즘이지만, 이같은 하늘에서의 散策이란 나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 비행기라고 타

보기는 전후 두 차례 비행기 때문이다. 그 첫번째는 국민학교 때 비행단 견학을 갔다가 얻어 타본 (고추감자리)

이렇게 불렀다. 모양기를 두고 흔들어 리듬 같았던 탓이다.

두번째가, 서울 부산간을 여객기로

왔다 갔다 한 일이다.

여러 차례 타보지 못해 그런지는 몰라도 그때 느낀 驚異와 황홀감은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쉼 없이 떠돌듯

등에 얽혀 사는 世上에서, 초연해지는 마음의 높이, 준엄한 自省의 空間, 비로소 부피가 마라달에 概念을

하루에 한번 쯤, 아니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그같이 찬란한 고독의 주변을 누릴 수 있다면, 마음이 얼마나 흥뜻

해질까 생각해보는다.

폰넨렛리는 (태양속의 여인)에서, 그 逆說의인 감정을 교묘하게 잡아내

고 있다. 大氣 속에서 더없이 아름다운 女人,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大氣의 一部分이요, 고독의 對象일 따

름이다.

「그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인가? 現實의 발판 위에서 인간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反問하고 싶어진다.

고독의 값어치를 默殺하려는 자리에서, 늘상 幻滅이란 빛이 지기 마련

이다. 폰넨렛리는 이 幻滅을 拒否하므로써 主人公을 現實에 參與하게 한다.

그야말로 비행기로 날듯 멋들어진 論리의 飛躍이다.

〈난다〉는 行爲 또는 이 행위의 象徵인 〈날개〉는, 옛날부터 最上級の 形容詞로 행해져 왔다.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라고 하여 황홀감을 나타낸다. 남자들이겐

이 날개라고 하면, 돈과 옷의 威力을 날개에 비친다. 꿈도 하늘을 나는 꿈을 꾸면 所願成就 내지는 最少限기

분홍은 일이 생긴다고 일컬어진다. 〈뛰는 늬 위에 나는 늬이 있다〉는 俗

談으로는 늬력의 優勢함을 나는 것에

감당해 감으로써 언제나 他的 模範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生涯를 본받아 逆境과 苦難을 통하여 그의 信仰은 점점 강화되고 갔

어갔다. 그가 確固한 信仰에 있을 때 信仰은 生命있게 움직이기

始作했다. 그는 빛천환의 광봉으로써 敎會는 勿論, 貧困과 기

아에서 海메이는 地方民들을 위하여 奉仕했다. 國家의 百年大計

는 敎育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 中士는 처음이나 마땅한 救助의

손을 펴기 始作했다. 經濟的으로 어려워 文化的인 惠澤을 받지 못

한 素朴한 어린 生命들에게 敎育을 시켜야 하겠다는 불타는 心情

으로 軍內服務의 餘暇와 少額의 俸給으로 불쌍한 學生二, 三名

에게 獎學金(地方學校임)으로 열가인)을 支給하게 되었던 것이

다. 이것이 導火線이 되어 基地隊長을 爲始한 여러 將校의 協力

下에 只今은 九名의 中高等學生이 공군장병의 장학금을 받아

夫하고 있었다. 그後 中士로 進級되어 俸給이 增額함에 따라 계속 軍

內와 民間人들에게 술은 아름다운 奉仕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 中士의 奉給은 獎學金과 其他 善한 事業으로 다 支拂되다시

피한다. 한 人間이라도 더 敎育을 시켜 참다운 人間으로 만들겠다는

가르듯한 精神은 神이 주신 眞理 위에 선 信仰인 것이다.

(筆者·軍牧室長)

배긴다. 영어로 **ambition**(욕망)이다. 라 하면 **大望을 품는다**는 뜻으로 통한다.

이 몇가지 사실만 보아도, 인간이 하늘 날기를 얼마나 **希求**하고 **憧憬**하여 왔는지 알 수가 있다. 이 희구와 동경의 원인은 **飛行** 그 **自體**에도 있었겠지만, 하늘 **即 우주**에 대한 **神秘感**과 **미한** 나위 없는 **征服欲**이 있었을 것이다.

미한의 꿈을 채울 수 없었던 옛날 **희랍사람들**은 그들의 **神話** 가운데서 **사랑의 神 큐피드**에 날개를 달아 **人間**의 꿈을 **代行**시켰다.

아름다운 **青年神 큐피드**는 어디든지 **자유로이 날아가**서, **황금의 화살**로 젊은 남녀의 **가슴**을 **쏘아 사랑**에 빠지게 한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모습**을 **감추고** **자유** 자체로 날아다닐 수 있는 **큐피드**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스우퍼 맨**이다.

미구에서, **만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에게는 물론, 어른들 간에도 **흥미와 話題**를 불러 일으키게 한 이 **스우퍼 맨**이란, **不死身의 超人**이요 **正義의 快漢**이다. 그는 **자유로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惡과 對決**한다. **용감부정**한 이 **스우퍼 맨**의 **希願**은 **다들**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넘치는 平和**로운 **세상**인 것이다.

큐피드의 옛날에서 **스우퍼 맨**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人間**들은 **근저**에도 **날아다닌** 꿈을 **간직**하여 온 셈이다.

그러나 이 날아다니는 꿈에는 반드시 **善意**가 따라 다니기 마련이었다. **飛行行爲**를 **神과 結**치킨 옛날은 **날**

할 것도 없겠지만, 오늘날 **惡意**의 **飛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事實**을, 우리는 여러번 겪은 **空襲**으로 뼈에 사무치게 깨달고 있는 것이다.

미소 **兩國**에서 **출을 이어 人間**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 이 두 나라의 **宇宙間 競走**에는 **눈부시도록 執拗**한 **감정**이 서려 있다. 그것은 다만 **兩陣營**의 **政治**의 **인後光**을 위해서 벌어지는 **競走**만은 아닌상 **심다**. **人類**의 **꿈**인 **없는 飛行**에의 **꿈**이, **경주**의 **바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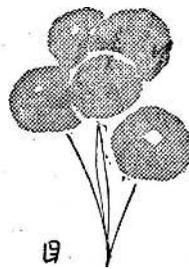
어서터운 **速度**를 더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 **경주**에 **휘둘러** 함께 들뜨고 싶지도 않지만, **애써 傍觀**할 수도 없다. 다만 우리는 **한 人間**의 **權利**로서 이것만은 **主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이 **끝내 善意**의 **飛行**, **人類**의 **오랜 꿈**을 **채워 주는 飛行**이어야 한다는 일이다.

(筆者·少年韓國日報編輯部長)

同志愛

李敬南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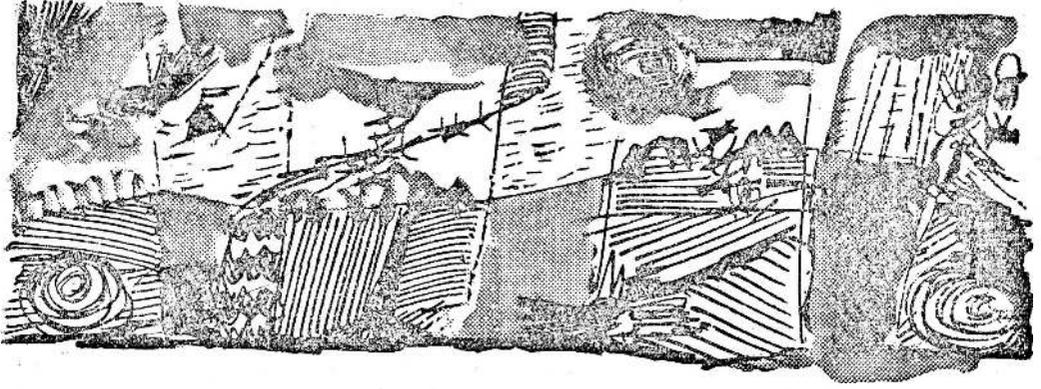
켈들의 **門**이 열려 **海水**가 밀려들고, 따라서 **그리슴대尉**는 **켈**에서 **뛰어** 나와 **바닷물**을 **흡**맥 마시게 되고, **五百餘萬弗**짜리 **貴重**한 **켈**은 **바닷수**으로 빠져버렸다는 **劇**의 **事故**에 대한 **報道**는 여러가지의 **미로**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때는 **진여**가 저 **충격** 가운데서 도 **특히** 나의 **腦**裡에 **아지**것 **생**생한 것은, 「**그리슴대尉**를 **바닷물**에서 **救助**해낸 **헤리콤포터 操縱士**들의 **活動**과도 **한 五百萬弗**짜리 **켈**을 **진저**보려고 **무진**애를 **쓰**다가 **마침내**는 **力不足**으로 **抛棄**해 버린 **역시** **헤리콤포터 操縱士**들의 **눈물겨운 努力**이었다. **여러**가

지 **科學**의 **實驗觀測**의 **資料**가 담겨 있다는 **그 켈**을 **無事**히 **진저**버렸다면, **하는** **아쉬운 마음**은 **그 누구**나 **공통**된 **생각**이겠지. **마음**이 **그** **아쉬움**이 **痛切**한 **슬픔**으로 **느껴**지는 **헤리콤포터 操縱士**들의 **心情**은 **가히 추측**되기도 **남**음이 **있다**.

켈이 **진저**졌다고 **해도** **그 켈**이 **보여**주는 **여러**가지 **科學**의 **價値**는 **宇宙飛行士** 「**그리슴**」의 **名譽**와 **더**불어 **더욱** 빛난 **것**이지 **헤리콤포터 操縱士**들에 **진저** 버린 **名譽**가 **돌아가**는 일도 **아니**였겠지만 **아무**는 **헤리콤포터 操縱士**들의 **悲嘆**이 **가까**운 **아쉬움**의 **感情**이란 **榮譽**와 **勳章** 따위의 **功利**를 떠난 **純粹**한 **感情**이라는 **대서** **筆者**는 **그들**에 **대해** **더욱** **추은**한 **느낌**을 **아니** **품**을 수가 **없다**. **헤리콤포터 救助隊**의 **말**이 **났으니** **생각**키우는 **것**은 **우리**들이 **지** **傍觀**한 **六,二五戰亂**을 **치**를 때 **수**없이 **日學**한 **UN軍** **헤리콤포터 救助隊員**들의 **눈물겨운** **勇猛**스러운 **活躍**이었다. **共産軍**의 **戰略** **戰術**의 **要領**들을 **強打**하기 **위**하여 **出擊**했던 **友軍 飛行機**가 **敵**의 **地上砲火**나 **혹은 機關** **故障**으로 **말**미안아 **不得已** **敵地**에 **墜落**하고 **그 飛行士**들이 **倏**倏히 **파라슈트**로 **落下**했을 **경우** **그 友軍 飛行士**를 **敵陣**에서 **救出**해 내기 **위**하여 **헤리콤포터**는 **敵**의 **各種 砲火**를 **부**를 써가 **떠**날 **아**갔던 **것**이다. **萬一** **헤리콤포터 救助隊**의 **出動**이 **없**었다면 **그 不幸**한 **과**이 **뜻**들은 **敵**의 **捕虜**가 **되**거나 **아니** **던 敵地**를 **彷徨**하다가 **餓死**할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 **不幸**의 **極地**에 **빠진 友軍 飛行士**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헤리콤포터**는



CUPIDO

詩

金宗文

오늘도 외출기 줄을 탄다.

두두러진 두 眼球가 공중에 뜨면서 하나가 되며 三色이
아름지는 하나의 「아드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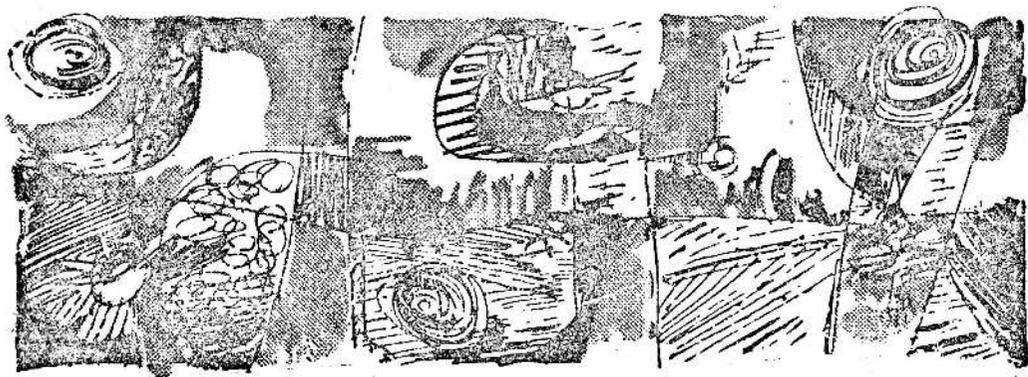
그것은 腦室, 구름이 닿으면 터질듯 하니 터질듯 공중을
떠돈다.

날아가는 것인데 이들이야 말로 敵陣을 强打하는 爆擊機, 戰術機의 파이롯트 못지않게 슬기롭고 獻身的이어야 했던 것이다. 특히 墜落한 飛行士와 그를 救助하려는 레디콕의 操縦士와의 關係처럼 崇高한 戰友愛와 뜨거운 휴머니티가 풍겨 주는 感動的인 일도 드물 것이다.

생각을 더듬다 보니 이런 일이 回憶된다. 筆者가 六, 二五戰亂에 從軍했을 때의 일이었다. 從軍했다기 보다는 參戰했다고 해야 옳은 일이었지만 그때 나는 現役軍人은 아니고, 西海地區 反共遊擊軍의 한 部隊 要員이었다.

우리들이 駐屯하고 있던 곳은 上吹螺島였다. 五萬分之一 地圖에서야 찾아볼수 있는 이 無人島는 鎮南浦로 들어가는 廣梁灣의 한 가운데 있는 戰術的으로 봐서는 아주 요긴한 要衝이었다. 우리 遊擊軍이 그곳을 掌握하고 있으므로 해서 共產治下的 鎮南浦港은 大小船舶의 運航이 全的으로 制壓당하고 있는 것이었고 따라서 平南龍岡一帶의 敵 海岸砲는 間斷없이 우리 基地를 향해 砲擊을 가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一九五二年 가을 어느날——우리 基地와 鎮南浦港의 中間地點 上空에서 UN軍제이비 Z機와 공산군 MIG-15 사이에 熾烈한 空中戰이 벌어졌다. 맑게 개인 가을 하늘에서 몇들어지게 벌어진 이 空中戰을 신나게 바라보고 있는데 마침 우리 제이비 Z機가 밝은 必殺의 一擊이 MIG-15에 命中되어 敵機는 火焰을 뿜으며 바닷속으로 墜落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손뼉을 치며 歡呼聲을 올렸다.



땅에 백린채 먼지 물은 얼음들은 제각기 眼球속 에 하늘이 있음을 모르기에 저기에 떠도는 「아트발론」을 바라다보지 못한다.

무슨 소리라도 좋다. 그것은 「아트발론」이 터지는 소리.

腦室은 正體를 잃고 분산되어 사방으로 흩어져 어떤 조각은 月桂樹 가지에서 푸른 단장을 하고 어떤 조각은 高原 중턱에서 羊메를 지키는 피리소리가 되고 어떤 조각은 땅 위에서 깃들 곳을 잃고 헤매이다.

의솔기 줄에 걸리어 저울질되며 「아트발론」과 邂逅하기 위하여 旗를 내걸고 토파간다.

그런데 다음 瞬間、墜落하는 敵機 속에서 뛰어내린 共產軍 飛行士의 落 下傘이 활짝 피었다. 바람은 南西쪽 으로 상량 바람 불어오고, 그 파라스 투트는 바다위로 서서히 밀려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나는 精神이 바짝 들었다.

「發動船 出擊準備! 敵 飛行士를 生捕하자!!」

나의 命命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工 作船의 發動이 걸렸다. 바람의 速度 로 보아 敵 飛行士의 파라스투트는 필 경 우리 基地에서 五百야드 가량 되는 海上에 落下할 것이 분명했다. MIG 飛行士를 生捕한다는 이 絶 好의 찬스를 맞아 우리들의 가슴은 마 냥 부풀고 緊張했었다.

마라보니 敵 파라스투트는 陸地에 落 下하려고 무진 에를 쓰는 것이 여 여 하였다. 하늘에는 여전히 彼我 Z機 가 화려한 白線 飛行雲을 그리며 가 을 하늘을 翱翔하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高空에서 直下飛行해온 敵 MIG 二臺가 靶을 쏘는 매처럼 달

터들더니만 自己들의 同僚인 그 파 라슈트를 향해 미친듯이 機銃掃射를

해대는 것이었다. 敵軍 파라스투트는 순 식간에 불덩어리가 되었고, MIG 操 縱士는 一轉 直下 바다를 속이 곤두

박질해 떨어져 버렸다. 그 뿐만 아니었 다. 同僚 落下傘에 機銃掃射를 피우는

그 共產 Z機는 다시 한번 하늘을 旋回 하더니만 그 同僚가 빠져버린 바다의

泡沫을 向해 또 致命彈을 쏘아대는 것 이었다. 이렇게 共產主義者들의 그 非 情의 倫理를 역력히 日堵한 우리들은

요지음도 가끔 그 일을 回顧하면서 야

룩한 웃음을 머금은 때가 있다.

(筆者: 新太陽社 編輯長)

미사일의 역사



美國의 滑空爆彈

一九四三年中葉 미국의 보잉 B-17 五十四臺가 獨逸의 「케른」을 공격한적이 있었다. 이 폭격에 관해서 독일의 어느 신문은 다음과 같이 報道하였다.

『미국 폭격기에 의한 케른 폭격은 都市를 守備하는我方의 병렬한 對空砲火로 炸되였다. 그러나 두개의 垂直尾翼을 가진 高速 掩護戰闘

機 한대가 低空으로 침입해 왔다. 그리하여 우리 防空陣의 활약으로 全機 擊退하였으나 墜落된 비행기가 모두 크게 폭발하여 우리 쪽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는 틀리는 이야기였다. 독일이 참말로 그렇게 믿고 이와 같은 보도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때 미국은 B-17 폭격기에 두개의 GB1이라는 滑空爆彈을 積載하였던 것이다.

이 GB1의 主翼幅은 三·六미터이며 두개의 垂直尾翼을 가지고 있고 三·二키로미터의 射程距離를 자동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면서 目標까지 날라 갈수 있는 性能을 가지고 있었다. B-17은 목표지인 「케른」地域에 墜입하기 전에 미라이 GB1을 發射하고 나서 그곳을 飛하였다. 즉 병렬한 對空砲火로 炸된 것이었다. 이리하여 GB1은 「케른」市街地를 향해서 墜陸與否없이 그대로 地上에 落下하여 百八個의 滑空爆彈은 全部 폭발한 것이다.

미국에서 최초로 實戰用이 된 것은 아손이라는 것과 라손이라고 하는 無推進空對地 미사일이다.

아손으로 말하면 方向을 制禦할수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命名한 것이며 라손은 射程과 方向을 制禦할수 있다는 意味에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아손의 發射重量은 四五〇키로그램 인데 尾部에 불이 켜지도록 되어있고 無線受信機와 誘導裝置를 가지고 있었다. 爆擊手는 尾部의 불빛으로 位置를 確認하고 無電으로 遠隔操縱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이 不久인 實驗을 한 것은 비마戰線이었다. 百十發의 아손이 좁은 鐵橋들을 향해서 落下되어 병렬한 對空砲火가 울려서도 十五發이 直擊으로 命中하므로서 열 다섯개의 다리가 파괴되었다고 한다.

이 당시 美海軍에도 맞드라는 미사일이 있었는데 기리가 三·六미터 날개의 幅이 三미터되는 滑空爆彈이었다. 이것은 레이더를 사용해서 호우병으로 目標에 向하도록 設計되어 있었으며 發射前에 레이더의 發信機와 受信

機가 목표에 固定되는 것이다. 이것은 軍艦을 목표로 할 때는 상당히 有效한 것이었다.

물론 당시의 미사일은 오늘날의 그것과 비교할 때 信賴性이 저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사 實驗場 부근에는 爆彈投下用 實驗場보다도 훨씬 넓은 危險區域이 設치되어 있었다 한다.

爆擊이란 設使 目標照準을 그르쳤다 하더라도 發射된 다음에는 자인히 彈道를 그리면서 떠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方向이 틀리는 경우는 없는데 誘導 미사일은 자칫 잘못하면 어디에 떠러질지 알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뛰니 뛰니 해도 第二次大戰을 통틀어 미사일의 話題는 飄逸에서 구하지 않을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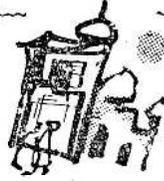
독일의 로켓 開發에 관해서 우리들이 최초로 接할수 있었던 것은 一九二九年代에 上映된 「月世界の女人」이라는 映畫였다.

이 映畫의 스토리는 月世界로 向하는 로켓計劃에 女性 한사람이 探險隊가 參加한다. 여러가지 疑懼와 불안으로 말세에 도착한 후 隊員들의 단결이 깨어져 몇몇사람이 죽어는 오지 歸國 炸藥裝置가 파괴되어 2명의 婦人 炸藥은 남은 수가 없게 되어 映畫의 주인공은 자가 남을 絶望을 한다. 그리하여 로켓트를 보내고 나서 洞窟로 들어가 갈려고 하는 그늘 여자도 문때 로켓트에서 빠져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두사람은 아무도 없는 荒涼한 달나라 사무위에에서 뜨거운 抱擁을 한다 고 하는 이야기 풀거리인데 이 영화

率先垂範

周永福



큰 일은 些少한 端
初를 究는 道.

大韓民國이 建國된
以來五·一六軍事革
命이 일어나 前夜에
이르기까지 自由와

民主主義라는 美名아래 累積되어 왔
던 腐敗와 不正은 비단 政治經濟外
交等의 對共鬭爭의 弱點은 만이
아니라 根本的인 國民各自의 精神面
에 이르기까지 極度로 墮落 弛緩시켜
놓았는 것이다.

眞正한 民主主義下에 있어서 國民
으로서의 權利享有도 重要하지만 아
우려 義務에 對한 忠實性을 培을 수
없는 것이다. 이면 而으로 보아 革命

將과 폰·부라운은 飢를 飢를 飢를
라고 A4에 關係하여 상세히 보고하
고 거우 생산해도 좋다는 諒解를 얻
었다. 그런데 그 직후 八月十六일에
英國長距離爆擊機 六〇〇架에 依한
폭격으로 研究施設이 파괴되는 은
명에 봉착하였다.

V1號의 런던攻擊

結局 獨逸의 長距離 미사일로서는
飛行機型의 V1號가 먼저 實用化
되었는데 그 V1號에 依한 런던 폭
격의 최초의 광경이 다음과 같이 전

課業 完遂의 길은 爲先 國家大計를 爲
斷行되어야 할 여러가지 改革中에
서도 가장 時急히 要請되는 것은 國民
各自의 精神革命이라 生覺한다.

軍人이라고 例外일 수는 없다. 오
리 革命主體로서의 우리들 軍人은 率
先 革命公約實踐에 垂範하여 國民精
神을 先導 促求해야 한다.

이러한 精神革命은 決코 먼곳에 있
는 것이 아니다. 些少한 우리의 日常生
活... 바로 우리의 周邊의 일들로 부
터 始作되는 것이다.

軍風紀를 嚴正히 하라 時間觀念을
徹底히 하라 節電 節水에 協力하라
浪費와 外來奢侈品 使用을 禁하라 等
모두가 우리의 日常生活에 關한 일들
로서 나는 麾下將兵에게 累次 이를 呼
訴하였고 또 率先 履行하였다.

革命前도 그러했지만 革命後에 있어
서 더욱이 出勤時間을 嚴守하고 每日
같이 아침 禮儀에 注意 시나자나 是
等 盲目的인 日課의 履行이 아니라 義
務를 率先垂範하고 난 다음의 快感을
해지고 있다.

一九四四年 六月十二日 밤 도마해峽
을 防空戰團機 모스키트로 哨戒하고
있던 영국공군의 마스쿠레이브中尉는
카레1쪽에서 불덩이 하나가 날아오는 것
을 발견하였다. 그 속도는 모스키트
와 거의 같고 모스키트의 右側을 스치
고 지나갔다. 이때 마스쿠레이브中尉
는 反轉해서 그것을 追擊하였다. 그
리하여 機銃으로 三發을 速射하였다. 그
총탄에 命中된 불덩어리는 大音響과
함께 폭발하여 바다에 떨어졌다.

그 다음날인 十三일에 날도 아직 밝
지 않은 午前四時 哨戒機에 의해서 도

前例없이 享有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精神革命을 뜻한다 주는
動機가 아닐까.

革命課業 遂行途上에 있어서 階級의
上下를 莫論하고 軍人의 率先垂範은
새로이 負荷된 하나의 貴重한 義務인
것이다.

[Kant]는 行爲區分 가운데 行하지
않으면 안되거 때문에 不得已 하는 行
爲와 하지 않고서는 못된다는 所謂 義
務感에서 發하는 行爲를 말하고 이 둘
은 모다 2外的 結果에 있어서 同一하
나 內的 信念에 따라 去가 전에 있어서
判異한 것이라고 하였다. 前者의 行爲가
義務에 따른 強制的이며 他律
的인 行爲에 對하여 後者는 自發的
의 行爲에서 나오는 自律的 行爲
라고 하였다.

우리의 率先垂範이 바로 이
自律的 行爲로 이루어질 때 根
本的인 精神革命은 쉽게 가
수 있을 것이다.

▲筆者·第十一戰飛團長



振動辨을 달고고 열리고 하였다. 그
릴때마다 크게 폭음이 들리기 때
문에 BUZZ BOMB 이라고 불리
었다.

V1號의 正式名稱은 FZG 67이
었다. V1號의 정식名稱은 FZG 67이
었다. V1號의 정식名稱은 FZG 67이
었다.

V1號의 연구는 一九四二年初
期에 케네디디에 있는 空軍研究所
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연구에 있
어서 가장 어려웠던 點은 無人機로
서의 비행 컨트롤과 適確한 發射制禦
같은 것이었다. 한때는 사람을 搭
乘시킨 시험도 있었다.

一九四二년 十二月 二十四일에는
최초의 無人機 V1이 발사되었다.
그때로부터 一年餘의 연구개발을
거쳐 量産이 시작된 것이다.

V1號는 上述한 바와 같이 파루스
·제트推進 中翼單葉의 비행기 모양
의 미사일이었다. 翼幅에는 여러가
지 變形이 있어 저온것은 四·九미
터, 온것은 九미터나 되었다. 全長
은 七·七미터, 爆藥은 七〇〇키로
그램, 燃料은 低級개소린으로 總重
량은 二·二톤 이었다. 目標까지의
誘導에는 地測航法이 取해졌다. 자
이므로 자체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高度計 磁氣羅針 등으로 正確히
高度와 方向을 취하게 하고 空程儀
로서 射程을 制禦하였다. 空程儀는
機體 비행에 따라 조그만 푸르펠라
가 돌아 그것을 計數器로 자동적으
로 계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豫定
回數만큼 信號가 들어오면 目標上空
에 도달한 것이 되어서 그때 昇降舵
가 急降下의 위치로 고정되어 V1

V1號라는 것은 推進方式은 파루
스·제트即間歇의 方式으로 폭발하는 제
트推進方式으로서 每秒에 四十七回씩

號는急降下로 들어간다는原理로 되어 있었다.

이 V1號의 속도는 每時 五〇〇
六〇〇키로미터 비행고도는 九〇〇
一、五〇〇이라는 低空으로 最
大射程이 二五〇키로미터 정도였다.
비행고도가 낮은 것과 속도가 느
린데서 V1號에 對한 對抗策은 비
교적 간단하였다.

영국은 템페스트, 스피트. 와이
아, 무스탕, 모스키프 같은 것을 모
아서 編成한 十六中隊의 防空戰團
隊를 第一線에 配置하고 海岸에는
二、二〇〇의 對空火器를 배치하였
으며 련陣周邊에는 약 二、〇〇〇개
의 阻塞氣球을 띄웠다. 이것들은 모
두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아
래도 비행고도는 낮고 속도는 느리
며 거기에다 사람이 搭乘하고 있지
않아 避難을 물으는 형편이고 보
니 제대로 對策만 講究한다면 그다
지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이리하
여 阻塞氣球은 二三九發의 V1號를
떨어뜨렸으며 戰團機도 一、八四七
發의 V1號를 擊墜하였다.

최후에는 北佛蘭西에 上陸한 聯合
軍이 V1號 發射基地의 대부분을
占領하여 發射를 불가능하게 하였는
데 그때까지 八、〇七〇發의 V1號
가 佛蘭西 占領地域 海岸에서 영구
東南部를 향해서 발사되었는데 약
半數가량이 도중에 擊墜되었었으며
도중에 고장이 나서 떨어졌 것도
고해서 련陣에 도달한 것은 약三分
의 일 정도였다. 이 V1號로 해서
련陣이 인는被害는 죽은 사람 五、
五〇〇명 建物倒塌 二三、〇〇〇을
헤어렸다. 이런가운데 련陣은 다시

금부靜한 상태가 찾아온 것 같았다.
九월七일 영국정부는 V1號의 基地가
대부분 占領되고 불안은 除去되었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때 두
일은 A4 즉 V2號의 준비를 완료하
고 있었던 것이다.

V 2號의 恐怖

V2號가 처음으로 련陣에 발사된
것은 공교롭게도 정부가 聲明을 발표
한 다음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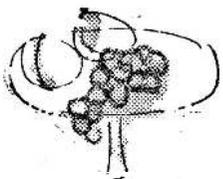
九월八일 오후六시四〇분 하늘에 점
불은 불덩어리가 나타나자마자 굉장
히 빠른속도로 降下하여 北三灣地
區에 落下하여 數十戶의 民을 燒
가 버렸다. 이것이 V2號에 의한 連
陣攻擊의 시초였다.

V2號의 속도는 音速의 약三倍나
되고 더구나 高度 九十六키로미터의
大氣圈밖에서 攻擊을 加해 오기 때문에
V1號에 대치했던 防禦法을 가치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唯一의
防禦策은 V2號의 發射基地나 製造工
場을 공격하여 V2號를 발사할 수 없
도록 만드는 것 뿐이었다.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독일의 연구
소나 공장 또는 組立工場에 대한 反
復爆撃, V2號 發射地點의 폭격, 그
리고 發射地點에 이르는 輸送路 破壞,
發射地點이나 集積地에 있는 V2號
破壞에 全力을 기울였다. 그뿐 아니라
V2號部隊 將校들이 들고 있는 호밀
도 掃射하는 등 천천히 해 갔다고 전해
진다.
그 당시 독일에서는 V2號를 하루
쓰산에 있는 노루도하우젠 近郊의 廢
坑이 된 監獄에 工場을 설치하고 地

어느 파이프릿의 便紙에서

K. S. K.



金下士, 오늘날도 暴炎이 如前하구
러. 모처럼만에 海邊에 나와서 소금
내음이 나는 바닷물의 靑靑한 蒸氣를
맡으니 사뭇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
소이다. 이마에 구슬땀방울을 뚝뚝
흘리며 유달리 더위를 잘 참는 S中
士도 오늘날같은 炎帝의 노여움엔
간히 당해 내기가 힘들었겠는데 機
體 밑에서 좀씩 땀투성이가 될 모습
이 눈에 선하오.
近一年만에 찾은 故郷이고 보니
休暇라고는 하나 처음 四·五日은 一
家 大小家人 事다 나느라고 눈코
물사이가 없었고, 더군다나 나이찬
근 아들에게 맞머주리감 맞선 피인
다고 東奔西走하지는 어머님 德分
날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이터저터 消
하여서 내러오는 길로 卽時 整備
班으로 便梯라도 피운다는 心思가
어긋나고 말았소이다.
오늘은 午前中을 邑內에 있는 母
校엘 들러서 教鞭을 잡고 있는 옛
學友들과 오랜만의 談笑로 보내고,
마을 넘어 있는 것가에 나와서 담을
줍 드리고 있는 中이요. 아득한 水

平線이 마치 滑走路와 連結된듯한
錯覺이 드는 데 거기같이 輻射熱이
없는 것 뿐이라고 느껴지기도 하는
군. 그리고 키 찢어지는 「엔진소
리와 離着陸의 爆音소리가 이렇게
조용한 것가에 들렸던지라 들려 오
는 것만 같으니 갑자기 職業을 잃어
버린 失職者처럼 空연히 閑暇한 생
각에 興이 들진 않는구먼. 자장 내
가 먼저 이렇게 후가를 왔다 고 해
서 남아 있는 동료들이나 整備班
員에 對하여 未安하다고 여겨져서
가 아니라 웬일인지 내가 너무나 조
용하고요속에 있기에 불현듯 雜音
들이 그리워졌는지도 모를 일이라 고
생각하오.
내가 떠날 때까지도 채 끝내지 못
하였던 재료 들은은 기술도서들은
한번 다 훑어 봤는지 궁금하군 이
더위에 「라인」에 나가야 日課後에
內務生活하랴 거름이 좀 처
럼 나진 않겠지만, 우리가
남의 손에서 만들어진 機械
들라고, 만지고, 고치는
以上 操作이나 補修의 細
密한 方法까지도 完全히 體
得하여야만 되지 않겠소?
金下士!
내가 지금 이렇게 파닥



下工場에서 生産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공장은 두개의 터널로 만드려져 있어 그것을 자기 약 270미터 떨어져 있었다. 그것을連結하는 通路도 小工場으로서 이용되었는데 여기서 A4의 1日 최대생산량은 十三發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영국군은 그렇고 V2號와 싸워서 이겼다. 런던에 대한 마지막 V2號 攻擊日은 一九四五年 三月二十七일이었다.

V2號는 그때까지 六,九一六發이 생산되었다. 런던을 목표로 하여 발사된 것이 一,一一〇發이며 그밖에 二,五〇〇發은 歐羅巴大陸內 여러 목표지에 퍼부어졌다.

런던에 퍼부어진 一,一一〇發 가운데 一,〇五〇發이 런던市 内外에 퍼져서 있었다. 발사되고 나머지는 훈련용이라던가 실험연구용으로 쓰여졌다. V2號에 의한被害는 죽은 사람이 二,〇〇〇名 이상이고 重傷者가 六,〇〇〇명 이상, 建物破壞는 數萬을 헤아렸다고 한다.

開發된 各種 미사일

페네톤디에도 聯合軍의 공격이 심해졌다. 一九四五년 1월 初旬에 이르러 페네톤디研究所에 退避命令이 내렸다. 도른벨가少將과 폰·부라는 聯合軍側에서 終戰을 맞을 결심을 하고 四월 하순경 西方으로 이동하여 바리야의 오벨요호에서 美軍에 投降하였다. 美軍은 終戰과 더불어 약 一〇〇發의 V2號의 部分品을 얻어 모스크바로 보내어 제네랄 엘렉트릭 會社에서 組立하였다. 그

리고 폰·부라온도 미국으로 건너가 이 작업을 지도하게 되었다. 이때 소련도 역시 수많은 독일의 미사일 기술을 搬出해 갔다. 그런데 그때까지의 것은 V1, V2의 기술뿐 아니라 미사일 진반에 걸친 것이었다. 그때 독일은 이미 各種 미사일 즉 地對空 혹은 空對空, 空對地 또는 多段式 로켓 등을 연구 개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第二次大戰中에 사용된 미사일도 V1, V2만은 아니었다.

一九四三年 九월 十四日 伊太利의 最新戰艦으로서 三五,〇〇〇톤이나 되는 「로-마」號가 불과 한대의 도우니에 DO217 폭격기에 의한 高度 六,四〇〇미터에서의 直擊彈에 맞아 擊沈된 것도 이 폭탄이 艦殼 H S 293이라는 滑空誘導 미사일이었기 때문이다. 왓사-팔이라는 地上에서 航空機를 향해서 쏘는 地對空 미사일도 있었다. 聯合軍의 對獨逸격이 치열해짐에 따라 공격병기로서의 미사일뿐 아니라 防禦用 미사일도 급속히 整備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독일로서는 제발리 四〇種 이상이나 되는 對空 미사일도 계획하였다. 그중에서 實用價치가 있었던 것은 네가져 뿐이었는데 엔제안, 슈밋테루링, 라인트호다, 왓사-팔이 그것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성능이 좋았던 것이 왓사-팔이었는데 소형의 V2號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술들도 모두가 바다를 건너 다룬다에서 開花를 보게 된 것이 페네톤디는 다시금 옛날과 같이 宗用的 漁村으로 돌아갔다.

次號에 繼續

가래라도 나와 있다니까 어디 무슨 무리의 여어는 處女라고도 같은 말을 붙여 놓았을 것이지요. 速斷은 絕對禁物이요. 오래 살아 내려오는 마을의 所開도 所開이 아니라 이럴 때 소공진구 제정애들은 이미 다 남의主婦가 된 것이지요. 요사히 같이 바쁜 때가 사절중. 다시 없는 이 고장이라서 暇暇한 그런 풍은 아예 어릴 때 없는 일인 것이지요. 農事가 발달도 일어난다와 數年來 이고 장 것마음에 豊漁期가 와서 아나미들까지 總動員되다싶이 하오. 하여 한차례 제방에 일어난 海軍連絡船도 두어번씩 돌리게 되고, 신장가에는 제방 무질한 안주를 장만하고來往客들을 유혹하고 있는 술집들이 생겨나서 주름잡혔던 이고 장漁夫들의 얼굴에 자못生氣가 돌고 있는 것 같소이다. 어서 어 조그마한 것가의 고장이거나 新興漁村으로서 發展되어 가난한 우리의 農漁民들이 기를 피고 再建에 나서야 하지 않겠소. 어제도 아마 서울에서 學生啓蒙隊가 와서 재소식과 더불어 새로운 힘을 불어 주어야 이고 장 사람들이 게척지 않아야 한다는 意慾에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것이

다시 내마음은 자꾸 우리 비행단의 「라인」쪽으로 내키고 있다는 것을 간주치 못하겠구나. 第三編隊의 R中尉의 얼굴, 恒常 樂天家이신 K大隊長님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는, 人間은 어떻게 그리워하며 살게 마련인가를 걱정하는. 그런데 왜 이 우리의 人間社會는 늘 無謀한 競争意識에서 서로 미워하고 핍박으로 서로 살아가는 것인지 알고 또 모를 일이라고 여겨지오.

金下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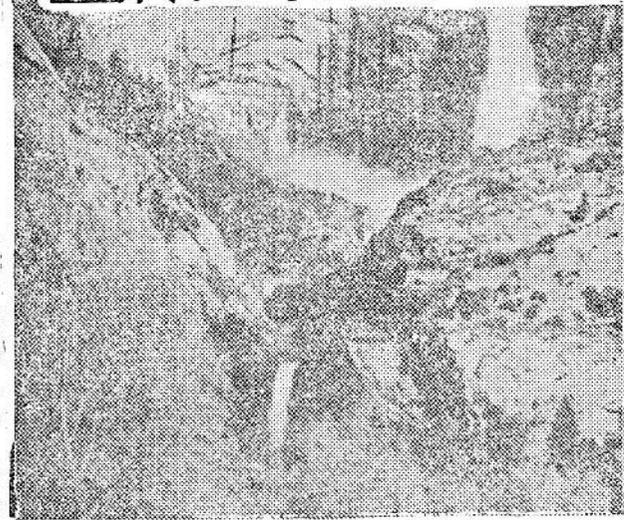
이렇게 무더운 老炎中이요 보니 어서 너를 너를 季節을 실어 주는 산을 바람에 물려서 「윈·웨이」그림에 다시는 좋은 코스모스들이 어서 피어나길 기다려나 보는 期待 속에서 외쳐할 自慰라도 가져보구려. 「조런」의 人工衛星 「보스 코프」 第2號가 地球의 열네몇마일을 돌아서 人類의 大氣圈 飛行能力에 새로운分野를 開拓하고도 全世界가 떠돌아다니는 2號의 衛星은 수작이 무슨宣傳을 구민들에게는 두고 볼 일이지 만 우리는 우리들이 한일이 따로 있으리 「吾不關焉」의 金下士 자네는 우리의 愛機를 타고 나사를 쏘이오, 나는 하루 하루의 「밋손」을 벗지게 해줘 버리는 것만이 우리들이 자랑이지 그리고 時急히 해야 할 일을 어니겠다는. 가드높고 빠른 하늘 바로 거기에 우리들의 꿈과理想이 영 켜진 獨舞臺가 있기에 마치 우리들은 한두의 수확을 滿載하고 歸港하는 고깃배처럼 한결 즐겁고 야망이 뻗기만 한 것이 아니겠는가.

金下士!

이때를 해선 해가 넘어가고 「라인」에는 하루의 마지막 더위가 똑똑 떨어진다. 오직지만 「캐노피·카바」를 덮고 마지막 點檢을 마치고 하루 비행은 끝내고 「워카」문을 꾸르르 있는 空地의 젊은이들의 등귀에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여져 가 있네. 앉았는가. 來日에 對한 우리들의 設計가 우리들 모두의 가슴 속에 아롱져서 그리지면서 저 구름 속을, 눈무름 蒼空을, 갈대밭 넘어의 저 활주로 끝을 우리들은 다냥 달리고 있지 않는가. 大隊의 여러 장교님들과 정비반 「버」엔지니어들이 에게 安否를 부각하면서 웃을 눈빛

(筆者: 空軍大尉)

요세미트의瀑布



사진은 요세미트의 폭포 (全長 780 미터)

그러면 다음의 驚異巡禮는 어디로 할까?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워싱턴州에는 레니어산(海拔四、三七〇미터인데 一八九九年 國立公園으로 指定됨)이 있다.
 이 산은 한편쪽에는 여러갈래의 氷河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高山植物의 꽃이 피는 미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名山의 하나이다.
 또한 켈리포니아州에 있는 세코이아公園에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巨木の 森林이 있다. 이 나무들은 모두가 높이가 九十미터 이상이나 되며 三千年이나 묵은 것들이다.

그러나 太平洋 沿岸의 驚異 가운데는 아무래도 요세미트峽谷의 제일일 것이다. 요세미트는 켈리포니아에서 三百二十키로 밖에는 안떨어져 있다.
 白人들은 一八五一年, 즉 미국의 南北戰爭이 일어나기 十年前까지도 아무도 요세미트의 存在를 알지 못하였다.
 이 峽谷은 세라·파바다山脈의 心臟部에 잠추어져 있어 그 비밀은 山頂이나 峽谷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디언들은 알고 있었다. 數世紀동안이나 그들은 一·六키로나 되는 壁처럼 솟아있는

斷涯에서 전혀 俗世와 隔離된 이 神秘로운 峽谷에서 생활을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 오리건동의 泰平한 생활도 一八一五年에 이르러 終止符를 찍지 않으면 안 되었다. 즉 이보다 二年前인 一八四九年에 켈리포니아에서 많은 金鑛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一攫千金을 꿈꾸어 이제까지의 職業들을 버리고 牛車나 포장마차를 타고 大陸을 橫斷하여 너도나도 黃金을 찾아 왔다.
 이 사람들은 제 자신들만을 생각하여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의 행복이나 생활상은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虐待하였으니 鳥獸를 殺戮하고 魚類를 全滅시켜 버렸다. 인디언들은 白人들과 싸워서 敗할라치면 夜陰을 타서 白人들을 奇襲하여 虐殺하는 한편 통나무로 지은 오두막집에 불을 지르고는 산속 깊숙이 도망치곤 하였다.
 이러한 인디언들을 골려주기 위해서 一八五一年三月 제임스·사베이지少領 指揮下에 白人 義勇隊가 組織되어 눈에 덮인 좁은 길을 따라 進擊을 開始하였다. 어길로 말하면 敵地로 통하는 길로서 이제까지 白人은 누구하나 가본 일이 없는 곳이었다.
 그들이 가는 길은 길은 森林속

을 이리저리 꾸물어져 있었는데 突然 斷涯絶壁에 부딪혔던 것이다. 사베이지少領은 部隊 先頭에 있었는데 이 거창한 斷涯를 바라보는 사이에 인디언을 追擊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는 森林이나 牧草地로 뒤덮여 있으며 아무리 적은 나무라도 생겨날 餘地가 없을만큼 반들반들하게 치솟아 있고 몇백미터나 되는 塔과 같이 생긴 바위나 斷崖로 둘러쌓인 산속에 想像할 수조차 없는 큰 溪谷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까지 누구도 보지 못하였을 만큼 큰 폭포가 絶壁 꼭대기에서 溪谷아래로 쏟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사베이지少領이 서 있는 옆을 흘리고 있는 江물은 奔流가 되어 斷涯 밑으로 흘러 거이 나아가가라 瀑布를 너댓개 합친 것만한 높이는 폭포가 되어 百八十里나 되는 溪谷아래로 쏟아져 내려가고 있었다. 瀑布水는 아래로 떠러지는 동안에 자욱한 안개로 變하여 아래에 있는 岩石에 흰 장막이 펼쳐지니 이와 같은 壯觀의 「新婦의 베일」이라는 別名을 갖게 하였다.
 少領은 部下를 거느리고 급한 걸음으로 험한 小路를 내려와 溪谷의 바닥까지 가서 灰色으로 물들어진 對岸의 花崗岩 層岩絶壁

올바라 보았다. 그것은 九百미터나 되는 높이였으며 表面은 번들번들 하여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이絕壁은 거창하게 하늘높이 치솟아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이름을 『隊長』이라고命名하였다.

이때 溪谷 위쪽에서 무서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흡사히 大砲를 쏘는 소리와 같았다. 이 소리를 確認하기 위하여 몇사람의 斥候를 내보냈다. 그들은 나무사이를 注意깊게 헤쳐 나가면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瀑布가 쏟아지는 소리였던 것이다. 더구나 그것은 참으로 거창한 瀑布였던 것이다. 그들 머리 위實로 七百八十미터 높이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다. 여터분은 나아가가라의 十六倍나 높은 瀑布를 상상할 수 있었는가? 그런 거창한 폭포가 어찌 있었느냐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베이지少領도 그때部下들의 報告를 들었을때 그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진실한 사실이였다. 사베이지少領은 일몰에 불거품을 뒤집어 쓰면서 물소리를 듣고 바위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地上最高의 가장 壯大한 瀑布를 볼수가 있었던 것이나.

그러나 처음에는 너무 瀑布에 가까이 다가서있던 관계로 그들은 이 놀라운 폭포가 一段만으로 落下하고 있지 않음을 알지 못하였는데 한참만에야 그것은 三段으로 되어 溪谷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第一段 폭포는 四百五十미터나 되는 것으로 「新婦의 베일」이라 불리우는 폭포를 들 합친것 보다도 높은 것이였다. 第二段은 二百四十미터 第三段은 怒濤와도 같이 急流로 되어 九十미터 높이에서

落下하고 있다. 探檢者들은 이들 瀑布에 驚嘆하면서 더욱 秘境 깊숙히 찾아 들어갔다. 그때 유달리 하늘 높이 솟은 山頂이 보였다. 山頂은 커이 一·六키로나 되며 깎아 세운듯한 岩山으로 돔(DOME)——둥근 지붕——을 반으로 쪼개것 같은 모양을 하고 담벼락 처럼 솟아 있는 側面은 溪谷쪽으로 향해 있었나.

兵士들 가운데는 이 奇妙한 半圓形의 山이 폭포보다 더 근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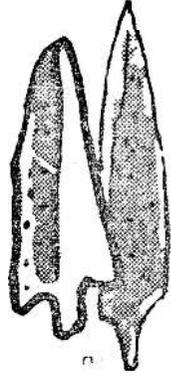
밤이 되어도 一行은 한사람의 인디안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다시 베키의 또다른 폭포를 발견하였다. 모두가 九十미터에서 百八十미터의 높이가 되는 것이였다. 또한 굵기가 九미터나 되는 老樹도 발견하였다. 그들은 自然의 神이 만든 秘密의 寶庫 요세미트를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비할데 없이 멋있는 峽谷을 이 세상에 알린 것이다.

그들이 발견한 것들은 오늘날에 와서도 그 진부를 볼수가 있다. 나무나 돌이나 그밖에 모든 것이 거의 그 당시와 다름이 없는 것이나.

한글의 優秀性

—科學的인 觀察에서—

李 崇 寧



一, 序

國語나 「한글」을 評價하는 態度도 絶對 달라지고 있다. 已未運動 卽後는 獨立運動과 함께 韓國의 것이면 無條件 優秀한 것으로 誘導하는 態度가 大體로 그것의 國民의 士氣를 들이고 愛國心에 불을 지르는 구실도 한 것이다. 그래서 學者들도 啓蒙

에 있어서 「世界第一」이 아니면 「倍達民族의 優秀」를 부르짖었고 熱狂的인 愛國心에서 모든 問題를 處理했기 로 지금도면 지나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勿論 이것은 그 時代性에서 理解가 되며 植民地 生活의 國民의 劣等意識을 植어주는 方法으로 不可避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오늘날 二十世紀 後半期에 더구나 宇宙科

學時代니 하는 이 마당에서 科學性을 잃은 感情論에서 일을 解釋하고 處理한다는 것은 이미 時代가 許容할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時代에 著한 學者나 그 時代의 思考法을 지나고 있는 一部份人士들은 아직 舊世代의 思考法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國語」나 「한글」問題에 關한限 다는 어떠한 部門으로도 비 科學的인 것을 認

이 유명한 峽谷을 찾아 들어갈려면 먼저 좁은 입구에 도착하게 된다. 거기에는 守衛가 있어 우리들을 일단 制止하고 교양이나

定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筆者는 일찍이 이런 思考法의 轉換을主張한 것인데 여기「한글」을 中心으로 그一端을 피력한다.

二、訓民正音과 世宗大王

前日の 世宗大王이 무슨 理由로 是 動機로 訓民正音을 制定했는가에 여러 區區한 推測이 있었다.

(a) 「民族의 自覺으로 文化的으로 中國支配에서 獨立하려고 한 것」이라고. 이것이 가장 強調되고 있지만 勿論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推測은 當然 反面 너무나도 漠然하고 訓民正音制定과 具體的인 連絡을 마련하기에는 多少의 無理가 있다.

(b) 「外國人의 來朝로 外國文字가 influx을 일으키고 그의 刺戟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것은 더구나 困難한 推測이다. 世宗以前에 外國文字의 內容은 이미 알고 있었는 데 세삼스러이 世宗時代의 外國文字云云은 너무나 不合理한 이야기이다. 그러면 世宗大王이 訓民正音을 制定하게 된 데에는 여러 理由가 있는데 우선 다음에 一一이 例示해 보겠다.

(1) 世宗大王은 文化 또는 學問에 理解가 깊은 王으로서 많은 事業을 했는데 그 중 지금의「아카베미」단集賢殿의 制度를 擴張하고 秀才를 모아 學士로 만들고 다시 없이 活綴시킨 것이어서 研究業績의 發表와 著作物의 出版等 또는 研究生活의 物的 後援等 現代의 文化施策을 이리 五百年前에 實踐한 놀라운 名君이었다. 그리하여 萬事는 여기

서 進行되며 世宗은「아이디어」의 提供者의 位置에 있던 것이다.

(2) 中國은 그때 明나라가 文化的 建設에 成果를 올린 것인데 그 言語統一이(漢字音整理 및統一) 進行되고 表面上 成功된 時代이었다. 그것이 바로「洪武正韻」이란 十六卷의 巨帙로 出版된 것이다. 元나라 때에 北方音을 썼기로 南北方言音의 混亂으로 이것을 統一하느라고 여러 學者를 모아 研究한 것인데 이것이 韓國에도 영향을 끼치고 刺戟을 준 것이니 世宗이 가장 關心이 컸던 課題가 된다.

(3) 世宗大王은 奇異하게도 中國의「韻學」에 깊은 研究를 가지고 있었다.「韻學」이란 것은 漢字音의 學問이어서 時代的 發達 體系의 變化字音의 分類等을 研究하는 것인데 世宗은 이런 것을 研究하여 當時의 大家이었다. 世宗은 이미 發音學者로 言語學者이었다 하겠다. 이것이 訓民正音을 만들게 한 가장 큰 理由가 되는 것이다. 世宗의 韻學은 申叔舟에게 指示할 程度이었으며 그것은 卓越한 것이었다. 때로 世宗의 自信滿滿한 言辭가 동겨져 나을 程度이었다.

(4) 世宗은 韓國에서도 明의「洪武正韻」과 같이 漢字音의 大改革을 거둬내려서 世宗은「訓民正音」을 아나라「洪武正韻」과 같은「東國正韻」이란 漢字音改革의 企圖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世宗과 申叔舟以下 集賢殿學者는 漢字音 또는 國語問題를 正確히 그리고 熱心히 研究하고 나설 것이다. 그러나 世宗은 佛敎 援助問題로 儒臣들의 猛烈한 反對가 부닥터서 苦生한 나머지 이제 是 儒臣의 是非를 避하려고 했던 것이 이터한 言語問題

도 거의 秘密과도 같이 進行시키고 實質的인 成果爲主의 態度를 보였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訓民正音 즉「한글」의 制定은 時代性의 考慮에서 깊은 研究와 慎重한 態度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음에 이를 具體的으로 따져 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考察의 態度에서 비로써「한글」이 正確히 理解될 것이라고 하겠다.

三、「한글」의 科學性

앞에 言及한 것 같이 깊은 研究 끝에 이루어진「한글」은 文學制定史에 二 類例가 없을 程度로 優秀하고 科學的인 長點을 가지고 있다.

(1) 母音論

訓民正音當時에는 中聲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오늘날 母音이라고 부른다.當時에는 七母音組織인데「對立」의 體系란 原理를 잘 나타내고 있다.

- (一).....하늘을 象徵한 것.
- (二).....땅을 象徵한 것.
- (三).....點이 위에 놓였다.
- (四).....點이 아래에 놓였다.
- (五).....點이 밖에 놓였다.
- (六).....點이 안에 놓였다.
- (七).....이것은 字이 없는 孤立의 母音이다.

이렇게 對立으로 字形을 꾸며 놓은 것은 世宗以下의 宋學의 哲學을 利用한 것이요 또 國語의 言語事實을 잘 把握한 까닭이다. 이것은 四百年 뒤인 歐羅巴에서 心理學을 言語學에 導入한 言語學派(프라이프言語學團)의 學者들이 主張한 것인데 音韻對立(Opposition phonologique)이란 原理가 그것이다.

개를 데리고 오지 않았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다 아는바와 마찬가지로 요세미트는 國立公園에서 野性의 새나 짐승이 保護되어서 獵마리의 새들이 페를 지어도 여르고 사슴페들은 사람을 보아도 놀라 다라나지 않고 길바닥에서 성대고 있다. 만약에 고양이 새를 죽인다든지 개가 사슴들한테 덤벼들든지 하면 야단이기 때문에 이 地帶에 고양이나 개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엄금하는 것이다.

덜어 놀르는 것 같은 바위와 바위 사이의 樹木 籐蓆를 쫓고 나가는 鹿들인 앞이 탁 더져서 湖畔 廣場에 나선다. 그곳은 기왕에 사슴이 지少領一行이 캅트를 찢던 곳이다.「일·행진」- 隊長- 목포는 번들번들한 岩面을 타고 올라가 버퍼 쪽에는「新婦의 베일」목포가 부드럽고도 조용하게 搖動하며 흡사히 노매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百八十미터의 斷崖에서 안개의 장막을 피고 있다. 그리고 그 바로 머리위에서 평창하고도 이상한 지少領도 들은 소리인데 우리들은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고 있다. 車道の 모퉁이를 돌아서 세계 최고의 목포에 直面한다. 첫째 목포는 七百八十미터나 되는 위에서 落下하여 물거품은 희고 큰 羽毛와 같이 되어 바위 언저리에 飛

이것을 五百年前에 世宗과 그集賢殿學士들이 發見한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事實이다. 앞서서 言語事實이니 하고 말했지만 國語에서는 다 음과 같이 나타낸다.

나(我) - 니(汝)
남다(餘殘) - 녀다(淫)
짜다(翹) - 꺾다(折)
로브렘다(軟) - 부드렘다(柔)
졸다(縮) - 줄다.

이러한 事實을 그대로 母音 위에 適用시켜 字形의 對立을 구민 것이니 참으로 놀라운 바이다.

또 發音의 說明에서도 「희(舌)가 오 무리진다」「저진다」 또는 소리를 「深淺」으로 나눈 것 등 다 現代科學 大대로이다. 소리의 深淺만 해도 다 음과 같음이 西歐의 音響學의 公式이다.

<u> (低) 이 것은 振動的의 周波數의 多少에서 소리의 高低 알
<o> 음이 決定되는 것인데 訓
<a> 民正音에서 「이」音은 「소 리가 알다」나 「합은 機械
<e> 實驗도 없이 感覺 하나로
(高) 規定한 것이다.

子音은 「初聲」 또는 「終聲」이라고 했는데 그 體系는 中國式 體系의 그대로이었지만 字形으로 이를 나타내려고 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리하여 「ㄱ」의 激音이나 「ㄷ」의 硬音의 그대로 字形에서 區別되도록 되었으니 制定者의 態度 참으로 놀라마져 않는다. 그러나

中國 體系의 模倣에서 無理가 생긴 것도 事實이나 여기 例示한 것까지는 없을 듯하다. 그리고 옛날의 綴字法은 一字一字가 그대로 音節의 單位가 되고 그 音節境界가 나타나 있어 오늘날 사람들 中에는 그들이 「綴字法」을 모르느니라 하고 마구 評하는 것을 보는 데 틀린 일이다. (<音節境界>
불<귀><기><근><남><근><뵈><부><루><메><아><나><니><말><췌><우>
(부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이는 까닭에)
여기서 「깊은」이라고 하면 音節境界와 混亂되나 「기<근><근><하」면 音節境界가 明示된 것이다. 그들은 「스, 드」란 聲을 잘 區別하고 있어 오늘날의 우리 聲각으로 評할 것은 아니다.

갓(皮) (花) (色) (外) (池) (畫) (標)
갓(笠) (所) (債) (田) (釘) (筒) (柱)
간(笠) (所) (債) (田) (釘) (筒) (柱)
이렇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 머리를 가지고 마구 評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다. 다음과 같은 綴字法도 잘 지켜진 것이다.

늘에(歌) 물에(沙) 달아(달아 났) 술취(車) 이렇게 「르」를 취해 올리는 態度도 참으로 正確한 것이었으니 놀라운 態度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오직 中期에 돌아 보지 않으므로 發達하지 못했을 따름이다. 「사」인 「도」 어느 規定 아래 잘 지켜졌던 것이다.
兄 7 뵈 () 0 + 7)
那 5 字 (0 + 0 + 0)
太子 位 (0 + 0 + 0)

이것도 冊에 따라 다 훌륭한 理由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綴字法에도 큰 關心을 가져왔다고 짐작된다. 이러한 態度를 이어받지 못한 子孫들이 딱한 것이 아닐까 한다.

四、結語

「한글」이 文字로서 優秀한 것은 勿論이다. 外國 사람도 그 合理性과 簡潔性을 特徵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國內學者들은 이것을 外國의 잘 宣傳하지 못하고 있어 最近 佛國版 「文字學」의 著書에서 「한글」이 빠져 있음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것을 알기 쉽게 宣傳할 것과 外國의 「한글」研究者가 많이 늘어 가야 하는 것이다. 昨年에 筆者가 「필리핀」歷史學의 大會에 나가게 된 것은 臺北市에서 열린 韓中日三國學者의 會合이 있었기로서 기에 參加했다가 그 공에 간 것이다. 그래서 歷史學家 아닌 筆者는 맞지 않는 大會이었지만 以上 「한글」의 宣傳中心의 課題를 들고 發表를 한 터이다. 그래서 「對立의 原理」의 說明에 이르러 모두 그 原理에 感銘한 듯이 느껴졌다. 그러므로 이런 簡單한 事實도 자주 宣傳해야 하지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며 흔히 「貴國은 中國語를 使用한다」까 式 質問에 우리의 反省이론 바 있다.

그러나 「한글」이 世界第一이라느니 國語가 世界第一이라느니 하는 소리는 아예 말아 주기 바란다. 言語나 文字가 世界第一이란 評價의 基準도 없거니와 그런 소리를 하면 언젠지 敎養과 常識을 疑心 받을 것이다. 國語가 世界第一이 되려면 文化가 發展하고 國語가 大文學語가 되어야 한다. 그때야

散하며 三段階의 폭포는 더 한층 소리가 요란하고 물안개를 뿜으며 우리들 오른쪽에 아름다운 무지개 다리를 놓는다.

飛散하는 물거품과 처창한 石壁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羽毛와 같은 폭포안개에 바람이 불어 風向에 따라 左右로 커다란 曲線을 그리고 바위 사이를 휘둘러는 것 같은 굉장한 소리를 내면서 斷涯에서 쏟아져 내려온다.

나는 언젠가 한번 이 폭포가 상머리까지 기어올라가 바위에 얼드러져 落下하는 폭포물을 쫓아 아래를 내려다본 적이 있다. 폭포는 四百五十미터의 골짜기 아래로 퍼져지기전에 바람으로 해서가 무처럼 부서지고 또 바위에 부딪쳐 내려가는 轟音은 아래서 들리는 것보다 훨씬 거창하게 들리며 소름이 끼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半月形의 山頂으로 올라가 보기로 하자! 사베이지少領과 그 一行이 요새 미르를 발견하고 二十五年間 사람들이 저 등근 지붕을 받으로 쪼갠 것 같은 山頂을 올라가 보려고 하였으나 너무나 험준하고 거기다 바람이나 눈에 찌터서 반들반들하기 때문에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었다. 다람쥐들이나 올라갈 수 있어서 이들 작은 동물은 山頂에서 행복할 날을 보내고 사람들이 올라오다가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을

國語가 權威을 가져는 것이다. 文學作品이 世界的으로 紹介되오우리 文化를 研究하려고 外國인들이 다 무어 한글工夫로 달겨들 때에 비로소 國語는 무게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아무 作品도 내놓지 않고 「한

嘲笑하였다.

그러나 一八七五年 스코트랜드 胎生의 앤더슨大尉가 이 頂上을 征服하여 쏘켈포니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가 혼자서 이 山頂을 올라갔다 해도 누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몇몇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위 龜裂에 쇠뿔을 박고 또 그 위에 쇠뿔을 박고 해서 그것을 의지하여 조금씩 올라가 드디어 마지막 三百미터까지 다 올라가 頂上의 圓扁한 데까지 올라갔다.

그 다음부터 다람쥐들에게는 그렇게 평정한 세월이 못되었다. 앤더슨大尉가 사용한 쇠뿔은 말 전하여 階段을 만들게 되고 오늘날에는 와서는 그 階段에 손잡이로 쓰이는 鋼鐵 밧줄이 양쪽으로 쳐 있다. 이 손잡이는 登山者들을 끌어 올리고 미끄러지기 쉬운 岩面에서 발을 헛디디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三百미터나 되는 階段을 올라가는 것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멧이는 스틸

「한」은 世界第一이라고 하면 남의 웃을 을 살 것이다. 오직 「한글」(文字)가 가진 科學的 原理 같은 것과 그 合理性을 外國人에게 主張 宣傳하는 當面한 일일 것이다. 우선 우리는 文學作品의 좋은 것을 내

에 찬 모험이다. 여러분은 라바솔 신발을 신고 있는가? 이 등산에는 그 신발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여러분은 말을 탈 줄 아는가? 카브가진 斷崖 아래까지 약 십삼키로의 산길을 말을 타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마지막 노력을 기우리게 된다. 거이 垂直의 階段을 케이블을 의지해서 올라간다. 처음에는 팔이 미끄러져 내린다. 그러나 階段이 있는 덕분에 오아주 아래로 퍼터질 염려는 없다. 이 미끄러지기 쉬운 험준한 山頂이 인디언이거나 白人이거나 모든 사람들 올래동안 올라오지 못하게 한 까닭을 잘 알 수 있다. 케이블이나 階段이 없었다면 불과 삼미터도 위로 올라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걸 앤더슨大尉에 無言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올라가는 동안에 치켜쳐 팔이 아프고 케이블에 손이 까진다. 그러나 높이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灣曲이 심하지 않아서 거이 편편하다고 생각할 때는 벌써 거기는 頂

어 世界의 人氣를 이끌므로 國語가 大文學語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國語自體가 權威을 가지려고 노력할 수는 없는 것이다. (筆者·文禮 서울大文理大教授)

상인 것이다.

여기는 海拔二千七百미터 溪谷 바닥에서 一千五百미터나 된다. 絶頂에서 튀어나온 바위는 반쪽으로 잘라진 六百米터의 斷崖 위에서 덮여져온 것 같이 매달려 있다. 그 위에 올라앉아 아래를 내려다 보면 흡사히 창공을 날고 있는 느림이 든다. 저 세끄러운 폭포소리도 여기서는 속삭이는 소리만큼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一·六키로나 아래에 있는 森林은 흡사히 부드러운 綠色 꽃이불과 같다. 눈에 덮인 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솟아 있고 빛나는 溪谷은 발아래 퍼져 있다. 우리들은 그때서야 사베이지少領이 인디언들을 追擊하던 끝에 山頂과 폭포가 감추어져 있는 別天地에 마주쳐서 어떠한 느낌을 가졌던가를 알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인디언들이 이 험준한 狩獵地에서 荒野로 내쫓겨 요세미트에 의 鄉愁를 가슴에 잔지한 채 죽어간 그 심정을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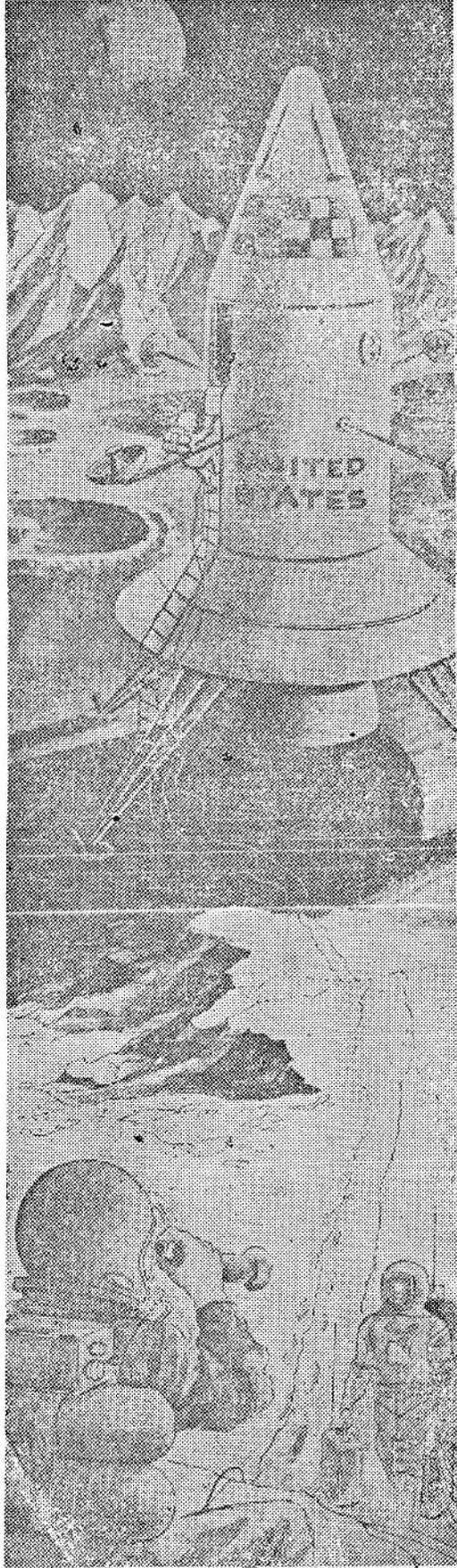
(譯者註) — 하러바튼은 세계의 폭포를 합쳐서 요세미트의 폭포는 世界最高라고 하였으나 일반적으로는 세계 가운데 가장 높은 「新婦의 베일」 폭포를 가지고 요세미트의 폭포라고 한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一九三七年에 미국 군인 지미·엔젤이 베젤라의 장을에서 발견한 「엔젤瀑布」(九百九十里)가 名實共히 세계 최고의 폭포이며 다음은 같은 베네젤라의 「구케담瀑布」(六百미터) 第三位는 뉴-지랜드의 「사우사렌드瀑布」(五百七十六미터) 第四位는 남아프리카의 「쓰케라瀑布」(五百四十미터) 五位가 요세미트瀑布(五百二十미터)로 되어 있다.

뉴-토과 老嫗 萬有引力의 法則으로서 有名한 뉴-톤(一六四二—一七二七)이 살던 집은 지금도 런던의 레스터廣場 남쪽에 있어 그의 實驗室을 揚景하려고 오는 사람이 끊임없이 가 없는 데 그가 生存時 別집에 살고 있던 老嫗가 뉴-톤의 집을 찾아온 王立學會會員에게 「차말열심양반은 미리가 좀 들었나 봐요, 매일 아침 햇빛이 내리 쏘이는 데서 비누거품을 가득 풀은 대야 앞에 앉아서 파이프로 거품을 뚫고서는 그것이 破裂하는 것을 잔뜩 노려보고 있었나 말입니까. 이 위에서 좀 드러나 보세요!」 이 말을 듣고 그 후로는 二층으로 올라가 내려다 보나 과연 뉴-톤은 비누거품 表面에 어떤 담겨 나타나지는 열은 膜으로 光의 屈折을 일으키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었다.

달나라로 가는 길

不遠實行될
美國의

달나라旅行計劃



月世界旅行의 어려움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고 다시 地球로 무사히 歸還시킨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까닭은 단순히 달나라까지의 거리가 地球直徑의 三〇倍나 된다. 遠距離 때문에 그런것은 아니다. 달은 다만 지구의 한개 衛星에 지나지 않는 것이나, 실은 地球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相違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구에서 달을 향해 物體를 發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행하는 사이에 달은 언제까지나 固定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에서 發射된 物體와 달과 지구 이런것들의 位置의 관계는 대단히 복잡한 것으로 지구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거리가 位置의 算出方法으로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자세히 解說하자면

빛깔의 색이 될것인데 지구와 달과의 관계는 아무래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달할 여지도 없이 지구는 태양의 周圍를 三六五·二六日로서一周한다. 이것을 公轉이라고 하는데 지구도 自體는 하루에一回 自轉한다. 이와같은 지구의 周圍를 달이 역시 自轉하면서 公轉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상의 어느 固定된 一點에서 본다고 하면 처음 보는 달에서 다음 의 새로운 달을 보기까지의 期間은 二九·五三日인데 그동안에 地球는 一公轉 三六五·二六日로 태양의 주위를 돌기 때문에 달의 實際公轉은 29.53 만큼 觀測된 公轉보다 적은 것이 된다. 29.53日 + (1 + 29.53) = 27.32日이 된다.

元曉大師와 胡覓 — 元曉大師가 學僧인 때 僧徒와 唐나라 留學을 떠났다. 唐나라 서울인 長安을 앞두고 風餐露宿을 해오던 元曉一行은 그날 밤 어떤 共同墓地에서 冥을 세웠다. 밤중에 목이 마른 元曉는 가까운 井까지 가서 물을 마시고 그 물을 마시는데 이틀만 아침 同行과 함께 그 井을 찾아가 보니 井은 僧이었으나 井물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었다. 同行한 僧은 僧徒는 井水を 하고 물 을 마시지 않았으나 元曉는 물을 마 시고는 「아, 그 물맛이 꿀맛이구나.」 하고 혀를 웃고는 「이 물로써 나는 목을 축이고 달게 해갈됐다. 生死有無가 모두 無常한 것이로다.」 하고 元曉는 여기서 人乃天이라는 佛道의 眞理를 깨달았다. 人間이 바 로 하늘이요 神이요 부처라는 佛敎 觀이다.

그런데 달은 지구처럼 自轉한다. 달이 自轉하는 시간은 公轉과 같아서 二七·三二日인 것이다. 이것은 흡사 히 우리들이 운동장을 한바퀴 돌 때 언저나 上半身이 트렸크 안쪽으로 기울러지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달의 지구축을 향해 있는 면은 언저나 같아서 反對側 面은 지구 상에서는 영원히 바라다 볼수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性質의 遊星으로서 는 太陽系에서는 水星이 있다. 水星 은 태양 둘레를 八八日로 公轉하는 문제다. 水星의 一回만 自轉한다. 그래서 水星의 태양을 향해 있는 쪽은 언제나 四二〇度라는 度위로서 영원 히 낮인데 그 반대쪽 面은 영원히 밤 일뿐 아니라 零下二〇〇度以下나 되는 酷寒이 계속되는 것이다.

있겠는가. 元曉는 長安에 들어갈 것을 斷念하고 歸國해버렸다. 眞理를 깨달 은 元曉는 萬里 길을 千辛萬苦로 찾아 왔으나 眼前에 든 長安은 所用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元曉大師의 人間本位 佛道眞理는 여기서 새겨졌다.

아비지와 아들 — 石油王 존· 루 펠라가 위생동에 있는 원다드·호텔 에 投宿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案内 員에게 가장선 방을 달라고 말하였 다. 이 말을 들은 案内員은 「그렇지만 룩셀라님.....」 이렇게 못마땅한 語調로 말하였다. 「아드님이 여기서 留宿하신다는 게 인 좋은 방을 드시는데요.」 그 말을 듣고 룩펠라는 이렇게 말하 였다. 「아닐세 아들에게는 돈 많은 아버지 가 있네 그러나 나는 그러한 惠澤이 없네.」

그러나 달의 경우에 있어서는 水星 과 같이 밤낮이 向面에 따라서 一定 한 일은 없다. 지구에서 바라다 볼수 없는 쪽에도 밤과 낮이 交代로 찾아 온다. 그런데 이같은 변화는 지구와 같이 알맞게 半日씩으로는 될 수 없다. 달은 二七·三二日로一回 公轉 과 自轉을 하기 때문에 달 表面의 낮 은 十四日이나 계속되고 밤도 또한 약 十四日 계속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變動的으로 晝夜의 區別 이 있는 것과 太陽光線을 적당히 緩衝할수 있는 大氣도 없기 때문에 낮 이 계속되는 十四日間은 一〇〇度이 상의 猛暑가 계속되는가 하면 다음에 오는 十四日間은 밤과 더불어 零下 五〇度이하의 酷寒이 닥치는 것이다. 이러한 條件에서 본래 지구는 우리 사 람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살기 좋은 조 건에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잔단하나마 지구 와 달과 그리고 태양이 세계의 天體 사이에介在하는 複雜한 관계를 설명 하였는데 아무래도 지구상에서와 같 이 東西南北같은 方向觀念이 通用되 지 않는 宇宙空間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달은 비교 적 가까이 있으면서도 먼 존재임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독일 의 폰·부라우博士같은 사람은 달나 라에 가기가 보다 火星을 가는 것이 로 케트 軌道計算에서 볼때는 훨씬 용이 하다고 말하고 있어 우주여행은 단순 히 거기만으로서 쉽고 어려움을 판단 할수는 없는 것이다.

十五日 上下兩院 合同會議에서 미국 은 앞으로 十年以内에 사람을 宇宙船 에 태워 달나라로 보내고 다시 지구 에 歸還시키는 計劃을 明白히 하였다. 有人 달 로케트를 실험시킨다고 하는 케네디 대통령의 결의는 이제까지 散漫하였던 미국의 宇宙計劃 全體의 방 향을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집중시키 러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意義가 있는 것이다.

월에 挑戰하는 美國

미국의 케네디大統領은 지난五月二

케네디 대통령 미국의 宇宙開發 노력을 가인중 기우러려는 것은 물론 이고 人工衛星 分野에서 蘇聯에 뒤졌 다는 論議도 있고 하여 미국의 威信 을 恢復하려는 意圖가 있음도 사실이 라 하겠다. 有人로케트의開發을 포 함해서 달에 사람을 보내는것을 목표 로 하는 月世界 旅行計劃 全體의 費用은 向後 五年에 九〇億弗 정도가 들 고 實現까지에는 二〇〇億弗 내지 四〇〇億弗이나 걸린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많은 돈이 든다는 바람에 미국의 일부 知識層들은 그만한 돈이 라면 月世界旅行이 소비하기 보다는 痛征服에 充當하는 것이 人類를 爲한 길 이 되지않겠느냐는 輿論도 있었다. 그러나 케네디대통령은 달나라旅行計劃에 四〇〇億弗이나 든다는것은 잘 못된 생각이며 今後 五年間에 四〇億弗이 들고 완성까지 九〇億弗이 있으 린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二金 類은 미국 납세자 一人당 每年 十五 弗씩만 더 納稅하면 調達할수 있는 것이니 그것으로 겨우 收獲는 생각 하느니 보다는 큰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까지 소련은 月世界에 人을 보내는 계획에 관해서는 아무런 具體

이제까지 소련은 月世界에 人을 보내는 계획에 관해서는 아무런 具體

의 인 것도 발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이 분야에서 말이라도 큰 소리를 치고 싶어 血眼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능히 추측할 수 있다. 人類가 向後 十年 이내에 달나라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면 天文學의 學科로 볼 때 一九六七年七月二十日頃이 人間 로케트를 발사하는 데 最適의 時期라고 말하고 있다. 이 날은 달이 가장 남쪽으로 기울어져서 앞을 본 아니라고구나 滿月이 기도한 것이다. 그렇다고 有人 로케트 發射가 이날에 限定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저널리스트들이 우연히도 이날을 말하고 있는 은 흥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달나라에 사람을 내리게 하기까지는 굉장한 많은 實驗이 있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처음으로 人工衛星을 發射하기까지에 실패로 수많은 各種 실험이나 준비, 연구와 개발이 있었다는 사실로서도 능히 상상할 수가 있다.

人間을 보내기까지의 準備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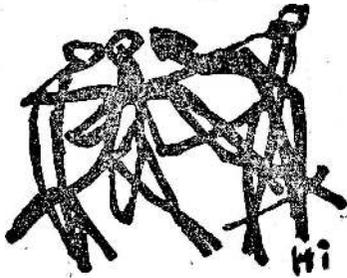
豫想되는 많은 初期的 실험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미어큐리計劃인 것은 틀림없는데 以下 NASA에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직접 탐을 探查하는 一連의 계획을 看過할 수 없다. 그 尖端을 가는 것이 今年末에서 來年에 걸쳐 실시될 전자計劃이다. 探査는 都合 五回 비행한 예정으로 있는데 모두 아틀라스 에이제나 B型 二段로켓으로 발사되며 重量은 三六三 킬로그램이다. 그 제 1호는 지구에서 一〇〇萬 킬로미터 되는 곳을 도는 超 橢圓軌道로 올려져서 地球引力 및 그 밖의 天體에 변루기를 探查하도록 되

당신은 다음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다음 질문에

예스나? 노나?

여기에 設定한 質問은 모두가 당신의 人生建築을 위한 靑寫眞이다.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出世하고 成功하고자 하는 사람이 라면 다음 ○ × 質問에서 六十點以上을 얻어야 한다.



△第一問▽

이 質問은 美國의 大實業家 J.P. Morgan氏가 그의 三十代에서 販賣員을 하면서 將次 大成하기 위하여 自己自身에게 스스로 提出했던 設問이다. 그는 사람이 出世하고 成功하는 데는 반드시 그에 應當한 代價가 치루어진다라는 原理에 着目한 것이다.

A 設問: 道德的 條件 (一問 15點, 60點以上을 얻어야 한다. 即時 解答해야 한다)

- 1, 나는 어떠한 宗教的 信念을 가지고 있는가? ()
 - 2, 나는 人生의 뚜렷한 目的을 가지고 있는가. 즉, 今後 二, 三年 내지 十年間에 達成할 明白한 目標을 말할 수 있는가? ()
 - 3, 친구와 同僚, 또 윗사람에게 率直하고 誠實한가? ()
 - 4, 나는 道德적으로 潔白한가? ()
 - 5, 나는 나의 目的을 達成할 敎養에 힘쓰고 있는가? ()
 - 6, 將來에 必要한 知識이나 技術 練磨에 게을리 하고 있지 않는가? ()
- B 設問: 肉體的 條件 (二問 15點, 60點以上을 얻어야 한다. 이것도 即時 解答해야 한다)
- 1, 머리의 能率을 維持하기 위하여 身體의 에너지를 充分히 사용했는지 모르나? ()
 - 2, 키(身長)에 비해서 몸무게가 보통인가 아닌가? ()
 - 3, 飲食은 充分한가. 過食하는

어 있다. 제 2호는 人工衛星으로서 태양을 돌면서 그 영향을 計測하며 제 3호에서 제 5호까지는 특수재료로 包裝되어 激突하더라도 内部裝置가 파괴되지 않도록 된 베이·로이드(Bay Load) 무게는 二五·九 Kg-를 달 表面에 도달시킬 예정이다.

이들 달 着陸用 隕차—는 모두가 直徑 一·三미터의 파라볼라 안테나를 軌道에 進入함과 동시에 發射되는데서 三三〇키로미터 거리에서 달하면 테레비·카메라로 달의 表面을 상세히 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隕차—가 달에 激突할 직전까지 十秒간 격으로 探査한 테레비寫眞을 地球基地에 보내는 裝置가 달려 있다. 달에 激突함과 동시에 이 테레비 裝置같은 것은 파괴되고 마는데 放射能을 測定하는 장치를 넣은 容器는 달 表面에 남아서 테이타를 지구에 보내도록 되어 있다.

隕차—計劃에 뒤이어 豫定되고 있는 것은 사베이아計劃으로서 一九六三年에 실행할 예정이다. NASA A에서는 열차전에 완성한 아트라스·셀을 水素燃料로켓을 사용하여 도합 十四회에 걸쳐 사베이아探査體를 發射할 計劃을 진행시키고 있다. 사베이아는 軌道重量 一、一三四 Kg-로 그중에서 一二九 Kg-이 달 表面에 떨어지 降下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때 달에 잔잔히 降下하기 위해서 부레이크·로켓트를 사용한다.

사베이아計劃이 실행될때쯤 해서는 巨大한 로켓트 스텀이라 불리우는 것이 完滿한 비행시킴으로서 一九六三年中에는 거의 實用段階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리고 사베이아 발사후는

- 例가 많지 않은가? ()
- 1, 남마다 잘 자는가? ()
 - 2, 運動不足은 아닌가? ()
 - 3, 마음과 몸이 影響을 주는 惡習慣은 없는가? ()

C 設問: 性格的 條件
(이 質問은 A·B에서 合格한 者가 생각해서 解答한다.)

- 1, 나는 걸핏하면 失望하고 낙담하지 않는가?
- 2, 生活上의 파란으로서 極端的인 樂觀을 하거나 悲觀을 하지 않는가?
- 3, 失望과 낙담을 했을때도 如前히 일을 계속할 수 있는가?
- 4, 그날 일에 忠實한가?
- 5, 어찌 失敗한 일 때문에 오늘날 일에 意欲을 상실하는가?
- 6, 決斷을 迅速히 또 明確히 내릴 수 있는가?
- 7, 自信있는 解答을 내릴때까지 그問題에 마음을 모을 수 있는가?
- 8, 윗사람과 同僚들에게 대하여 正直한가?
- 9, 나는 생각이 깊고 신중하고 또 늘 기로우며 親切하기도 한가?
- 10, 남과 意見을 달리할때도 남의 意見에 따라가는 버릇이 있는가? 없는가?
- 11, 收入의 얼마라도 저축하고 있는가?
- 12, 自己일을 조금도 빈틈없이

- 잘하고 또 그態度가 滿足하다고 생각하는가?
- 13, 나의 敎養과 地位向上을 위하여 收入의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가?
 - 14, 技術, 마음의 集中, 決斷, 忍耐, 思慮, 信賴 등이 가운데에서 現在의 나의 地位로서 어떤 것이 가장 必要하다고 생각하는가?
 - 15, 나는 14問을 위하여 平素에 힘쓰고 있는가?
 - 16, 現在의 내가 하고 있는 일은 將來와 어느 程度의 關係에 있는가?
 - 17, 現在 내가 하고 있는 일은 將來의 目標로서 可能한가?
 - 18, 그런 可能性이 없으면 平生의 事業으로서 다른 적당한 事業이 있는가?
 - 19, 나는 무엇때문에 以上과 같은 여러가지 解答을 必要로 하는가?
 - 20, 나는 나의 人生의 最高目的을 말할수 있는 人物인가?

※ 마지막 20번제의 解答은 解答全部를 綜合한 結果에 내릴 수 있다.

以上 세가지 質問은 당신의 人生方向을 設定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人生에는 '늦었다'라는 것은 없다. 늦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고 있다가 뒤에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는 늦지 않았었고 지금이야말로

로 정말 늦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이 設問을 履行할수 있는 것이며 設問은 또 반드시 現在의 당신의 地位를 밝혀 줄 것이다. 또 이 設問은 당신의 生活態度를 보다 더 좋은 方向으로 고쳐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設問에 힘쓴다면 肯定的인 確信과 行動의 人生觀을 얻어 世上을 白眼視하거나 疑心하며 不安하게 서거는 마음을 一掃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리하여 三個月이 지난 뒤에 다시 이 質問에 解答할 때 한결 人生에 대한 自信을 얻을 것이다.

〈第二問〉

이 設問은 펠트르그大學의 Chatard 博士가 만든 것으로 사람의 特性을 알아내는 質問이다. 心理學者인 Chatard 博士는 사람의 性格은 約 六千種類가 있는데 潛在的인 能力은 行動 効果에서 비로소 나타나고 決定되여지는 것이라 하며 頭腦, 熟練, 知識等은 潛在能力이라 한다. 博士는 다음 열가지 特性을 提示하고 이것에 依한 行動效果에서 그 사람의 能力을 策定했다. 당신의 特性은 무엇인가? 다음 質問에 答해서 一問 10點 60點以上을 얻을 수 있는가? 1, 누구보다도 잘 한다고 생각하는 일인 있는가? () — 自信力. 2, 남과 쉬히 親할수 있는가? () — 親知性.

이 사탄을 사용해서 푸로스페타計劃의 실시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탄의 初段로케트는 六八〇톤이라는 巨大한 推力가 있으므로 四段式의 C-2型을 사용하면 重量 六、八〇〇kg의 宇宙船을 月世界 軌道에 進入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푸로스페타 그 자체의 重量은 一、三九〇kg이지만 달에 올랐을 때 減하는 宇宙船의 總重量은 二、二六八kg이 된다. 그렇다. 그理由로서는 푸로스페타는 달에 着陸하면 그 表面을 自走하여 探查하면서 移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폰·부라우博士는 이 푸로스페타計劃의 後期에는 로보트가 採集한 달 表面의 物質見本을 地球로 가져올려고 생각하였던 모양인데 그것이 과연 실행될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는 모양이다.

이것은 14회로 5회 사베이아로 十四回를 거치기 때문에 푸로스페타計劃에서는 주로 사람이 着陸할 豫定地點의 地理的, 物理的 條件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하나의 수단으로서 어떤 푸로스페타에 데레비裝置를 積載하여 着陸地點에서 半徑 八〇키로미터 以內를 정밀히 撮影하면서 이동하며 時刻刻으로 그 映像을 地球基地에 보내도록 되어 있다.

로케트의 무엇이 쓰여지나?

사람이 實用期로 들어갈 때쯤 해서 는 그 다음으로 超大型 로케트인 노바의 開發이 推進되어 發射實驗段階의 까지 이를 豫定이다. 노바는 높이가 二二〇미터 初段部分의 直徑은 二〇

3, 快活한 性質을 가졌는가? () — 快活性.

4, 批評하기를 좋아 하는가? () — 感受性.

5, 날카로운 슬기가 있는가? () — 機智.

6, 부지런 한가? () — 勤勉性.

7, 생각해 내는 힘이 있는가? () — 創意力.

8, 記憶력이 있는 것인가? () — 記憶力.

9, 모나지 않는가? () — 適應力.

10, 남에게 민음을 받는가? () — 信賴性.

以上 十個問에서 1~5까지는 우리들이 毎日 生活하는데 있어서 우리들의 氣質을 決定케 하고 6, 10 리들의 自身을 制御하는 힘을 決定한다. 그러므로 前者를 氣質特性이라 하고 後者를 制御特性이라 한다. Cheat博士는 潛在的 能力을 停止되어 있는 모오터라고 하면 行動特性은 電力과 같다고 비유하였다. 그러므로 前記 潛在의 能力을 行動으로 옮겨 그 사람이 나아가려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인데 이 設問에서 60點 以下의 點이지는 사람은 아무리 知識과 技術이 있다 할 지라도 人生競争에 있어서 그만큼 뒤떨어진다 하는 것이다.

第三問

設問 1 당신이 생각해서 당

신의 長點으로 생각되는 열가지를 列擧하라. (한가지에 10點 60點을 얻으면 合格)

設問 2 당신의 親友 二十名을 選定하여 그 親友들과 당신과 比較해서 당신이 나은點 열가지를 列擧하라. (한가지 10點, 60點을 얻으면 合格)

以上 두가지 設問도 Cheat博士의 設定이다. 그는 어느날 재미있는 問議를 가진 사람의 訪問을 받았다. 그는 Bakel이라는 青年이었는데 모든 일에 自信이 없다고 말하였다. Cheat博士는 그의 性格을 分析해보기 위해서 앞의 設問에 대한 대답을 要求했던 것이다. 며칠 후에 Bakel는 다음과 같은 長點 열가지를 가져왔다.

- ① 學校에서 공부한 時間이 남보다 적었는데도 成績이 나았다
- ② 어떤 會社에서 三年동안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 會社를 떠날 때에 會社側에서 몹시 애석히 여기고 다시 돌아오면 언제라도 挽回하겠다고 했다는 點.
- ③ 글을 써서 出版을 했더니 곧 잘 팔렸다는 點.
- ④ 大學을 苦學했다는 點. 그 때 문에 무리한 일도 참고 해낸 다.
- ⑤ 工夫하기 위하여 모든 오락을 스스로 억제했다는 點.
- ⑥ 病은 누이동생과 家族을 돌보아 주었다는 點.

⑦ 親舊로서 子弟로서 兄弟로서 情誠을 다 했다는 點.

⑧ 큰 失望을 당한 일도 있었으나 그 失望을 극복했다는 點.

⑨ 항상 正直한 것과 誠實을 지켰다는 點.

⑩ 모든 일을 正確하게 迅速하게 하여 남의 信賴를 어진바 없다는 點.

設問 2는 設問 1을 손에 쥔 Cheat博士가 Bakel에게 두번째로 要求한 問議이다. 며칠후 Bakel氏는 다음 열가지를 가져왔다.

- ① A보다 나는 信賴를 받는 사람이.
- ② B보다 나는 慎重하다.
- ③ C보다 나는 學歴이 낮다.
- ④ D보다 나는 判斷力이 있다.
- ⑤ E보다 나는 남의 意見을 理解하는데 빠르다.
- ⑥ F보다 나는 自己자랑을 하지 않는다.

Cheat博士는 前後 두가지 表를 檢討한 뒤에 Bakel氏에게 다음과 같이 忠告했다. 「당신은 어떠한 일이라도 훌륭히 해 낼 수 있는 實力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첫번째 設問이 立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自信과 勇氣가 必要하며 그렇게만 한다면 成功할 수 있는데 그것은 두번째 設問이 立證하고 있습니다. Cheat博士에 依하면 自信을 잃게 되는 것은 너무 理想의이고 完全한 것만을 求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心理的 現象의 하나라고 보며 自己보다 나은

現象의 하나라고 보며 自己보다 나은

마더가 넘는 거대한 로켓으로 그推力은 四,〇〇〇톤 이상이 될것이라고 한다.

노바의 발사실험은 당초에는 一九六七年頃으로 예정을 잡았었는데 케네디대통령의 新宇宙政策에 의해서 그 시기가 단축되어 一九六四年에는 실시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과 그의 科學顧問들은 노바가 恐龍과도 같이 너무 커서 그 때문에 일어난 체도 물은 많은 혼란을 두러워 하여 노바의 로켓燃料를 液體式이 아니고 固體式으로 하는것도 銳意 연구하고 있다. 그 때문에 NASA는 六,二〇〇萬弗의 예산으로 固形로켓트를 노바에 應用하여 小型이면서도 信賴性이 있는것으로 할라고 애를 쓰고 있다.

또한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되는 노바는 五段式으로 될 모양인데 만일 이 多段式 노바가 쓸만한것이 못될 경우에 固形로켓트式 노바로 轉換할뿐 아니라 사탄을 개량해서 사용하여 하는 것이란 것이 그 上段部에 原子力로켓트를 利用하는 것과 같은 緊急手段도 아울러서 연구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달에 사람을 보내는 宇宙船 그 자체의 연구는 아폴로計劃에 집중되고 있다. 지금 계획으로는 아폴로는 기리가 十二·二미터 直徑이 三·七미터 무게가 六八,〇〇〇磅의 될 모양인데 三名의 乘務員(船長과 航海士 및 機關士)의 搭乘할 예정이 있다. 머이큐리 衛星用 艙과 같은 形態가 되느냐 혹은 圓筒形이 되느냐는 아직 最終의 결정을 못보았는데 대체로 이번 가을쯤 開發을 담당할 民間會社가

사람만 보고 남의 長點에만 擴大鏡을 비추어 自身에는 望遠鏡 鏡으로만 들여다 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남도 역시 어디인가 결정이 있다는 것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데

- ① 自信이 없거든 남과 自己와를 비교해 보
- ② 일찍이 나의 피우지 않으나 自己 自身의 長點을 찾아 注目하여 誠實히 이것을 살피면 그릇된 自己 자랑이 아닌 참된 自信을 얻게 된다.

第四問

△設問▽ 당신은 一週日間에 세로인사한 사람의 이름과 일수를 60퍼센트以上 記憶하는가? (10퍼센트 10點으로 60點以上 얻어야 합격)

남의 이름을 記憶해 둔다는 것은 處世上 가장 必要한 일의 하나이다. 단 한번 인사하는 데도 다음機會에 自己의 正確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好感과 親密感을 가져준다. 보통은 일수를 알면서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이름은 記憶하면서 도 일수를 記憶하지 못하는 例도 許多하다. 이것은 제치는 社交에 많은 支障을 가져온다.

美國의 **Proffers** 라는 探偵은 그가 한 번 인사하거나 만난 사람의 이름과 일수를 꼭 記憶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높아 寫眞機라는 別名을 가졌는데 그는 사람의 이름을 記憶하는 다음과 같은 열가지 事項을 指摘하고 있다.

- ① 처음 인사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몇번이고 외워둔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興味를 가지고 사람은 언젠가 다시 만난다는 기대 하에서 이름을 잊어버리면 困難한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한다.
- ② 상대방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얼굴도 同時에 印象의 特徵을 發見해 둔다.
- ③ 한번 외운 이름은 機會가 있을 때 마다 자주 사용한다.
- ④ 그 사람의 이름을 완전히 記憶할 때까지는 그 사람을 대할 때 잊어버 사용하지 않는다.
- ⑤ 어느 자리에서나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必要치 않아도 이름을 불러준다.
- ⑥ 以上과 같은 것을 연습해 보는데는 다음의 두가지 方法이 있다.

A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나가서 알지 못하는 사람과 접촉할 때 위와 같은 方法을 시험해 보자. 이름을 말하지 않고 紹介를 받았을 경우에는 自進해서 그 이름을 물어서 正確한 이름을 물어 보면 상대방은 흔거워 한다.

B : 이렇게 해 알기엔 이름은 일단 그곳을 떠나서 다시 한번 외워둔다. 그리고 잊어버린 이름은 예를 써서 다시 알게 되면 뚜렷한 記憶으로 남는다.

⑦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서 오늘중에 세로인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日記帳이나 手帖에 적어보는 버릇을 가진다.

⑧ 내가 자주가는 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꼭 외우기로 한다.

⑨ 一週日間에 새로 인사를 한 사람들의 이름을 써본다. 가령 五十名의 사람과 인사를 交換했다면 적어도 四十名 이상의 이름을 쓸 수 있어야 한다.

⑩ 일수는 記憶하고 있으면서 이름을 잊어버린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이름을 알아두는 버릇을 가져야 한다. 이밖에 이름과 일수를 記憶하는 데는 처음 인사했을 때의 場所, 霧靄氣, 그 사람의 表情 등에서 特徵의 인 것 하나를 印象에 넣어둔다.

결정되기 때문에 그 때에는 분명해질 것이다. 아폴로計劃이 실행으로 옮겨져 자르면 팔라도 六年後라고 보겠는데 이에 搭乘하는 사람의 훈련은 지금부터 서서

히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六년후라고 하면 앞서 머이큐리 로켓트에 搭乘했던 제퍼드 중령은 四十三歲나 되기 때문에 이 크라스에 사람들로서는 너무나이가 많다. 따라서 보다 젊은

후보자가 선출될 것이다. 또한 그數는 二十五명 정도로서 머이큐리計劃에 참여했던 파이롯트들이 敎官으로 지도할 입장에 서게 될것으로 보인다. 아폴로의 승무원들은 수년간에 걸

Lost time.....

〈隨想〉

柳起英

솔베 없이 時間을 보낼때면 곧갈 列車속에서 보내는 지루한 時間을 想起하고 그 時間과 比較해 보는 버릇이 생겼다.

大邱가 故鄉인 나는 때때로 大邱를 다녀와야 할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列車속에서 보내는 時間의 지루함에 大邱가기를 꺼려한다. 아침 七時半 二宮와 號年 十二時 十九分에 大邱에到着한다. 생각하면 얼마 안되는 時間이오 아침 職場에 나와서 아물어물하는 時間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時間이 왜 그렇게 지루하고 또 列車속에서 보내는 時間이 이처럼 아까울까?

서울에서 大邱까지 달리는 時間은 五막내 時間 四十九分이다. 이 커다라 退勤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親舊라도 만나 茶房에서 雜談을 하다가 보면 어느새 日時가 넘는다. 가령 退勤해서 列車을 탔다고 假定하면 이미 大邱에 내려 있는 時間이다. 또 退勤하여 돌아오는 길에 심심해서 棋院에 들러서 두 세판 바둑을 뜨고 보면 어느새 日時다. 때로는 약주집에 들러서 親舊와 한잔 나눈다. 그러면

일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온다. 그런데 이러한 時間은 지루하지가 않을 뿐 아니라 이렇게 보내는 時間은 자못 正當한 消費처럼 列車속에서 보내는 時間처럼 아까움을 느끼지도 않는다.

머칠진, 大邱를 다녀온 以來 나는 솔베 없이 보내는 時間에는 문득 문득 列車가 달리는 時間을 생각하며 空然히 보내는 時間과 列車의 進行度를 곧잘 比較해 보는 버릇이 생겼다. 退勤해서 市內를 日標도 없이 거닐면서 어느 親舊를 想起한다. 別다른 用務가 있는 것도 아니오 만나면 구주부레한 솔베없는 雜談이 벌어진다. 별반 재미있는 話題도 없겠다는 생각에서 그 親舊 찾기를 그만 두기

로 하고 대양 들리는 茶房에 들러서 한잔 마시고 한때 태운다. 그리고는 몇시가 되었는가 하고 時計를 들여다 본다. 어느새 日時가 넘어가았다. 이와 同時에 나는 退勤時에 서울驛을 出發한 「무궁화」의 位置를 생각해 본다. 「무궁화」는 大邱까지의 切半의 距離인 大田驛에 到着하는 時間이다. 생각하면 列車가 서울에서 大田까지

모든 狀態에 對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 아니라 學者로서도 상당한 능력과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된 다. 이점에 있어서 從來의 과학자들은 전혀 다른 乘務員이 되는 셈인데 후보자를 선출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한 선발이 예상되고 있다.

날에 六日間 滞在

아폴로는 노바五段式 로켓의 最上端에 付着되어 세사람의 乘務員이 搭乘하면 發射準備가 急速히 행해진 다.

노바의 發射重量은 四,〇〇〇톤이 상으로 그 대부분은 燃料인 것이다. 노바의 初段은 노스·아메리칸社로 케트·다인部門이 제작하는 F-1 로켓·엔진 八基로 되어 있어 이를 엔진이 一分間에 소비하는 燃料은 液體 酸素 七二〇톤 R-1 燃料 三六〇톤 합한다. 〇〇〇톤 이상에 달할 것이

라 한다. 初段의 燃焼時間은 二分強으로 발사 十分후에는 三段까지의 로켓트를 사용해서 지구를 떠나 二〇〇키로미터 높이에서 우선 지구를 도는 軌道에 進入한다. 이것은 파-1 軌道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소련의 金星로켓트發射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목적이다.

이 軌道에 올르면 乘務員은 씨스텔의 켓트를 시작하여 모든 機能의 正常的인 것이 確認되면 아폴로는 달에의 脫出軌道를 향해서 加速된다. 여기서 만약 異常이 발견되면 즉시 지구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다. 파-1 軌道에서 宇宙船의 속도는 時速 約二八,〇〇〇키로미터인데 脫出에는 約 四萬키로미터로 할 필요가 있다.

우주선 안에서 연기를 내는 것은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담배를 피운다면 지독한 것을 피우지 않으면 안 된다. 船內의 氣壓은 지상에서 一,五〇〇미터 높이의 정도의 氣壓으로 유지되어 溫度도 二三度 정도의 알맞은 氣溫이 유지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脫出軌道에 進入하면 乘務員들은 갑작한 宇宙服을 벗고 편히 쉬 수가 있다.

달에 도달하기까지 약 六〇시간을 要하는데 그 동안 항상 두사람은 作業位置에 있고 한사람은 쉬도록 시간배정을 할 수가 있다. 음식물은 통조림 또는 冷凍乾燥食品으로서 조금만 데우면 먹을 수 있고 水分이 있는 것은 폴라스티크製 ्यू-1브에 들어있어 ्यू-1브를 녹이면 나오도록 되어 있다.

아폴로의 初期의 것은 달의 周圍를 돌 뿐인 所謂 月衛星으로서 달을 偵察할 수가 없다. 그 만큼 달에는 비교적 가까이 있으면서도 많은 수수께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수수께끼에 대해서는 本格的인것은 헤라클레스와 같이 살짝 달 表面에 着陸한다. 달에 착륙한 최초의 人間들은 그곳에 六日間 滞在하여 宇宙船內外에서 探索을 行한다. 三日間이라는 說도 있으나 六日間이라는 說이 有力한 모양이다.

달을 조사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점에서 科學的意義가 있다. 그 첫째는 달이 宇宙의 起源 혹은 地球의 生成原因을 解明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일 것이다. 또한 달을 利用함으로써 地球의 觀測이 恒久的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우리들의 生活改善에 看過

저가는 時間이 時間은 비길데 없이 貴重한 時間이다. 이 列車가 假令한 時間은 姑捨하고 三十分, 아니 十分이라도 延着했을 경우를 생각할 때에 延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乘客들과 그 乘客과 關係있는 사람들에 일어나는 事態이 延着된 時間으로 因해서 一生에 關係되는 重大事가 없다고 누가 斷言하라. 이 貴重한 時間을 나가는 完全히 浪費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서나오는 內心「時間」에 대해서 未安하게 느낀다. 그다음 이슬림, 거리며 茶房을 나와 巴士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거의 열 시간이다. 이때 大田驛을 出發한 列車은 이미 大田에 놓인다. 그래서 나는 요즘 열차하면 「아, 天安에 到着하는 時刻, 大田에 到着하는 時刻 大田에 到着」하는 時間하고 時刻를 들먹거리며 뒤우쳐 보는 버릇이 생겼다.

Lost time is Never found 라는 격언이 무리히 떠오른다. 한번 지나간 時間은 永遠히 되찾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면서도 대개의 사람들은 時間의 貴重함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空氣속에 있는 酸素의 價値를 느끼지 않는 것과 같은 생각에서 인지는 모르나 「時間」은 결코 「값」 없는 淸風이오 일차 없는 明月」은 아니다. 「時間」이야말로 가장 高價한 값을 지녔고 제마다 임자가 있는 것인데...

經濟生活이 高度로 發達하고 複雜한 現代社會에 있어서는 報償하기 위하여 같은 時間의 被害를 報償하기 위해 마땅히 民法에 立法化되어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 充分히 理解가 가는 이 야기인가 싶다.

옛날 우리나라에는 縮地法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어떤 距離를 普通사람이므로 빨리 오고 가는 사람을 일컫는 縮地法을 하는 佛人이라고 한 실은 그때 무슨 그런 법이 있는 상 싶지도 않고 또 그때에 列車가 七時間 걸리는 서울 釜山間을 한 時間으로 縮地하는 飛行機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보니 아마 멋있게 질러가는 걸 문질러 잘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따지고 보면 縮地法이 아니고 縮時法이며 時間觀念의 表現인 것 같다. 「바쁘거든 질러 가라」는 俗談도 時間觀念에서 생겨난 말일 것이다. 「一刻이如三秋」나 「歲月如流水」 「如矢」나 하는 우리 古來의 文字가 모두 時間觀念을 表現한 것이겠지마는 「一鳴重千金」은 時間의 所重함을 말한 것이겠다.

Lost time is never found 가 붙어 타이틀 같이나 is never found 가 붙어서 時間觀念이 높은 英國사람들의 金言이 된다. 우리는 지금 革命課業이라는 매우 할 일이 많고 바쁜 世代에 살고 있다는 생각과 同時에 서울驛을 떠난 急行列車의 달그락 달그락 하는 「바쁜 소리」가 聯想된다.

할수 없는 意義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달에 내린 최초의 사람들이 六日間에 어떠한 것을 발전하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는 현재로서는 紙上계로 더 자세히 쓸수는 없는데 數年後에는 사람이 손수 이것을 解明하기 위해서 달나라에 가는 것이나 人類科學技術發達의 하나의 頂點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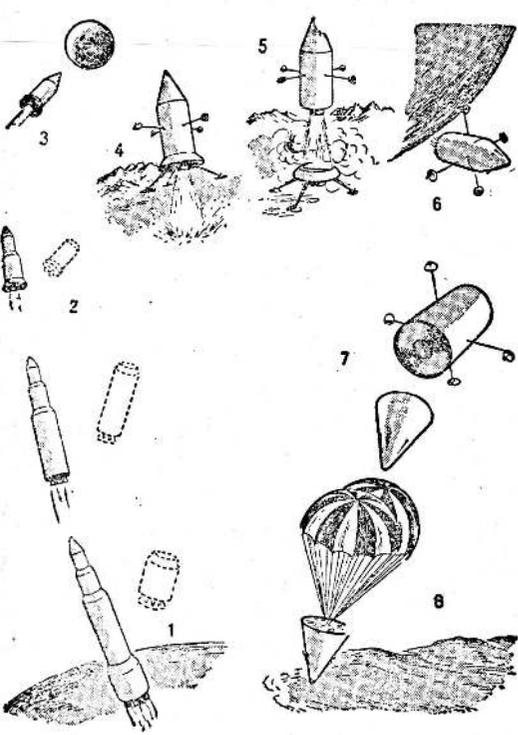
癌의 征服도 人類에게 있어서 극히 중요한 사업이지만 달의 수수께끼를 해명하는 것도 一般의 생각하고 있는 것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달에 간다는 목표를 향해서 연구개발되는 많은 科學技術이 직접 간접으로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알아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폴로計劃 說明圖▽

(1) 發射—三人乘 아폴로宇宙船은 노바五段로켓에 依해서 케이크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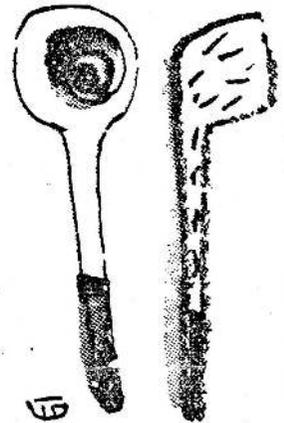
베탈에서 발사된다.

(2) 노바는 아폴로를 時速 四萬키로미터의 脫出速度까지 加速
(3) 巡航—아폴로는 달까지 六〇時間 旅行을 出發.
(4) 到着—파이롯트는 아폴로의 引擎을 아메로 向하게 하고 緩衝脚을 밀려서 조용히 달에 도착한다.
(5) 出發—六日간의 滞在 後 燃料탱크를 出發處로 利用해서 아폴로를 地球로 向해서 發射. 달에서의 脫出速度는 時速 八,〇〇〇키로이다.
(6) 歸還—歸還은 二日半. 돌아올 때는 燃料가 저기 때문에 특히 注意해서 正確히 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7) 再突入—地球에 接近하면 乘務員들은 前部の 操縱室로 모여 後部 카빈을 버린다.
(8) 着陸—地球上空 五,〇〇〇미터까지 降下하면 파라슈트를 열고 에드워드地基 근처에 着陸한다.



「후르시츠포」의 危險한 曲藝

伯林危機·核實驗再開에
關聯된 一聯의 國際緊張



伯林危機、核實驗再開等を 생각하
분해 「후르시츠포」의 這問의 言動은
狂信的인 精神病者가 아니라고 한다
다 理解를 얻을 수 없는 것들뿐이다.
그것은 共產世界의 힘을 狂의로 過
信하는 것이 아니라면 危險하기 짝이
없는 曲藝이다.

그는 世界의 輿論을 거의 無視하고
있다. 中立系 諸國의 포섭 工作에는 平
素부터 非常한 努力을 傾注하는 中
立國 首腦會談이 開催되는 二日
을 앞두고 三個月間이나 끌어오면 美、
英、소 三國國 核實驗 中止會談을 事
實上 그만 두자는 것을 意味하는 核
實驗再開聲明은 中立國家群의 輿論도
眼中에 두지 않고 있음을 立證하였다.
왜냐하면 후르시츠포는 그의 같은 核
實驗再開가 이들 中立系國家群의 不
平을 살 것만은 十分 알고 있는 것이
기 때문이다. 中聯은 核實驗再開聲明
에서 一國際情勢의 壓力 때문에 나라는 것
을 理由로 들고 있다. 所謂 美國을
비롯한 NATO 軍事 侵略의 侵略政策

의 威脅에 對抗하기 위한 不得已한 措
置라는 辯明이다. 그러나 이것은 常
識의 으로 理解가 가지 않는 議論이다.
現在 危機의 焦點인 伯林問題는 世界
가 周知하는 바와 같이 中聯이 作動
하여 平地에 波亂을 일으킨 것이 分
明하다. 말하자면 만일 어떤 人工危機
인 것이다. 中聯이 이 人工危機로서
國際緊張을 가져왔기 때문에 西方側
도 不得已 軍備의 補強을 必要로 하
게 되었는 데 후르시츠포는 五九년에
軍備을 全廢한 用意가 있다고 公言하
고 昨年一月에는 兵員 三、六二三、
〇〇〇名을 一舉에 二、四〇〇、〇〇
〇名으로 減員한다고 公表하였다. 그
러면 그가 伯林問題가 일어나자 지난
七月十五日 이것을 보기 좋게 取消하고
軍費를 三分의 一增加하였다. 이와 같
은 中聯의 威脅에 對處하기 위해 美國
도 軍備의 補強을 斷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후르시츠포가 「國際情勢의 壓
力 때문에……」 全人類가 願치 않는 核
實驗을再開한다는 것은 마치 불을 질
러놓고 불뚝을 치는 격을 免할 것 없

는 노릇이다.
今般의 伯林問題 뿐만 아니라 元來
中聯은 自由陣營을 威脅하고 그 結果
自由諸國의 防衛體制를 強化하면 그
것을 口實삼아 中聯은 強硬한 對抗手
段을 取하여 왔다. 그들이 곧잘 口實
로 삼는 NATO 同盟의 結成도 結果
的으로는 中聯이 만든 것이다. 따지고
보면 自由諸國의 軍事同盟은 크레프
린이 二產後役이었던 것이다. 후르
시츠포의 今般의 核實驗再開聲明에
中聯의 全面軍縮提議案 西方側이 受
諾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非難하고 있
는데 全面軍縮은 全人類가 願하여 마
지 않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中聯의 提議案은 理想으로는 말자는 사
람이 없었으나 現實의 으로는 一文의
價値도 없는 것이다. 이같이 全然實
現性없는 提議案은 提議를 위한 提議에
不適當한 것이며 순전히 中聯의 宣傳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現在의 冷戰의 世
界情勢에 비추어 볼 때 軍備全廢의 主
唱이란 마치 幼兒에 太白山登山을 勸
하는 격이니 畢竟은 鏡裏之花이다. 이
것을 모르는 中聯이 아님은 勿論이다.
그러면서도 이 看板을 내리지 않는
것은 宣傳効果가 있기 때문이다. 共
產主義의 正體를 모르는 사람들이 共
產主義者들의 宣傳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이 때문인 것이다. 人道라는 장
삼을 입고 軍備全廢를 主唱하는 후르
시츠포가 全人類가 그처럼 싫어하는
核實驗을再開하는가 하면 百배가 큰
차리 核爆彈(廣島原爆의 五千倍의 破
壞力이 있다)을 製造한다고 豪言했
으니 그가 놀이처럼 平和共存의 看
板이 무엇인가를 可히 알 수 있는 노릇
이다.

三年間이란 廿歲月동안 三三九回를 거듭한 壽府核實驗禁止會談이 合意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그러나 할 수 없다. 왜냐하면 壽府의 問題를 트로이카式으로 固執하는가 하면 完全軍縮問題와 結付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元來 壽府는 秘密主義이기 때문에 效果的인 查察을 應諾할 리 없는 것이다. 駐소 十數年의 經驗을 가진 某國의 大使가 始終 壽府核實驗에 대하여 極히 懷疑의 見解를 보였던 것인데 그것은 壽府는 事實上 決裂되고 말았다. 事實 지난 二月에 再開된 壽府會談에 있어서의 壽府代表의 進退에는 여러가지 矛盾이 많았는데 이제와서 壽府가 美·英을 아무리 非難해도 그것은 누워서天井에 침뻐는 格을 벗어난 진 없다. 核實驗再開에 대한 壽府의 聲明이 어떠한 辯明을 弄한다 하더라도 世界의 良識에 대한 納得을 얻지 못하는 事實을 無視하고 狗를 羊으로 부르는 데 基因함이다. 더욱이 西方側의 威脅을 制止하기 위한다는 所謂 平和維持를 위하여 實驗再開가 必要하다는 辯明은 개개들이어도 笑止의 거리라 아니 할 수 없다. 世界의 良識은 크레프린의 그와같은 辯明을 곧이 듣기 전에 그들의 眞意가 百메가 核爆彈의 威力을 背景으로 伯林問題의 協商을 有利하게 展開시키려는 巧算임을 먼저 察知하는 것이다.

후르시초프는 여러가지 文句로서 伯林이 東獨속에 있음은 不自然한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不自然한 것은 伯林에 限한 것이 아니다. 第二次大戰은 이와같은 不自然을

世界到處에 만들어 내었다. 東獨속에 있는 伯林(西)이 不自然하다면 獨逸의 兩分은 더욱 不自然하다. 壽府는 西獨으로 脫出하는 東獨人民을 막기 위하여 이른바 그 不自然을 고치겠다는 것인데 그는 어쩌서 伯林에서만 不自然性을 發見했던 말인가? 昨年一月 百二十萬의 減軍을 公表했을 때는 이 不自然을 몰랐던 말인가? 그의 自家撞着은 이 뿐만이 아니다. 壽府와 東獨自權은 어찌나 共產體制의 優越함을 自信을 가지고 公言하였던 것인가? 그렇다만 東獨人民의 脫出은 무엇일지 意味하는가를 說明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후르시초프는 過般 壽府經濟力의 成長을 자랑하면서 一九七〇년에는 壽府의 生産力은 美國을 능가하며 한번 능가하면 美國은 두 배나 되고 公言하였다. (이 問題에 대해서 美國은 即時 否定하고 一九九〇年 또는 二十一世紀에 이르기까지 壽府는 美國의 生産力을 따르지 못한다는 點을 數字로서 科學的으로 提示한 바 있다.) 萬一 그의 公言이 確實性 있는 展望이라면 十年 못가서 共產國의 人民들의 生活水準은 美國을 능가한다는 理論이 成立되는 것이고 따라서 東獨人民들이 美國國民 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만 후르시초프는 무엇이 담담해서 全人類로부터 不平을 사는 伯林 人工危機를 만들어 平和의 敵이라는 極히 名譽스러운 이름을 붙여 쓰려고 하는 것인가? 美國은 그의 確信을 揚言하면서 한 편으로는 伯林問題의 強行解決을 서두르는 無謀한 曲藝를 하는가?

不自然한 것은 東獨內에 있는 自由伯林이 아니라 후르시초프 自身이 아닌가? 후르시초프는 지난 七月八日 모스크바 陸軍大學校 卒業式에서 減軍中止와 國防費 三分의 一 增額을 發表하여 젊은 將校들의 歡迎을 받은 바 있는데 여기에 그는 그러한 理由가 있는 것이다. 그가 昨年一月에 決定發表한 減軍兵力은 百二十萬이며 이 가운데에는 二十五萬의 將校任任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은 陸軍大學을 卒業하는 青年將校들의 前途나 그들의 公私兩面에 있어서 至極히 重大한 問題가 들어 있다. 이들 將校團의 政治的 勢力은 處理하기 困難한 問題를 內包하고 있으며 所謂 平和 共存政策에 대해 懷疑의 心을 將校들은 共產黨員中的 同調者들과 結緣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 이들은 平和 共存主義를 辛辣하게 批評하는 中共政權과도 結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反共存勢力이 今次 人工危機에 어느 程度 役割 하였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후르시초프가 이 勢力을 全然 無視할 수 없다는 것은 事實이다. 또 후르시초프가 十月十七日에 있을 壽府 共產黨大會를 考慮하고 있음도 今次 人工危機와 結付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一九五八年 가을, 伯林黨會를 내밀고 이것이 伯林問題의 最後通牒이라고 떠들어서 하게 한 것이 바로 第二十二次 黨大會 直前의 일이었다기 때문이다. 黨大會에 대한 準備의 하나로서 強硬外交가 必要한 것이라면 這問題의 후르시초프의 狂의 言動도 어느 程度 理解가 안가

는 바는 아니다. 一部 消息通에서는 이와같은 후르시초프의 強硬外交는 中共政權內의 主戰派의 壓力을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見解도 있다. 또 一部에서는 이 리하르로서 第二十二次 蘇共產黨大會에 作用할 中共의 壓力을 緩和할 功심일지도 모른다는 見解도 있다. 그런데 생각하기에는 이같은 후르시초프의 強硬政策은 은연中 中共의 壓力을 加하는 것이라고 보는 見解도 있다. 그러나 客觀的 立場에서 볼 때 후르시초프가 가지고 있는 病은 그가 背景으로 삼고 있는 共產陣營의 軍事力의 過信이다. 그가 이 過信에 스스로 굴러들어 가는 데 危險性이 內包되어 있다고 보아진다. 如何든 우리는 今般의 國際緊張을 通해서 共產主義者들의 本性을 再確認하고 自由陣營의 結束을 더 한層 鞏固히 하는 決意를 굳게 하는 것이다. 這問題의 후르시초프의 言動은 平和 共存이라는 그의 法服 밑에서 核爆彈으로 重武裝한 甲乙을 白日下에 露出하므로서 自由陣營의 自由民들의 紐帶를 더욱 強化하는 結果를 가져왔다. 우리는 壽府의 眞意가 奈邊에 있던간에 共產主義者들의 術策에는 充分의 警戒과 覺悟를 세로히 함은 勿論 보다 더 透澈한 反共精神의 武裝이 要請 되는 바이다.

☆ ☆ ☆

平和를 爲한 人類의 努力

— 國際聯合과 그 由來 —

李 元 一

우리 人類에게 歷史가 기록되는 동안 侵略과 戰爭의 威脅은 屢次 날이 없었다. 强者는 弱者를 同情하기보다 勢力으로 짓밟기가 일수요 強國은 小國을 도읍기보다는 侵略하기가 더바랐다.

때문에 吾人類는 이 生存鬭爭이 빛어 내는 戰爭으로 말미암아 몹시 괴리며 살아 왔던 것이다.

즉 一七九〇년부터 一八一五年까지에 걸친 「나폴레옹」 戰爭으로부터 第一次 世界大戰前까지만 하더라도 人類는 有名한 國際戰爭 아홉번을 치루었고 다시 一九一四年부터 一九一八年까지 繼續된 第一次 世界大戰에서 人命被害만도 三千七百五十萬名이라는 엄청난 數에 달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굉장한 戰禍에 눈이 뜬 人類는 一九一九年 「윌슨」 美大統領의 主唱으로 「칸톤」의 「恒久平和論」에 依한 世界平和機構로서 「國際聯盟」을 組織하였던 것이다. 當時 美國의 「윌슨」 大統領은 그의 經驗에 依하여 世界에 다시는 戰爭이라는慘禍가 없게 할뿐 아니라 人類社會의 共存共榮을 爲해서 强者가 弱者를 도읍고 勢力이

는 사람이 勢力없는 사람을 同情하며 돈있는 사람이 돈없는 사람을 補助해주는 것이 고만하고 서로 冷靜하게 다루는 것으로 確實히 平和와 幸福을 가져올 것으로 期約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 佛蘭西나 英國等 나라의 指導者들은 外面에 이렇다는 自負心과 惡感情에 사로잡혀 一九一九年 「파리」에서 열린 所謂 平和會議라는 것이 平和會議가 아니라 敗戰國인 獨逸로 하여금 不幸에 빠진 그들에게 너무나 苛酷한 條約을 強制함으로써 그나라로 하여금 強力한 復讐심을 품게 하였고 얼마안가서 또 다시 第二次大戰이 일어나 死傷者가 無慮 六千二百萬名이라는 史上 未래는 人類의 悲劇을 되풀이 하였던 것은 아직 記憶에 새로운 바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第二次大戰이 끝나고 「國際聯盟」을 다시 몇 차례 때 지나간 「國際聯盟」에서 體驗한 不足點을 修正補強해서 第三次大戰을 防止하기 爲해 全力을 다한 것이 바로 日本과 같은 敗戰國에 對하여 歷史上 처음으로 平等한 位置에서 講和條約을 맺은 것이 다. 그러나 不幸히도 二次大戰에서 自

由友邦의 同盟國이었던 소련은 國際共產化를 爲해 오늘날의 國際聯合을 自己의 橫暴한 宣傳舞臺로 삼고 있는 이때 그의 沒知覺한 行動은 萬一 오늘날의 國際聯合이 없었던들 벌써 人類는 可恐할 核戰爭에 휩쓸려 이만치의 平和라도 維持할 길이 막히 버렸을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人類平和에 貢獻하는 國際聯合은 어느 때 어떻게 必要하게 되었는 지 그 由來를 들여다 보기로 한다.

사람은 社交的 動物이어서 社會를 떠나서는 그 生存을 維持할 수가 어렵듯이 오늘날 國家도 國際社會없이 存立하기 어렵게 되었다.

國內社會에 있어서 그 나라의 警察權이 있어 秩序를 문란히 하는 것을 防止할 수 있지만 國際社會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主權을 가지고 있고 超國家의 權力은 存在하지 않으므로 強한 나라가 國際秩序를 문란하게 할 境遇에 이것을 억제할 完全한 方法이 없다고는 없다.

그래서 各國의 自由意思에 依한 聯合을 만들어 가지고 그 聯合에 屬하는 國家間에 紛爭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 紛爭을 國際聯合에 내어놓아 거기서 妥協의 方法을 찾아 내도록 하면 戰爭을 미리 防止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防止는 일단 當事者 사이의 直接交涉이 되고 보면 強한 쪽이 억세게 고집을 부리게 되지만 國際聯合에서는 第三國들까지 섞여 議論하게 되므로 自然公平한 解決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 世界平和機構의 思想은 멀리 「그리자아」 時代에 이미 發生되어 都市國家들이 인종의 平和機構를 形成하고 있었다. 그리 中世의 暗黑時代를 거쳐 民族國家가 誕生되는데 마다 理想主義者들과 學者들이 國際協助 및 世界平和機構에 對한 새로운 構想을 연달아 發表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一三二〇年 伊太利의 詩聖 「단테」는 「帝國論」을 쓰고 「보테미어」의 「파리나」는 一四六一年에 「歐羅巴聯盟」을 提唱하였으며 「홀랜드」의 「엘라스무스」는 一五一七년에 「平和의 呼籲」라는 책을 썼다.

또한 「프랑스」의 「루소」는 「永續的 平和論」 一七五六年에 出版하고 獨逸의 「칸톤」은 一七九五年에 「恒久平和論」을 發表하였는데 理論적으로 完成된 世界平和機構의 構想이었다.

그러하여 「칸톤」가 理論적으로 完成된 世界平和機構의 構想을 第一次 世界大戰에 「윌슨」 美大統領의 提案으로 具體化시켜 가지고 國際聯盟이 誕生된 것은 一九二〇年이었다.

그런데 國際聯盟에는 그것을 扼해서 提唱한 「윌슨」 大統領의 努力에도 불구하고 議會의 不認准으로 美國의 加入이 不可能하였을 뿐만 아니라 「터키」도 또한 參加하지 않았다. 소련은 一九三四年에 비로소 加盟하였다가 四年後에 「핀란드」를 侵略하였기 때문에 除名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렇게 誕生始初부터 苦楚를 겪기 시작한 國際聯盟은 一九三三年부터 日本·獨逸·伊太利 등이 연달아서 脫退하기 때문에 차츰 有名無實한 存在로 남게 되었다. 더구나 一九三九年 나치스·獨逸의 「폴란드」 侵略으로 第二

슬프지 않은 이유

특정 외래품을 내어 놓고 팔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C는 혹시나 오를쯤이면 여려가지 외래품들이 헐값이 되려니 생각하고 명동 쪽으로 가는 퇴근 뺨스를 땀다. 아직도 초저녁시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교통정리 순경은 땀을 뿜뿜 흘리면서 긴장된 표정이었다. C는 우선 N과자점에 들어가 팟빙수를 시켜놓고 주머니속을 계산하였다. 월급을 받은지도 불과 일주일일이 못되는데도 겨우 합쳐서 오천구백환! 그만해도 웬만한 남방샤쓰와 면도날 한갑쯤은 살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C는 빙수값을 치루고 마흔편 M백화점으로 들어갔다. 백화점은 때를 만난 듯한 사람들로 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아래층 화장품의 접포에는 쇼윈도우마다 적어도 여나쁜명의 여자들이 물건들을 붙여놓고 값을 흥정하느라 아우성판이었다. 부르는게 값이고 싶은

코바우 증위

면 그만두라는 듯이 물건을 내려 놓는 장사꾼들의 거만스런 태도가 다시는 그 물건을 팔수 없는 내일의 스프나프시간을 앞두고도 두의 양양한 기세였다. 그래도 여자들은 이기회를 노컬세라 두툼한 뺨에서 전환짜리를 한층씩 꺼내어 값을 치루고 말없이 물건을 사는 것이었다. 엇그제까지도 그렇게 인색하고 한푼이라도 짊으려던 안달스런 사람들이 오늘은 이처럼 인심이 후해지고 손님 하나라도 노컬세라 갖은 아양을 다 펼넌 데파르·결들이 이처럼 도도해 지다니!.

C는 속으로 '알수없는 노릇이구나'하고 중얼거렸다. 면도한갑을 사려고 화장품 가게로 가려던 C는 그 많은 여자들 등살에 흥정도 못해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C는 통로가 때히도룩 뺨뺨한 사람들을 비켜나가면서 공간히 군복을 입은채 들어온것 같다고 생각했다. 군복을 입고 이

런날 백화점에 들어온게 왜인지 좀 쟁피스럽게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C는 그런생각을 하며 서이층으로 올라갔다.

양품점포가 촘촘이 들어선 이층에도 사람들은 적지 않았다. 아래층의 경기 보다는 덜 흥청거리는 편이지만 장사치들의 열골은 그래도 활짝 피었다. C는 사방을 두리번 거리다가 남방샤쓰가 걸린 점포로 가려다 문득 발을 멈추었다. 거기엔 친구 K가 겨울 속내의 퍼코오트, 잠바등을 펼쳐가며 물건을 고르고 그 옆엔 얼마전 약혼했다던 J양이 세타와 하이힐등을 움켜쥐고 흥정하는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C는 약혼식에도가보지 못한 죄스럽과 그들과 마주치면 쟁피할것 같아서 뒤를 돌아 다른 점포를 찾았다. 그런데 C를 부르는 어떤 귀익은 목소리가 등뒤에서 들려왔다. C는 누군가 한참을 두리번 거리다가 오른쪽 구룡이의 쇼윈도우 안에서 손을 쳐들고 자기를 부르는 Y를 보고 그곳으로 걸어 갔다.

Y는 과학동창으로 C와는 학교를 나온 후 네해만에 처음 만나는데 친구였었다. Y는 학창시절에 별로 친통하게 공부는 안했지 만 졸업을 하자마자 당시 정부의 모고위직에 있는 아버지의 덕으로 관청에 취직이 되어 동창들은

모두 Y를 부러워 했던 터이였으나 四·一九혁명으로 그의 아버지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Y는 이번 五·一六군사혁명정부에 의하여 형언기피자로 적발되어 직장에서 쫓겨난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그처럼 대학시절엔 외래품만 갖고 다니던 Y도 지금은 허름한 차림에 얼굴에 뿔기마저 잃는듯이 보였다.

「그래 C군 자넌 재미가 어떤가? 아주 군인 냄새가 풍류나는군」

「나—난 뭐 재미야 그저 그렇

군복을 입은 C를 보고 부러운듯물은 인사말이었지만 Y의 달라진 모습에 정신이 팔린 C는 그저 우물우물 대답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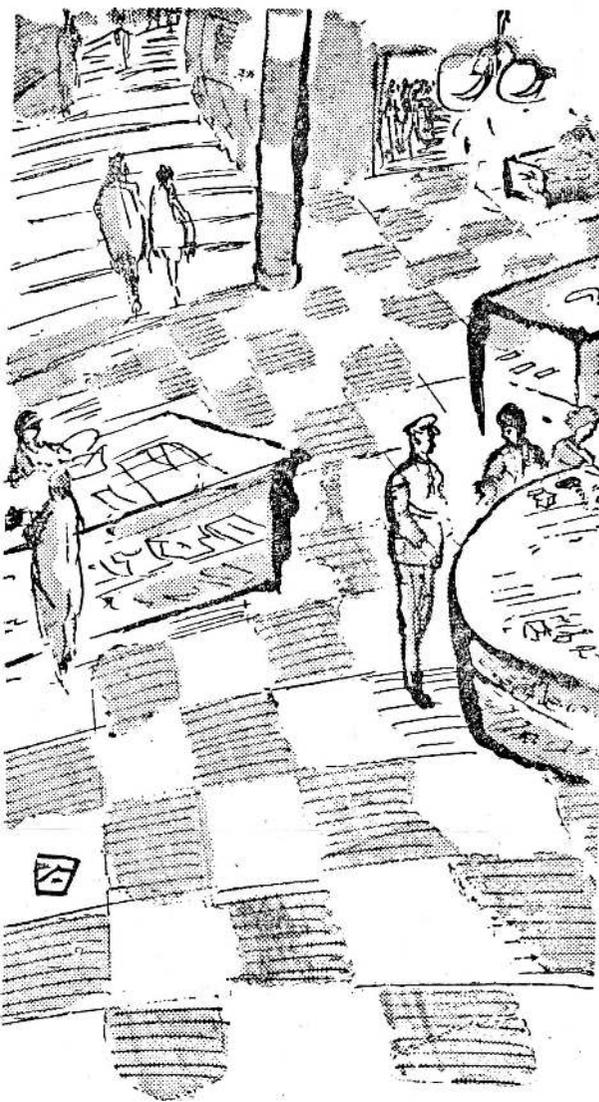
「그래 이렇게 군복차림을 하고 무얼사러 나왔나? 살게 있으면 여기서 골라보게 싸게 싸비스 할테니」

이 말을 듣자 C는 정신이 편져났다.

「아—내가 군인의 신분으로 외래품을 사러 오다니... 더구나 이 단장판에...」

면구스리운 감정이 전신을 흐르자 어떨기던 빨리이 자리를 떠나야 겠다고 생각했다.

「나 같은 놈이 있으니까, Y같은 사람도 있지. 내가 Y보다 나은 것이 무어한 말인가!」



Y는 어느새 장사꾼식 흥정으로 화제를 돌렸다. 그리고 자기 아주머니가 경영하는 점포인데 요즘 손이 모자라 노는 손에 도와 주기 위하여 나왔다는 변명을 털어 놓으면서 바빠서 진말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아무거나 마음 내키는 물건을 골라라고 했다. C는 그냥 돌아가고 싶었으나 이제 와서야는 친구를 그냥 돌아서기도 멧치고 해서 아무거나 한가지를 사가지고 가려고 팔다 남은 듯 한 멧가지 중에서 푸른 바둑판 무늬가 든 남방샤쓰를 골라 값을 물었다. Y는 멧진것을 골랐다고

수선을 벌더니 육천환씩은 받아야 할데지만 삼천오백환에 써버스 하마고 생인심을 썼다. C는 속으로 보통매 팔던 값과 다름이 없었다 생각되었지만 더 짝자고 하기도 싫어 진성으로 고맙다고 했다. 그래 C는 값을 치루려 주머니 속의 돈을 꺼내려 하였다. 「아차」아까 N과 직접에서 빙수 값을 치루고 확인을 했던 왼쪽바지 주머니의 오천전백환이 백환짜리 동전 둘만 남고 온데간데 없었다. C는 놀라우면서도 후시나 하고 다른 주머니들을 찾아 보았다. 그러나 틀림없이 오백환짜리

열한장을 소매치기 당하고 동전 두푼만 남아 있었다. C는 얼얼이 화끈 달아 올랐다. C는 겨우 Y에게 쓰던걸 도루 풀르라 하곤 어리둥절 말 한마디 없이 사람을 속을 지나 총총매를 급히 뛰어 내려갔다. 물진하나 못사들고 나오는 초라한 꼴을 누구에게라도 들킬까봐 고개를 꼭 파묻고 Y백 화점을 나와 한참을 바쁜 걸음을 내달어 소공동길을 빠져 나온후 C는 한숨을 푹쉬고 터덜터덜 맥 없이 점으로 향하였다. M백화점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일을 곰곰히 생각하였지만 언제 주머니 돈을 빼어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C는 물끄러미 천정만 쳐다보며 달배만 빼꼼 거렸다. 거만스런 데파트걸의 앞미운 모습과 돈을 물 쓰듯하던 인심 좋은 고객들의 수많은 얼굴들 그리고 C속에서 당황해 하든 자기의 모습이 푸우하고 내어쫓는 연기속에 어론 거렸다. C는 화가 치미는 잠정을 겨우 잘아 앉히고 적간신문을 펼쳤다. 큼직한 사진과 장기알만큼이나 큰 활자와 백발 걸을 엮어 쓴 톱기사가 언뜻 눈에 띄었다.

「마지막 사치—— 부르는게 값 백화점은 말차 뒤집혀, 화장품 七, 八환이 가짜인데」C는 기사의 제목을 보자 머리가 멧하게 울렸다. 백화점의 봉돈을 매우듯 아우성을 치던 사 람들, 멧해를 두고 쓸 화장품을 이십여 만환여 치나 사던 정신병자들의 모습이 다시 눈앞에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M백화점에선 가짜 화장품을 살려는 사람들을로 들끓고 있을 것을 생각하며 이악 몽갈은 밤이 어서 지나기를 바랐다.

열집에서는 육천환짜리 코티본을 만이천환씩이나 주고 사온 안해를 꾸짖는 남편의 소리가 정하니 골목을 울렸다.

(筆者·空軍大學勸務)



南窓雜記

李元馥

해발 천이백 사십일 「메터」의
 립준한 백암산 중봉.

밤이 열비쳐 희부연한 준령(峻嶺)에는 지루하도록 눈이 내리고 있다. 몇날을 두고 삼과 죽음의 울부짖음이 침침한 하늘 끝에 사모쳐 있는 이 준령도 이 밤은 싸늘하다. 싸늘한 정밀만이 간간 눈음인 무거운 관복가지들 전를 시킬 뿐. 그리고 한박눈은 물결처럼 이 곳을 간만(干滿)한 수 많은 전설을 고이 묻어 두기 위해 쓰린 상처와 처러운 기억위에 한일한 일 조화(吊花)같이 쌓이고 있다.

이 눈으로 이 준령의 노루와 멧돼지들까지도 길을 잃은채 음짜을 못했다.

동굴속에 앉아서 내려쌓이고 있는 눈송이를 내다보고 있는 승(僧)은 이따금 북방쪽에서 들려

오는 포성보다 그 포성에 늘랜 맹수들의 울음소리와 그리고 내리질듯 내려쌓이는 눈을 오히려 더 불안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음산한 언덕 위에 설정한 보초선으로 나가야 했다. 보초임무 시간이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얼마 후 그는 마지막해 자리에 서 일어나 손바닥으로 턱을 쓰다듬었다. 짐승처럼 사람의 눈을 피해 힘찬 준령에 숨어 있었던 기나긴 시간이 그의 턱과 뒷머리에 흐르고 있었다. 가맛술 같이 거치른 턱수염, 뒷덜미를 뒤덮은 머리카락. 그리고 영양실조로 그의 몸은 무심도루 빼만 남아 있었다. 그는 때만 남은 손에 쏘제 아식 보충을 들고 엉클음음 보초선으로 기어 나갔다.

백암산 아지트.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아지트는 최후의 교두보였다.

연합군의 반격으로 낙동장전선에서 패전을 당해 소속대까지 잃고 겨우 무승만을 견뎌다가 고을에도 없�이 백암산에 집결한 인민군 패잔병인 그들은 이 지점을 죽임으로 지켜야만 했다. 그리고 그들은 살기 위해서 유격대까지 편성을 했다.

그들은 이 패잔병들의 집결처를 태백지구 제일 인민유격대라고 불렀다.

대 명칭은 어마어마 했지만 그러나 총인원은 열두명의 지나지 않았다. 처음 그들이 이곳에 집결했을 때의 병력 수는 유실을 낳았었다. 그 후 수회에 걸친 지방 방위대의 토벌작전으로 많은 대원들이 사살을 당했지만 그보다 기아와 혹한에 이겨나지 못해 쓰러지는 자와 귀순자로 지금 그들의 수는 겨우 열두명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들의 패배는 무력에 의한 전투보다 귀순자들에 의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그런 까닭으로 승은 귀순자들을 적 이상으로 미워하는 처하게 오늘날까지 자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왔었다.

그들이 한강 아지트에서 최후의 교두보인 백암산 아지트로 옮

겨운지도 벌써 닷새가 지났다.

더구나 이런 처지에 놓여있는 그들에게 연락 루우트가 두절된 관계로 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지 알리도 없었고 더구나 원군 같은 것은 바랄 처지도 못되었다.

이렇듯 열두명의 인산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백암산 아지트에 목숨을 걸고 아사를 기다리는 자유, 그것 만이 그들의 유일한 최후였다. 이렇게 죽임 일보전에 직면하고 있는 그들은 차라리 영웅이 되기 보다는 흡사 미물에 가까운 존재였다.

삼일전.

그날이 바로 소유하고 있던 식량이 마지막 떨어지던 날이었다. 아사직전에 직면한 열두명의 인원이 토굴 속 어두컴컴한 등잔을 밑에 모아 앉아 비장한 결의 아래 구수회의를 열었다. 죽임과 공포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회의였다. 그러나 회의는 두시간이나 계속되었지만 유별난 전략이 서지 못했었다.

아사를 기다릴 것인가?

국군에게 귀순할 것인가?

토벌대의 포위망을 뚫고 식량을 조달해 올 것인가?

이 세가지 조항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은 귀순한다는 것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그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좀처럼 흘러나올 리 만무였다.

귀순이라면 배반이고 반역 행위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배반자에 대한 처단을 글자 그대로 무자비하게 했다.

그렇다고 그런 처단의 두려워서 굽으려고 앉아 할 말을 못하고 있는 승은 자신을 몹시 괴로워했다. 주와와 사상이 피보다 진할 수 없다는 것은 중대신이 수없는 전투에서 경험한 그대로였다.

그러나 승은 이날 열한명의 눈과 귀가 있는 앞에서 끝내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다만 이날의 결론은 끝까지 아직 죽임만을 기다릴 순 없었다는 것이었다. 토벌대의 포위망을 뚫고 식량을 조달해 오자는 것이 압도적이었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의 일부는 식량을 구할 목적으로 눈길을 돌려 산을 내려갔다. 다만 백암산 아지트에 남은 것은 유격대장이며 인민군 대위인 선덕(善德)과 인민군 중위이며 유격대에서 문화책을 맡고 있는 영식(英植) 그리고 승 세명 뿐이었다.

죽지 않으려고 대원들을 하산시킨 대장 선덕의 일말엔 진중일우울과 불안이 가시질 않고 있었다. 그것은 산을 내려간 대원들 중에서 있을지 모를 배반자 때문에 앞서는 격정이었다.

X X X
낮엔 영식이 가 보초를 쳤다. 그

러니 발부터는 물론 승이가 보초를 서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구도에 달한 굽주림과 피곤은 모든 일체를 귀찮게 만들었다.

꽃등에 떨어지는 눈송이가 더욱 차기만 했다.

넋적하게 빠져나온 바위 밑으로 가서 앉은 승은 손에 들고 있던 장총을 무릎 위에 올려 놓았다. 그리고 팔장을 끈 채 굳어 버린 듯 움직도 않고 있는 나뭇잎처럼 언덕 밑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경계하는 긴장한 눈초리가 아니라 이미 얼얼 불은 듯 실은 동공의 부의식적인 동작이었다.

얼마 후 옷소매로 스며드는 차늘한 감촉으로 승은 무릎에 놓은 소총 맨방을 가만히 어루만져 보았다. 따작하고 고리가 총현무판을 치는 소리를 냈다. 견디기 어려운 죽임같은 고통이 그의 전신을 엄습했다.

그러자 연합군의 포성 소리가 웅준한 준병의 빙판을 타고 들려왔다. 포성과 눈송이와 그리고 험한 산이 있다는 의식조차 승은 이따금 잊고 있었다. 다만 멈추지 못하고 지루하게 나리고 있는 눈이 비스스럼다구만 할 수 없는 탈주병을 연상시켰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승은 탈주병보다 더 비겁스러운 자기 모습을 발견하곤

했다.

공포와 불안과 긴장에 쌓여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때면, 똑하고 바위 위에서 울러 떨어지는 돌덩어리 소리에 또 다시 겁에 취한 자기를 발견하곤 했다. 그때마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본능을 되찾으려고 발바닥을 쳤다.

— 등진 모든 자유. 전일 수 없는 굶주림과 공포. 그런 속에 서 더욱 무마르게 바래지는 자유. 탈출이 무서우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유의 자유. 파상적으로 밀려 다니는 자유에의 그리움. 그 그리움 속에서 더욱 생생히 되어오르는 하나의 결단점—

그 결단점은 바로 탈출이었다. 진정한 자유가 이 백암산 속에 있을 것만 같은 환상에서 오늘날까지 탈출을 망서려 왔던 송이였다. 그러나 지금 그는 무력했던 자신을 통감했다. 그리고 자기 운명의 현존을 깊게 느끼며 참다운 행동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단 조로움이 빛어내는 주위의 광량한 풍경과 등물까지 무렁무렁 울리는 굶주린 빈창자의 움직임에 승은 기력을 제대로 감당해나갈 수 없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맑아지는 달빛도 그의 의식은 또렷해왔지만 누운 총대를 의지하고 있는 몸은 자꾸 옆으로 쓸어져 갔

다.

— 이대로 앉아서 쓸어져 죽어야 할 것인가—
이런 강박의식이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아직 보지 못했던 뜨거운 눈물이 그의 얼어붙은 눈가를 밀어내려 내렸다. 누운 장총을 겨우 의지하고 일어난 승은 다시 낭떠러지를 굽어 보았다. 다만 간헐적으로 준령을 타고 흐르는 메아리만 울릴 따름이다.

— 미친 놈들…… 이 산중에 무슨 자유가 있다구 빙판위에서 보초를 서게 한단 말인가—
그리고 승은 누운 총을 손에 들었다. 따각하고 고리가 총신육판을 치는 소리도 들었다. 승은 손에 든 총을 가만히 들여다 보았다.

— 이따위 총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그는 들고 있던 총을 그대로 낭떨어지 밑으로 내던져 버리고도 싶었지만 행동상으로는 언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눈에 무서운 절망의 그림자가 날개를 펴 왔다. 이 준령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존재.

— 이런 생활을 하루라도 더 계속해야 한다면 차라리 자살을—
승은 밤이 되올에 손코락을 끼고 총구멍을 이마에 갖다 대었다. 아무런 느낌도 생각도 오지 않았

다. 열었을 총구멍이었지만 차기 음조차 느껴볼 수 없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허덕여 온 것은 자유를 찾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를 자신이 박탈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새로운 생각에 전율을 느꼈다.

그렇다고 한번 잠은 방아쇠에 서 손코락을 빼버릴 수 없었다. 승은 캄캄한 하늘을 바라보며 웃음을 웃음을 썼다. 웃었다. 지금 그는 자신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 기뻐던 것이다. 승은 하늘을 향해 총구멍을 쳐들었다. 순간, 준령을 휘흔드는 듯한 요란한 총성이 계곡을 울려가다 어느새 뒤 돌아 이 쪽으로 다시 울려 왔다.

승은 비란간 통쾌스런 웃음을 터뜨렸다.
삼팔선에서 낙동강 오르내리는 전선에서 수천 수만발의 총을 쏘아 본 승이었지만, 지금 같은 통쾌감을 느껴보진 못했던 것이다. 총탄을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애써 하는 그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밤, 승에겐 그런 규율이 필요치 않았다. 그것을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었다. 이 험한 준령 속에서 자기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 승이로선 지금 그런 것에 구애받아야 할 아무런 근거도 갖지 않았다.

승은 또 방아쇠를 다렸다. 두 번째의 요란한 총성이 준령을 휘흔들어 놓았다.

『야! 하늘도 나처럼 멍털거리구나』
하늘을 향해 소리치고 난 승은 또 썼다. 웃었다. 그 웃음은 조소가 아니었다. 마음 속으로부터 울어 나오는 진정한 기쁨을 억제치 못해 웃는 웃음이었다.

× × ×
때아닌 두 발의 총성으로 자트라지게 놀랜 것은 백암산 아지트 속에 남아 있던 선덕이와 영식이었다.

선덕은 영식보다 더 가슴이 활랑거렸다. 그러지 않아도 식량을 구하러 산을 내려간 대원들을 저정하고 있었던 때라 그의 들렘은 단 때에 비할 바 아니었다. 그중 첫이 먼 곳에서 도 아니고 바로 동굴 밖에서 울리는 소리니 심장이 뒤집히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영식동무! 이제 무슨 총소릴 까?』
공포에 쌓여 있는 선덕은 안타깝게 영식의 대답을 기다렸다. 때 전디기 어려운 침묵의 순간. 대답이 없는 영식의 가슴도 심한 등요를 일으키고 있는 듯했다. 선덕은 영식에 게로 한 걸음 다가 앉았다.

『영식동무!』

영식은 선뎌를 거들며 보지도 않고,

『나도 영문을 모르겠는데요.』
『그럼 빨리 나가서 주위의 동정을 살펴보세요.』

그런 선뎌의 말에 영식은 등을 떠밀어 붙여서 같은 공포를 느꼈다.

단 둘 뿐이지만 어찌까지나 선뎌의 말은 명명이었다.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지만, 그것보다 영식은 바깥일이 더 궁금해왔다.

영식은 모든 공포와 불안을 짓누르고 동굴 밖으로 나왔다. 그는 곧 눈썹인 나무 밑에 이르러서 주위의 동정을 살폈다.

승

가까운 어느 바위 밑에서 자기 모양으로 주위의 동정을 살피고 있을 승의 존재가 궁금했다.

그 때 앞쪽에서 소스라치게 웃는 승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영식은 멈춰 그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 웃음소리를 한참 듣고 있던 영식은 그 소리에 놀라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일마 후, 방금 전의 그 총과 같이 승의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영식은 저우히 놀래기도 했고, 한편으론 안심도 했다.

그는 곧 보조선이 있는 바위 밑으로 내려갔다.

『승동무! 그게 무슨 작난이야.』

날카로운 쏘아치는 영식을 힐끗 쳐다보는 기호 눈썹 살기가 흐르고 있었다.

『왜? 자네까지도 불만인가? 멧돼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총으로 하늘을 쏘았다고 무슨 잘못인가?』

홀어진 머리와 살기가 흐르는 승의 두 눈이 조심성 있게 영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눈길을 바라보고 있는 영식은 아무런 대답을 못했다.

『영식동무, 이제 나에게 이따위 총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총으로 자유를 구속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잘못이라는 것을 난 비로소 알았네. 그러구 보니 동무나 나나 다 바보들이었어. 그래서 이 총이 나에게 필요 없단 말이야. 그렇다고 총을 동무에게 준다면 나를 구속하고 또한 동무 자신의 자유도 억압할 걸세.』

그리고 승은 들고 있던 총을 손수건 낭떨어지로 내동댕이쳤다. 바위에 부딪치며 떨어지는 쇠소리가 요란했다.

순간 영식은 승의 어린애 같은 태도에서 별안간 치미는 처분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들고 있던 장총을 승의 가슴을 향해 겨누었다.

『그럴 줄 알았다. 내 가슴에 다 그 총을 겨누면 어떻게 하겠단 말인가? 쏘겠단 말인가? 하하하!』
승은 영식의 행동을 몹시 조소하듯 웃었다.

대(隊)를 파괴하고 배반하는 자를 향해선 즉석에서 처결한다는 지금까지의 사고가 무의식중에 선행하여 취한 영식의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조소하듯 크게 웃고 있는 승의 대답성 앞에 총을 겨누고 있는 영식은 오히려 부끄러운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그는 총을 다시 어깨에 짊어지고 나서 흥분하고 있는 승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승동무, 진정하오. 내가 잘못했소.』

영식의 말은 극히 부드럽렀다. 『진정을 하다니 어떻게 진정을 하란 말인가? 나는 이런 밤이면 신장이 잘기 잘기 찢겨나가는 것 같아 진정할 수가 없어.』

그때 영식동무는 절망분인 이 산속에서 자유를 그리워했다는 진 모르나, 그것을 발견해 본 일이 단 한번이라도 있나? 말해봐!』

일마 말지 않는 곳에서 굼주린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영식동무, 이 무서운 억압에 따르는 굴복과, 발광할 듯한 기아 속에서 자유가 자라날 수 있

다는 논리는 인간을 배신한 더구나 그것은 공산주의자들만 이 할 수 있는 말이었지! 자유란 어찌까지나 퍼듯한 인간의 마음에서 있는 것이야. 나도 바로처럼 그것을 모르고 내왔단 말이야. 나는 지금 그 자유가 그리워서 이곳에 더 있을 수가 없네. 동무, 그러구 보니 내가 무서운 반역자이지? 내가 이런 말을 동무앞에서 공공연하게 하고 또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벌써 동무들로부터 삶에 대한 자유를 박탈당해야 했을 걸세. 살육으로만 혁명이 있고 자유가 있다나 이런 생각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승

또렷하게 말하고 난 승은 맑은 눈으로 다시 영식을 바라보았다. 영식은 말이 없었다.

『동무! 선뎌가 같은 무지한 늑은 항상 이런 말을 우리에게 했었지! 사람은 자기 생명에 한 개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 우리가 만일이 산속에서 그 놈의 말대로 "해방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보세. 우선 사람이 살고서 "해방"도 필요한 것이지 내가 죽은 뒤에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말

이야. 그렇지!』
영식은 지금까지 승이 해온 말을 하나하나 기억은 할 수 없어도

인간이 살고 있는 마스한 마을이
적잖 그리워 왔다.

그리고 승의 말대로 가난할망
정인정이 흐르는 속에 근심도 위
협도 없이 살아가는 산넬이 먼마
음들이 상상을 초월하여 눈앞에
어른져 왔다.

—나 역시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과 함께 모든 과거를
수포로 돌려야 할 자기가 괴로워
왔다.

『승동무, 그럼 어떻게 할 예정
이유?』
영식은 승의 손을 안타깝게 흔
들면서 물었다.

쿵! 쿵! 하고 멀리서 포소리가
가 들려왔다. 다가왔다 멀어졌다
그리고 또다시 되돌아 오는 포
소리.

『동무! 지금 저 포소리를 들
었지! 아무리 우리가 이 산속
에서 고생을 해도 필요없는 것
이야. 난 가겠어. 자유에 굶주
렸으니까 결사적으로 자유를 찾
아 가야지—』

『우리가 이곳을 버리고 산을 내
려간다면 능히 살 수 있을까
요?』

그런 영식의 물음은 단 펄쩍박
했다.
『이 못난 사람같이니! 그 따
위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카오
늘까지 이 산속에서 요 고생을

먼저 못하고 있었던 거지—』
승의 그 말은 영식의 가슴속을
아프게 찔렀다.

『동무! 난 자유를 누리며 아
늑하게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아
가겠어—』
『승동무!』

영식이 부들리고 하는 손을
뿌리친승은 눈 쌓인 길 없는 날
카로운 바윗길을 걸어 내려갔다.
그 순간 그는 승 모양 눈 쌓이
는 남편이 지 밀어오 장총을 내동
댕이쳐 버렸다. 그도 이제 그런
무기가 소용없다고 느꼈던 것이
다.

승이 대를 배반하고 자유를 찾
지 않고는 버려날 수 없었던 심
정을, 총을 버리고 난 뒤에야 영
식도 깨달을 수가 있었다.

역시 승이 산을 내려간 것은 배
반이 아니었다. 다만 일간애의 길
을 담당하게 되어 간 그것 뿐이
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동물을 바라
보았다. 그리고 괴로움을 이기려
는 듯 지긋이 눈을 감았다. 그 일
순에 영식은 자기의 과거를 일별
했다. 공산치하에서의 가진 시절,
온갖 전투에서 많은 고통과 슬픔
을 참으며 생명을 잇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던가. 그런데 지금은 공
포와 아사 직전에서 허덕이는 몸.
그리고 목숨을 걸어 논 백암산 아
지트.

영식은 이제 아무도 겁나는 것
이 없었다. 다만 과거가 후회스
려울 뿐이었다.

한박송이같은 눈은 그의 어깨
위에 한 잎, 한 잎 내려 쌓이고
있었다. 그는 또 한번 동물을 울
려 보았다. 그 동물 속에서 새로
운 음모를 꿈꾸고 있을 선덕의 모
습이 번개처럼 그의 눈앞을 스
쳐갔다.

—그들을 죽이고 가야한다—
그는 선덕을 죽이고 떠나겠다
고 결심은 했으나 총이 없었다.
버린 총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
을 허비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는 비상 호신용으로 가슴속에 숨
겨 가지고 다니던 쏘제 때때권
총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천천
히 동물을 향해 올라 갔다. 가슴
이 후를 거렸다.

『선덕동무! 품착 말고!』
동물밖에선 선덕의 가슴을 겨
누고 날카로이 쏘아치는 영식의
무소리. 아무 영문도 모르는 선
덕은 컴컴한 동물속에 멈춰 그 자
리에 섰다.

『나도 자유가 그리워 배반을 하
련다. 나도 이제 참된 인간이
되려고—』

영식은 선덕을 죽이질 듯이 쏘
아 보았다. 그러나 말없이 영식
을 맞쏘아 보고 있는 선덕의 얼
굴엔 한오리 공포의 빛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경화된 선덕의

얼굴에서는 담이 흘러 내리고 있
을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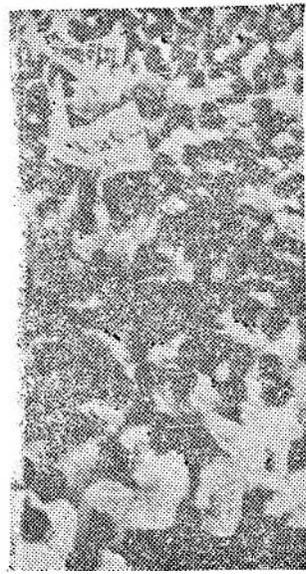
『이제 선덕동무는 날 반역자라
구부를 떼지?』
그리고도 영식은 망아쇠를 쉽게
다릴 수가 없었다. 총으로 선덕
의 가슴을 겨누고 있는 그의 마
음은 까닭없이 설레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더 이상 겨누고 있을
수만 없는 일이었다. 그는 두눈
을 스투르 감으며 힘껏 망아쇠를
당겼다.

탕! 탕! 탕!
세발의 총성은 고요한 준령의
세벽 공기를 무섭게 뒤흔들어 놓
았다.

세발의 총탄을 맞고 땅바닥에
쏟어진 선덕은 가느다란 비명으
로 그의 마지막을 알리고 있었
다.

영식은 비명마저 끊어진 사체
위에 권총을 내던지고 천천히
동물 밖으로 나왔다. 차거운 바
람이 밤에 느껴지는 것으로 보아
이마에 담이 배어 오른 것 같았
다. 그러나 몸과 마음은 호젓해
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소대로
이마를 한번 쓰담고는 멀리 부의
연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는 한번
빙그레 웃자 일흔 그 곳에서 남
쪽으로 힘찬 발걸음을 옮겨 놓았
다.



附錄

〈特別政訓教育資料〉

一、再建國民運動의 性格

二、軍事援護關係 法律制定의 趣旨

一、再建國民運動의 目的과 本質

一、再建國民運動의 目的과 本質

再建國民運動에 關한 法律 第二條에 依하면 『全國民이 清新한 氣風을 培養하고 新生活體制을 堅持하며 反共理念을 確固히 하는 것』을 再建을 爲한 國民運動의 目的으로 規定하였다. 이 規定은 곧 過去의 모든 腐敗와 不正, 그리고 痼疾이런 諸般 舊惡과 舊習을 一掃하고 國民으로 하여금 眞正한 民主意識을 잔직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國民運動의 目的임을 뜻한다.

解放後 十五年間에 걸쳐 걸어온 우리들 國民의 生活는 너무나 非正常的의이며 不健全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랜 時日에 걸쳐 하나의 習性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正常的인 生活態度같이 느껴지고 있으며 도리어 健全한 國民 生活인 것 같은 錯覺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이러한 正常的인 것 같은 면서도 實은 非正常的인 生活態度를 排除 止揚하고 一見非

正常的인 것 같이 느껴지는 새로운 正常的인 生活態度로 돌아가는 데에 國民運動의 第一次의 目的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生活의 正常化가 이루어진다면 國民各者의 衣·食·住·行에 걸친 內的 外的인 生活態度에 있어서 過去의 非正常的의이며 不健全한 要素가 一掃될 것이며 이에 따라 올바른 自由理念과 참된 民主意識이 確固하게 그 뿌리를 박을 수 있게 될 것이니 그래서 부터는 過去와 같은 腐敗와 不正의 畧은 없을 수 없다.

要컨대 再建國民運動은 眞正한 民主主義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意識을 國民各者가 간직하도록 하는 것이 그 最終의 目的인 것이다. 前者에서 말한 生活의 正常化와 後者에서 말하는 참다운 自由와 民族理念의 確立은 表裏關係에 있는 하나의 目的으로 看做될 수 있고 이러한 目的이 達成되는 날에 있어서 國民의 眞重한 한 票로써 그야말로 國民革命의 精神에 透徹하고 軍事革命主體와 一心同體인 淸

新한 人士가 이 나라 政治界에 登場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피와 땀은 곧 經濟的 自立的인 土臺가 될 것이며 우리들 國民의 一擧手 一投足은 社會面을 물막게 할 것이니 이로써 이루어지는 民主力量은 共產徒輩과 對決해서 能히 勝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革命公約 第一에 揭示된 反共理念의 確立을 비롯하여 그 第六에 明示된 嶄新한 政治人의 登場을 可能케 하는 捷徑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國民運動의 目的을 達成하는데 있어서 는 무엇보다도 全國民의 自發的인 運動展開가 緊要한 것이다. 元來 國民運動의 本質은 舉國的인 民意에 依하여 自發 自進하여 展開되고 同一의 目的을 同一한 理念으로써 爭取하려는 全國民의 活動에 不外한 것이므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래로부터의』 運動이 아니라 안된다. 따라서 政府가 이러한 運動을 直接企劃 指導하거나 政府機構化한다는 것은 確實히 國民의 自發的인 總力發揮을 阻害할 慮가 없지 않음도 事實이다.

그러나 五·一六 軍事革命 以後의 國內情勢에 비추어 이러한 運動을 自然發生的 推進에만 待期하기 困難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이 理

解할 수 있는 것이니萬若에『아래로부터의』自進運動에放任한다면 자칫하면分派的作用으로因하여激甚한混亂이惹起될 것은八·一五直後の前例에 비추어 보아明若觀火한事實이며 이로써 도리어革命課業의遂行은 커다란障害로 말미암아 그成就가 어렵게 될 것이明白하다.

그러므로革命政府는國民運動의緊要성에 비추어不可不이를育成指導할必要를 느끼게 되었으며國家豫算을策定配當하여이運動의實踐의活動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國民運動의根本趣旨가救國愛族의一念에 붙타는革命政府의純粹한意圖의發散에 틀림 없을진대他律的方式이登場한다고 하여 이를排擊非難한根據는 있을 수 없으며國民은 기꺼이 이를 받아 드려야 할 것이다.

우리의國民運動이革命課業完遂라는大目的을正確히把握한全國民의끓어오르는氣魄과일어나는迫力의 커다란律動이라고 볼 때 이는國民各自로서必然化된運動인 것이다. 이것 없이는國家와民族은共產化되고 마는 것이다.

八·一五解放以後 우리는六·二五의慘狀과四·一九의試練 그리고五·一六의軍革命을 겪어 왔다. 今般의軍革命은俗談에 있는『삼세번』이란 말과같이 우리의國家와民族史에 있어서 마지막試練임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이번의軍革命課業은期必成就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歷史的歸趨로서成就될 것이明白하다. 萬의 하나라도軍革命課業이順調롭게成就되지 못한다고假定한다면 그뒤에 올것은混亂과無秩序 그리고生産의萎縮과國民士氣의低下等으로서 이는共產敵徒의

노리는바素地가되어終局에가서는共產革命이이나라를 힘쓸고 말것이다. 이點明白하게認識되어야 한다.

一部層에서는아직도革命政府나國民運動에對하여白眼視하고機會主義的態度를取하는者가 있되마는 그들이 과연革命課業의失敗를願한다면그뒤에올共產革命을바라고 있는 것인지反問하고싶다. 이것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容共分子 밖에 없을 것이다.

容共의惡質分子가아니고서國民運動에自進積極參劃하는 것을躊躇하는者가 있다면그들이 그로서 얻어지는所得이란自己滅亡以外的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因果關係를正確히把握할 때는우리들이當然히到達하는國民的自覺은五·一六軍革命政府와生死를 같이해야 한다는確信일 것이고 이러한國民的自覺이 곧國民運動의核心理念이 된다.

二、再建國民運動과組織體制

再建國民運動은以上에略述한과같은目的과本質에立脚하여全國民의自發的協力과自進參加에依하여組織的으로展開될 것이다.

國民運動은單純한行事的開催나 어떠한特定的活動만을일삼는運動이아니라國家再建의實現과完遂를爲하여必要한모든國民活動을組織的으로展開하는運動을意味한다.

따라서國民運動은全國民의舉族的組織을基盤으로삼음과同時에行政府의緊密한連結關係에서展開되어야 한다. 그리고이連結關係는兩者의單純한併行關係를意味하는것이 아니며窮極에 있어서革命課業의遂行이

라는至上目標을達成함에必要한一元的인統合關係를意味하는 것이므로 그것은國家再建最高會議에依하여一元化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서再建國民運動은그本部를最高會議의直屬에 두게되며行政府는이運動에積極協調해야 하는 것이다.

再建國民運動에關한法律第三條第二項에『再建國民運動本部가前項의職務를遂行함에 있어서關係行政各部其他機關은緊密한協助를提供한다』고規定하고 있음의所以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行政府의協調는單純한協助에그치지않고보다積極的으로國民運動을綜合的으로推進展開하는데 있어서再建國民運動本部를中心으로하여一切의國民運動이統轄되도록 되어있다.

前記法律第三條第一項의規定이 곧 그것이다. 즉『再建國民運動本部는前條의再建國民運動에關한諸般政策의指針과方向을定하고그事業의統轄調整指導및實踐에關한事務를管掌한다』고 하였는바 이것은從來에 있어서行政各부가斷片的으로그施策面に關係되는啓蒙事業을行하여옴으로因하여國家全體로서의體系있고綜合的인啓蒙事業의遂行이 어려워졌던事實에 비추어 앞으로는國民運動의綜合的、計劃的 그리고組織的인活動을再建國民運動本部가擔當하게 됨을意味한다.

그러므로國民運動은中央本部の指揮監督下에서特別市와各道에再建國民運動支部를 두며 그長은 서울特別市長과各道知事가兼하기로 하였으니(法律第七條) 이는 곧政府行政機構와의緊密한連結과協助가 없이는

國民運動 本來的 目的과 使命을 達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同時에 行政에 있어서의 再建業務의 遂行이 國民運動의 自律的인 土臺 위에서 비로소 그 圓滑한 進展을 기대되며 그 所期의 成果를 見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行政機構單位와 國民運動 體制의 併行組織은 『區(郡市) 邑 面 洞(里)』 等 그 末端에까지 地區再建運動促進會라는 名稱下에 連結되어 있어서 이디까지나 그 有機的인 聯關性과 相互協助關係를 保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와 同時에 國民各者의 創意에 依하여 組織된 各種의 社會團體其他集團에 集團別 再建國民運動促進會를 設할 수 있도록 하여 이 亦是 國民運動의 綜合的이고 計劃的인 展開과 그 組織의 學國的 有機性을 期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法律』 第八條는 再建國民運動 諮問委員會의 設置를 規定하고 있으나 이는 國民中 指導層에 屬하는 清新한 民間人士들로 하여금 本部 및 支部의 事業遂行에 積極 參與하여 革命의 主體勢力과 呼吸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같이 再建國民運動은 文學 그대도 『國家再建』을 爲한 汎國民運動으로서의 性格과 組織을 갖춤으로서 學國的인 體制를 完備한 수 있는 것이다.

三、再建國民運動의 七個實踐要綱

第二條에서는 再建國民運動의 實踐要綱을 다음과 같이 例示하고 있다 즉

- 一、容共 中立思想의 排擊
- 二、耐乏生活의 勵行
- 三、勤勉精神의 鼓吹
- 四、生産 및 建設意識의 增進

五、國民道義의 昂揚
六、情緒觀念의 醇化
七、國民體位의 向上
勿論 再建을 爲한 國民運動은 만드시 上記 七個事項에 局限되어 展開되는 것은 아니나 『主』로 上記 七個事項을 實踐要綱으로 하여 必要한 民運動을 展開하게 된다.

(1) 容共 및 中立思想의 排擊
容共 中立思想의 排擊運動은 革命公約 第一條 國民運動에 依하여 發 발치 하여 그것을 『아래로부터』 達成하려는 것이다. 즉 革命公約 第一條에 『反共을 國是의 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形式的이고 口號에만 그친 反共態勢을 再整備 強化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五、一六 軍事革命의 大義를 明白히 한 것으로 共產黨의 間接侵略을 粉碎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國民들로 하여금 徹低한 反共思想을 간직하도록 하는 것이 緊要한 事項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中立 思想은 共產黨이 現段階에 있어서 그 世界赤化를 爲한 隱蔽戰術의 하나로서 非共產主義 全域에 浸透시키고 있는 것이므로 그 어떠한 中立思想도 韓國의 現情勢에 비추어 볼때 그것이 容共 思想과 直結되는 것임을 明白히 認識하여야 한다.

(2) 耐乏生活의 勵行

衣食住等 一切의 日常生活로부터 모든 社會生活에 이르기까지 『收入內 支出』의 原則을 지켜야 한다. 過去에 있어서 多數의 國民들이 이 原則을 벗어나서 하나의 虛榮에 不過한 『收入外 支出』을 일삼아 왔을 뿐만 아니라 『不正當한 收入』을 마치 正常的 收入으로 誤認함으로써 여러 가지 不正과 腐敗가 助長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耐乏生活의 勵行運動은 一切의 不正 不法을 未然에 防止하기 爲하여 收入內 支出이라는 生活原則을 遵守하는 習慣을 기르며 나아가서는 生活面에서 忍耐하는 國民氣風을 가짐으로써 앞날에 있어서의 國民 經濟의 伸長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3) 勤勉精神의 鼓吹

前項의 耐乏生活의 勵行運動이 하나의 支出抑制의 節制生活 運動임에 對하여 이 勤勉精神의 鼓吹 運動은 그와 對比되는 出入 增加 運動이라고 말할 수 있다. 遊休 徒食하며서 依他的 寄生生活을 하는 懶惰를 一掃하며 一擱千金을 노리는 投機心을 根絶하고 國民皆勞의 健實한 生活 運動을 展開해야 한다. 職業에 貴踐이 없음을 確信하여 어떠한 勞動이라도 從事할 수 있다는 勤勞精神을 函養함으로써 國民所得의 增加를 꾀해야 할 것이다.

(4) 生産 및 建設意識의 增進

民族資本이 貧弱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産業資本의 形成 確保는 하나의 根本的인 課題가 아닐 수 없다. 이 課題는 政府의 經濟施策에 있어서 推進되고 解決되어야 할 것은 勿論이나 國民들의 自覺과 自發的인 生産 建設意識의 增進이 아울러 있어야 한다. 一切의 遊休 資 金을 生産化하는 國民運動이 展開되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이니 國民들의 創意 發 案力의 增進과 貯蓄精神의 函養과 行實을 勸 勵하는 運動과 아울러 힘있는 山川을 保護 育成하고 不足한 資源을 開發하므로써 國民共同의 福祉와 利益을 積極 增進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以上 第二에서 本項 第四에 이르기까지의

實踐要綱은 革命公約 第四의 政府 施策과 表裏를 이루는 만큼 곧 『絶望과 餓餓線上에 허덕이는 民生苦를 時急히 解決하고 國家自立經濟再建에 總力을 傾注한다』한 公約에 對한『아래로부터의』國民再建運動인 것이다.

(5) 國民道義의 昂揚
그릇된 民主意識은 國民을로 하여금 國民으로서의 自覺보다도 個人의 利己의인 利益追求만을 일삼게 하므로 國家社會의 公益性은 無視되고 忘却되게 된다.

過去 우리國民들은 이 點에 있어서 甚한 混亂과 無秩序狀態를 겪었으니 이제 公益 先行의 信條를 生活에 있어서 實踐하고 一切의 不正不義의 原因이 되었던 利己思想을 拂拭해야 할 것이다.

(6) 情緒 觀念의 醇化
低俗 猥褻한 風潮를 生活周邊에서 一掃하고 健全하고 着實한 趣味生活을 營爲하느라 마음의 後進性과 墮退性을 打破해야 한다. 頹廢的이고 厭世의인 感情을 버리고 明朗하고 希望에 넘치는 生活感情을 기르도록 하는 國民運動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緊要하다. 前項의 國民道義의 昂揚運動과 함께 이 情緒觀念의 醇化運動은 革命公約 第三의 目標을 達成하는데 있어서 不可缺한 國民運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革命公約 第三은 『이나라 社會의 모든 腐敗와 舊惡을 一掃하고 頹廢한 國民道義와 民族正氣를 다시 바로잡기 爲하여 清新한 氣風을 振作한다』고 밝혔다.

(7) 國民體位의 向上
健全한 精神은 健全한 身體에 깃든다고 하는 말과 같이 國民運動에 있어서 國民精神의 革命을 達 成하기 爲해서는 國民體位의 向上運動이 아울러 展開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健全한 國民體育運動으로써 國民體位의 向上을 期한다는 것은 國土再建의 國力培養에도 寄與될 수 있는 것이다.
※ 以上の 七大要綱의 各要綱別 運動內容을 一瞥하면 大略 다음과 같다.

- 一、容共中立思想 排擊
- (一) 共產主義를 理論的으로 批判하고 北韓의 實情과 慘狀을 調査 分析 및 暴露한다.
- (二) 民主思想에 對한 啓蒙運動
- (三) 民族矜持 昂揚運動
- (四) 國際協同精神 運動
- 二、耐乏生活의 勵行
- (一) 耐乏生活運動(收入內支出生活運動)
- (二) 衣服簡素化 運動
- (三) 生活合理化 運動 衣食住의 改善
- (四) 儀式·行事簡素化 運動
- 三、勤勉精神의 鼓吹
- (一) 再建勤勞精神 昂揚
- (二) 國民貯蓄運動의 展開
- (三) 賭博 및 射倖行爲의 禁止、一四、生産 및 建設意識의 增進
- (一) 創意發案力 昂揚運動
- (二) 生産技術 習得運動
- (三) 資源保護 運動
- (四) 協同의 生産活動 運動
- 五、道義心 昂揚運動
- (一) 環境淨化 運動
- (二) 公衆道義 昂揚 運動
- (三) 交通道德 昂揚 (a) 時間 嚴守 (c) 期日 內에 自進納稅
- (四) 職場道義 昂揚 運動
- (五) 不正 腐敗 一掃 運動

- (六) 奉仕運動
 - (七) 商道義 昂揚 運動
 - (八) 家族計劃 運動
 - (九) 派閥根絶 運動
 - (十) 國民總團合 運動
 - 六、情緒觀念의 醇化
 - (一) 建設의인 國民歌謠皆唱 運動
 - (二) 健全한 藝術的 趣味의 勸獎
 - (三) 健全한 娛樂의 助長
 - (四) 公共施設愛護 運動
 - (五) 地域文化開發 運動
 - (六) 農產物 民藝品 獎勵 運動
 - (七) 人間文化財表彰 및 傳統繼承 獎勵 運動
 - (八) 日常用語의 醇化
 - 七、國民體位의 向上
 - (一) 再建體操 普及 運動
 - (二) 民俗技藝 獎勵 運動
 - (三) 健全한 運動精神의 確立
- 四、再國民運動의 行動方針과 事業
- 再建을 爲한 國民運動은 前章 七個實踐要綱에 依하여 果敢한 實踐運動이 『아래로부터』展開될 것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行動方針에 依據해야 한다.
- (一) 組織的인 國民運動
- 人間의 活動이 다른 動物에 比하여 越等하게 發展的인 것의 理由는 組織的인 活動을 人間만이 實行할 수 있다는 데 있다. 相互協力으로 有無相通하고 相扶相助하는 가운데 비로소 人間은 宇宙의 王이 될 수 있는 것이다. 國民들이 제 아무리 훌륭한 愛國愛族의 思想을 제 마다 지니고 있다고 한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組織的인 運動으로서 展開되지 못한다면 所期

의 成果를 보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國民運動은 『國民組織』을 그 하나의 基本事業으로서 遂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國民組織』은 어디까지나 『아래로 부터의』 國民運動을 展開함에 있어서 必要한 組織體에 不過한 것이므로 全體主義의 國民組織과는 그 原理를 달리할 것은 勿論이며 어떠한 政治的 團體나 이른바 壓力團體가 아닌 純粹한 國民運動 組織體인 것이다.

(2) 人物養成의 國民運動

國民運動이 全國民의 律動的인 만큼, 이는 사람에게 依한 組織의 運動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多數의 小英雄이 要求된다. 既成政客의 沒落이 必然視되는 이 마당에서 새로운 人物이 創造되어야 하고 國民의 새로운 小指導者가 多數 登場해야 한다. 그러므로 國民運動에 있어서는 五、一六軍事革命을 積極支持하고 革命의 主體와 더불어 共生共死하는 在野의 清新한 人士를 登用하여 이 運動組織體의 核心이 되게 해야 한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再建國民運動은 새로운 再建國民運動을 遂行하게 된다. 再建國民運動訓練所가 設置된 것은, 곧 이러한 國民運動의 根本方針에 依據한 것이다. 이러한 精神訓練을 통하여 輩出되는 多數의 小指導者는 五、一六軍事革命의 主體的指導者를 頂點으로 하여 卽시한 式으로 널리 國民大衆에 파고 들어 가게 될 것이다.

(3) 計劃的인 國民運動

무릇 어떠한 事業이든지 周到한 計劃이 없이는 決코 그 成功을 볼 수 없다. 國民運動亦是 體係있는 計劃的인 運動이 되어야 할 것은 贅言할 나위도 없다. 一時的인 彌縫策으로서의

國民運動이란 있을 수도 없거나와 決코 成功을 얻을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連續性을 가진 順次的인 計劃 아래 모든 目標는 遂行되고 達成될 것이다. 根本的인 것과 枝葉的인 것을 가리고 第一次的인 것과 第二次的인 것을 나누어서 一切의 實踐을 計劃的인 것, 連續的인 것, 展開해야 한다. 또한 短期的인 것과 長期的인 것과의 區分도 綿密히 檢討되어야 한다.

(4) 民主的인 國民運動

國民運動은 본래 『아래로 부터의』 運動이다. 따라서 그것은 國民各自의 自發的이며 自進參加하는 文字 그대로의 國民運動으로서 民主의 性格을 지녀야 한다.

再建國民運動이 現實的인 諸條件으로 인하여 그것이 政府에 依하여 推進을 보게 되었으나 이러한 現實的인 條件은 다만 하나의 『點火의 役割』에 그쳐야 할 것이며 어느 時期에 가서는 반드시 國民의 民間運動으로서의 轉換을 보게 될 것이다.

(5) 伸縮性 있는 國民運動

廣範圍한 國民全體의 運動으로서의 國民運動은 어디까지나 現實에 알맞는 國民運動이 되어야 한다. 實効있는 劃一主義 乃至는 固定式으로 國民運動을 展開해서는 안 될 것이다. 國民運動의 主體는 窮極의 多樣性을 沒却하며 따라서 이 國民大衆의 異質의 多樣性을 沒却하는 國民運動은 그 存在意義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이다. 都市와 農漁村의 異質性 같은 都市에 있어서는 市民生活의 階層性 그리고 男女老幼의 區別 및 年代別의 特異性 青年 學生層에 있어서는 그 多樣性에 留意해야 함은 勿論이며 또한 各職種別에 있어서는 그 條件의 多樣性에 對한 配慮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運動의 對象이나 主體의 多樣性과 異質性을 考慮하여 國民運動도 適切하게 伸縮性을 가지고 展開되어야 하며 特別經濟的社會의 그리고 文化的인 相違性을 恒常 念頭에 두고 指導 啓蒙해야 할 것이다. 指導要員을 통한 國民啓蒙은 따라서 우리나라 社會의 特異性과 國民各階層의 異質性을 充分히 勘案하고 이른바 對人接觸을 통한 浸透式 指導啓蒙을 實踐해야 한다. 一切의 權威主義를 排除하고 人間感情에 直接呼訴하는 勸獎共勵의 啓蒙方式에 依해야 할 것이다. 勿論 各種 出版物 放送 映畫等 現代 매스·콤의 모든 方法이 總動員 되어야 할 것이나 國民啓蒙의 가장 效果的인 方法은 亦是 指導層의 率先運轉에 依한 對人接觸의 直接 指導와 啓蒙이 가장 意義 있고 效果있는 方式임에는 틀림 없을 것이다.

五、再建國民運動의 앞으로의 展望

五、一六軍事革命이야말로 우리나라 後進的인 封建社會相의 改革을 斷行하는 千載一遇의 好機會이다. 이 機會를 놓친다면 永遠히 그러한 課業은 成就하기 힘들 것이다. 이번의 社會的인 改革이야말로 國民들로 하여금 새로운 政治的인 主體意識을 確立시키고 새로운 指導者에 對한 自發的인 協心力을 觸發한 것이며 이로써 國家民族에 對한 國民的인 自覺이 強해짐으로써 우리는 北韓共產傀儡의 對決에 있어서 能히 勝利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國民運動은 決코 政黨運動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一政治層에서 造言流布하듯이 與黨化云云 또는 政治活動云하는 소리와는 아무런 相關도 없는 것이다.

國民運動은 獨善的인 排他運動이 아니요 어디

까지나 舉國의인 國民活動이므로 널리 門戶를 開放하여 清新하고 熱意있고 國民革命의 精神을 간직한 有能한 인士를 包攝하는 雅量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長久한 時間에 걸쳐 品을 때로 품은一部 既成政客들에 對해서는 決코 이 나라 國民이 맡아 드리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一定한 時期에 이르면 國民運動의 組織體制는 官制의 性格에서 完全脫皮하여 하나의 純粹한 民間運動體로 發展 轉換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時期는 그 어느 누구의 意思

에 따라서 決定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國民 各自의 自覺과 實生活態度에 依해서만이 決定 될 것이다. 그야말로 아래로 부터의 『再建態勢』가 自律的으로 完備되는 時日이 빠르면 빠른수록 國民運動은 그만큼 빨리 成功을 거두게 될 것이다.

國民各自는 五、一六軍事革命의 主體的 指導者를 中心으로 團合하고 새로이 出現하는 國民革命의 指導層을 기꺼이 맡아 드리는 氣風을 간직하여 이 나라 이 民族의 民主再建을爲한 士氣를 굳건히 세워야 한다.

二、軍事援護關係

一、制定의 意義

今般 政府는 軍事援護廳設置法을 爲始한 軍事援護關係 四個法律을 制定 公布하여 軍事援護業務를 專擔한 軍事援護廳을 새로 設置함과 아울러 被援護者에 대한 援護方法 援護基準等을 規定하여 現在까지 名目上에만 그치고 別로 實効를 거두지 못하였던 軍事援護制度에서 脫皮하여 계속의 이고 實効性있는 軍事援護를 期하고져 諸般措置를 取하였다.

除隊軍人中 특히 傷痍軍人이나 歴戰勇士의 遺族에 대한 問題는 爲政當局者가 深刻히 다루어야 할 問題임에도 不拘하고 舊政權下에 있어서는 이것을 名目上 一時的 彌縫策으로서만 取扱하여 實質的으로 効果없는 援護事

法律制定의 趣旨

業을 하였다는 것은 遺憾된 일이 아닐 수 없다. 國民으로서 國土와 國民을 守護하기 위하여 國家의 干城으로서 兵役에 服務하는 것은 憲法上의 義務의 하나이며 國民 누구나를 莫論하고 當然히 맡아야 할 義務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崇高한 義務遂行에 대한 報酬의 結付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 義務를 遂行하므로써

임은 個個人의 犠牲에 대하여 온 國民이나 그 受任者인 爲政者로서 이를 無關心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그들이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고 그 遺族이 依支할 곳 없이 街頭에 彷徨하게 되거나 또는 傷痍軍人으로서 不具의 몸이 되어 一生을 不具者로서 生途가 漠然한 것을 보고 어찌 이를 放置할 수 있을 것인가 實로 그들에 대한 對策問題는 우리 나라의 現社會問題中 가장 重要한 問題의 하나이며 이

에 대한 適切한 對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三八線을 咫尺에 두고 失地恢復의 重大課業을 遂行하기 위하여 長期間 戰時態度로써 共產軍과 對峙하여야 할 現實에 있어서 軍事援護의 意義는 非單 그들 被援護者의 生活難과 失職으로 부터의 救護를 함으로써 그들의 새로운 希望과 愛國精神을 昂揚시키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忠城을 다하여 軍內에서 服務하고 있는 우리 百萬大軍의 現役 將兵들의 士氣에 미치는 影響이 莫大한 바 있는 것이다.

마침 軍事革命에 依한 軍政權下에서 軍事援護에 대한 施策이 進行되었다는 것은 언뜻 「軍人優先主義」라는 誤解와 淺慮를 招來할런 지 모르지만 國民은 누구나 兵役에 服務할 義務가 있으며 또 軍人은 國民을 떠나서 存在할 수 없으므로 軍事援護에 대한 確乎하고도 實効性 있는 政府施策에 依하여 도움을 받을 것은 汎國民의 이념 것이므로 도리어 이러한 政府施策이 軍事政權에 依하여 實現되었다는 것은 國家萬年大計을 위하여 더욱 意義가 있는 것이다.

二、制定의 必要性

被援護對象者인 除隊軍人 傷痍軍人 또는 그 遺族中에는 社會에서 隔離된 軍人生活와 軍의 特殊한 教育으로 因하여 社會人으로서의 生活競爭에 이겨낼 수 없는 者가 많으며 或은 軍의 特殊教育으로 因한 知識面으로 볼때 社會生活를 하는데 必要한 教育과 經驗이 不足한 경우가 많고 또는 國家에 獻身한 努力에 대하여 國家의 報費을 要求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國家의 報費을 要求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國家의 報費을 要求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國家의 報費을 要求하는 경우가 많다.

軍人生活로 因하여 個人이 입은 經濟的 損失 또는 社會人으로서의 知識의 後進, 自治能力의 減少를 國家가 認定하여 이를 國家에서 補償하며 勳章, 戰爭으로 因하여 身體的 障害을 입은 傷殘軍人에게는 그들의 社會生活를 하는 데 있어서의 活動의 不足한 分을 國家가 補助하며 喪禮, 殉國勇士의 遺族에 대하여는 祖國을 위하여 몸을 바친 勇士의 崇高한 精神을 받들어 國家가 이를 代身하여 遺族을 돌보아 주는 것이다.

元來 軍事援護의 發展課程은 國家에 따라 方法에는 差異가 있으나 根本的 精神에는 큰 差異가 없으며 社會保障制度의 發展 如何가 軍事援護制度에 큰 影響力을 미치는 것이다. 軍事援護制度로서는 土地分配, 集團事業體, 特權의 賦與等을 內容으로 하는 集團援護方式과 多額의 金額을 一時에 支給하는 一時的 解決方式도 있으나 軍事援護는 어디까지나 個人別로 年金 職業補導 定着事業等을 계속의 方式로 實施하는 個人援護方式으로 함이 實效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從來의 우리나라 軍事援護制度에 있어서도 軍事援護法을 爲始하여 軍警年金法, 公務員年金法, 軍人死亡金給與規定, 軍人戰傷給與金規定等이 있어 軍人 除隊軍人 傷殘軍警과 遺族에 대하여 救護를 實施한 것만은 事實이나 從來의 그것은 被援護者들에 대한 根本的인 實効性 있는 援護로서는 너무나 距離가 먼 것이었다. 또한 그 業務를 擔當하는 機關으로서 國防部, 保健社會部, 遞信部等이 있어 機關의 分散으로 말미암아 統一되고 強力한 援護를 期할 수 없었으며 또 一般 援護와 같이 取扱되고 있었으므로 自然히 그 業務가 疎忽이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도리어

各機關의 維持上 莫大한 行政費를 消耗하였다. 또 傷殘軍人會나 遺族會는 本來가 親睦團體임에도 불구하고 援護團體로서 取扱되는 등 行政의 貧困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弊端도 附隨의 原因으로 생겨서 社會的 秩序의 混亂을 일으키게까지 되었던 것은 不幸한 일이었다. 以上과 같은 從來의 弊端을 是正하고 軍事援護의 萬全을 期하기 위하여 今般 政府는 軍事援護廳 設置法을 爲始한 四個法律을 制定 公布 케 된 것이다.

三、諸法律의 主要骨子

(一) 軍事援護廳 設置法

前述한 바와 같이 本法은 軍事援護業務를 計劃의 이고 實効性있게 統一的으로 管掌할 援護廳을 設置하기 위한 組織法이며 이 法의 制定으로 從來 保健社會部 國防部 遞信部 其他 援護團體等 여러 機關이 分擔하고 있던 援護業務는 이 援護廳에서 統一的이며 強力한 執行力으로써 實施되게 되었으며 더욱이 이 法으로써 軍事援護를 名目으로 하던 一切의 援護團體는 解散하게 되어 援護活動을 禁止하게 된 것이다.

(二) 軍事援護對象者 任用法

本法의 目的은 除隊軍人으로서 公務員을 願하는 者에 대하여는 그가 軍에서 習得한 教育과 經驗을 發揮할 수 있는 機會를 줄과 同時에 生活對策을 講究할 수 있는 機會를 國家가 마련하여 주어 一般 社會人と 競爭이 可能하도록 함에 있다.

(一) 本法의 適用을 받는 對象者는

(가) 除隊軍人 (나) 傷殘軍人 또는 傷殘軍人이 就業不可能한 경우에는 父, 母, 妻, 子女中

의 一人 (다) 戰沒將兵의 遺族에 대하여는 未亡人 또는 父, 母中의 一人 (라) 傷殘軍警年金法에 依하여 年金을 받는 前職警察官과 그 遺族等이다.

(2) 本制度에 依據하여 被援護者가 就職할 수 있는 機關은

(가) 政府各機關 (나) 地方自治團體 (다) 政府直轄企業體等이다.

(3) 特典

(가) 除隊軍人의 軍服務中의 職位와 服務經歷을 一般社會에서 그대로 認定하여 一般社會人과 競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採用試驗에 있어서 除隊軍人에 대하여는 試驗萬點의 5%를 傷殘軍人 또는 戰死者의 遺族에 대하여는 10%를 加算하도록 하였다.

(다) 試驗을 거치지 않고採用될 職位에 대하여는 本法에서 定하는 順位에 依하여 優先任用하도록 하였다. (라) 減員優先保留制 實施 (마) 復職制의 確立

(三) 軍事援護對象者 雇備法

本法의 目的은 除隊軍人과 遺族을 政府 各機關 또는 企業體에 義務의 優先의 雇備을 하여 被援護者의 生計保障을 圖謀함에 있다.

(1) 本法의 適用을 받는 對象者는

(가) 除隊軍人 (나) 傷殘軍人 또는 傷殘軍人이 就業不可能한 경우에는 父, 母, 妻, 子女中의 一人 (다) 戰沒軍警 遺族과 傷殘 軍警年金法에 依하여 年金을 받는 前職 警察官과 그 遺族

(2) 本制度에 依據하여 被援護者가 就業할 수 있는 機關은

(가) 政府各機關 地方自治團體 및 國庫補助를 받는 機關 (나) 人員 二十人以上을 雇備하

고 있는 企業體 其他團體、

(4) 軍事援護對象者 定着貸付金法

本法의 目的은 除隊軍人 傷殘軍人 軍人遺族
을 定着시키고 貸付하는 財源으로서 定着케 하
여 生計維持策을 講究하도록 하여 주는 데 있
다.

(1) 本法의 適用을 받는 對象者는

(가) 中士(一等兵曹)以上の 軍人으로서 十
年以上服役後 轉役된者 (나) 戰傷을 입고
戰沒軍警遺族과 傷殘軍警年金法에 依한 年金
該當者로서 轉役된者 (다) 戰死者 權職者의
妻 또는 父母(本人이 長子인 경우에 限)

(2) 本制度에 依據하여 實施할 貸付의 種
類는

(가) 農場購入貸付 이 貸付는 評價된 農場

價額의 七〇%以內로 하되 그 限度額은 五百
萬圓으로 한다.

(나) 農場擴張貸付 이 貸付는 三百萬圓을
限度額으로 한다.

(다) 住宅購入 또는 新築에 대한 貸付이 貸
付는 評價된 建物價額의 七〇% 以內로 하되
그 限度額은 三百萬圓으로 한다.

(라) 事業體의 購入 또는 傳賣에 대한 貸付
이 貸付는 評價된 事業體의 評價額의 七〇
% 以內로 하되 그 限度額은 五百萬圓으로 한
다.

四、結 論

軍事援護에 關한 以上과 같은 諸法의 制定

公布로써 除隊軍人 軍警遺族 傷殘 軍人等
被援護者들에 대한 國家의 權益保障은 充分히
마련되어 왔으며 이것은 그 惠澤을 앞으로 입
을 當事者들에 대한 福音인 同時에 現役軍人
은 勿論 앞으로 軍에 入隊하여 國土防衛의 重
任을 맡을 壯丁들의 士氣를 크게 昂揚시키게
될 것이다.

(끝)

後 記 ○: 天高馬肥! 하
늘 맑고 마음도 맑
은 季節, 一秒의 時刻도 무인가 아귀
음을 느끼는 季節, 가을은 分明 季節
의 스타! 革命課業遂行의 템포도 한
층 더하여 지는 季節이다.

국가재건을 위해

귀관은

무엇을 실천 하였나

標 語
再 建

○: 아침 라디오에서 문득 다음과
같은 귀절이 귀에 들어왔다. 「한가지
의 나쁜 버릇을 고치면 열가지의 나
쁜 버릇이 따라서 고쳐지고 한가지의
좋은 버릇을 기르면 열가지의 좋은 버
릇이 따라서 기루어진다」고. 五、一
六革命은 이미 國民으로 하여금 果敢
한 舊惡一掃을 實踐케 하고 있는 터이
지 않는 이 라디오의 말이 다시 머리
에 머 오른다. 우선 가까운 것부터 그
리고 쉬운 것부터.....

○: 시골에 出張을 갔다가 온 어
느 知人이 感銘깊은 얘기를 들려
주었다. 旅館에서 늦잠을 좀 자를 생
각이었는데 아침이 되어 때가 되니 旅
館 主人이 방밖을 돌아 다니며 잠을
깨우기에 왜 그러느냐고 하였더니 主
人曰 「방은 손님이 돈을 내고 자신
房이라 하루 종일 이라도 주우실 自
由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旅館집은
저의 집이오 저의 집에서는 革命 후
아침 여섯시에 모두 일어나는 버릇을
기르고 있으니 손님께서도 저의 집 바
위에 協調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며 未安해 하면서도 強勸하던데
제가 가까이 가 본 것부터 쉬운 것 부터:
實踐하자!

○: 「미사일」發刊이 늘 늦은 것은
讀者將兵에게 未安하기 그지 없다.
아무런 冊子란 量의 價値가 아니라
質의 價値가기에 內容의 充實을 期하기
때문이라고 辯明은 하지 않는 中間
적 正當的 軌道에 오르지 못한 編輯
시스템에도 口實이 없지 않다. 이제
다음 號부터는 刊行日字를 지켜 제
구실을 다 하도록 할 作定이다.

○: 겹해서 이 紙面을 빌려 「코메
트」와 「미사일」의 刊行趣旨 중, 內容
과 그 性格을 간단히 紹介하면 前者는
反共和 民主理念教育을 後者는 生活實
踐教育을 뒷받침하는데 그 主眼을 두
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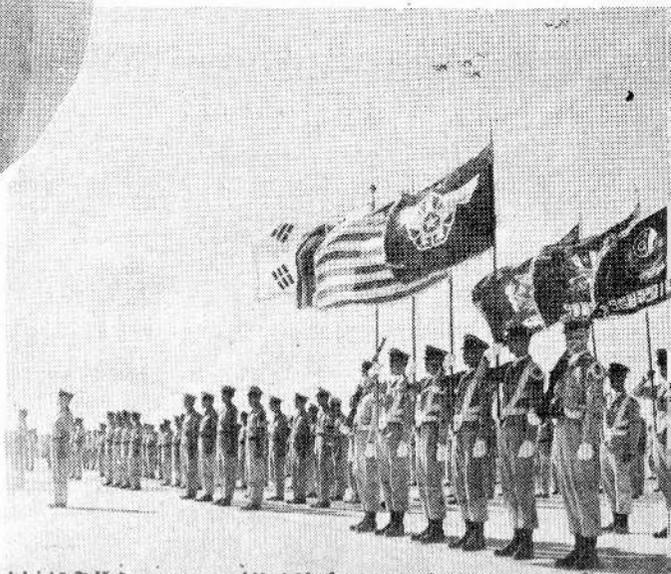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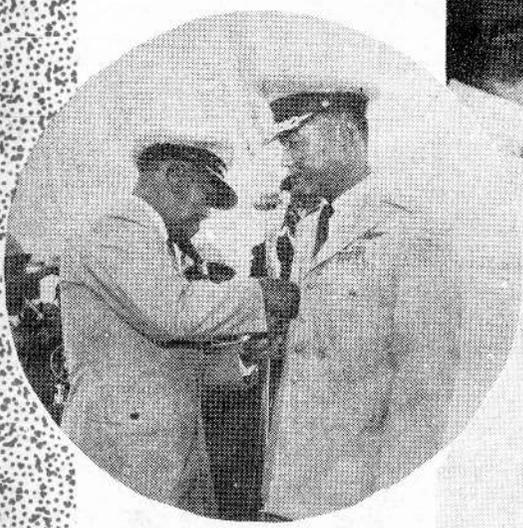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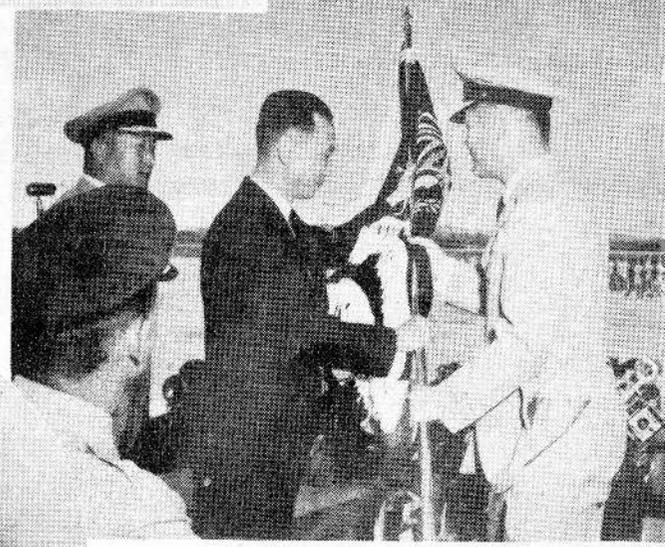
공군 작전사령부 창설식



全空軍의 戰術部隊를 統合指揮
 될 空軍作戰司令部의 創設
 지난 9月 15日 K-55基地에
 大히 舉行되었다.

中 = 朴國防部長官이 初代
 司令官 金成龍准將에게
 隊旗를 授與하고 있

圓內= 金參謀總長이 航空
 胸章을 金司令官에게
 아주고 있는 光景





<前進하는 戰力>

步武도 當當히 기운차게 前進하
族의 進軍이 있다.
나 같은 步調.....
나 같은 마음.....
의 倍加도 國家再建도 여기서 成
다.

發 行 處·空軍本部 政訓監室
發行兼編輯人·空軍大領 朱 貞 鎬
印 刷 處·空 軍 教 材 廠
印 刷 人·空軍大領 金 石 桓

月 刊 **미 사 일** 5 號

공군본부 정훈감실